

인제문화

2012 | 제27집



인제문화원

인제문화

2012 | 제27집



힘찬 아이들. <인제산촌민속박물관> 들에서/ 사진 : 최종익 작가

인제문화원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년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남덕우 인제문화원 원장

〈인제문화〉가 발행되면 또 한 해가 넘어간 것을 실감합니다.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흔적을 남기며 삽니다. 삶은 무언가를 남기는 행위잖습니까. 그렇게 우리 각자가 남긴 무언가가 쌓여 하나의 문화가 되고, 이 문화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내 삶이 내일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밑거름이고, 나아가 알맹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군민 여러분은 2012년을 사시면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난 〈인제문화〉를 보면 군민 여러분의 삶이 보이기도 합니다. 〈인제문화〉에는 군민 여러분이 심혈을 기울인 예술작품과 삶을 담은 글이 오롯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품마다에서 인제가 보이고 사람이 읽힙니다. 행간마다에서 우리 인제 사람들의 질박한 삶이 연기처럼 피어납니다.

이번 〈인제문화 27호〉도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원고 한 줄 한 줄이 갓 태어난 자식을 보는 것처럼 애뜻합니다. 글에 담긴 내용이 마치 내 집에서 일어난 일처럼 느껴집니다. 참신한 표현이나 기발한 생각을 펼치는 곳에서는 글을 쓴 분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만나는 분들의 삶이 담긴 책을 한 권 더 갖는 재미가 있습니다.

원고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책을 만드느라 애쓴 직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소박하지만 참되고, 작지만 울림이 큰 〈인제문화 27호〉를 우리 군민 여러분께 삼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문화사업



2012년 인제문화원 정기총회



제15기 인제문화원 개강식



〈제5회인제문화원장배〉 바둑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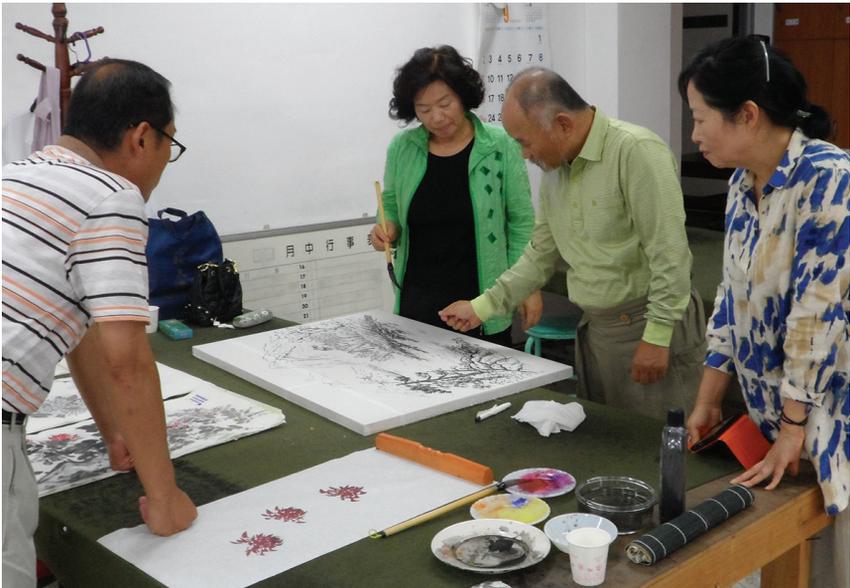


인제문화학교 한문서예교실

2012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한글서예교실



인제문화학교 수묵화교실



인제문화학교 미술교실



인제문화학교 고전무용교실



인제문화학교 민요교실



인제문화학교 다도교실



인제문화학교 댄스교실



인제문화학교 색소폰교실



인제문화학교 아코디언 교실



〈인제연합풍물단〉 합동연습



<찾아가는 문화캠프>, 인제고등학교에서 천연비누 만들기



어르신들의 전쟁경험담을 듣는 인제고와 원통고 학생들



〈한계령지킴이〉 회의 모습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악기 보급사업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악기 보급사업



군단과 8군단 친선축구대회에서 우리차 맛보기



〈제3회 인제군 사물놀이경연대회〉



문화탐방, 영월군



문화탐방, 단양군



문화탐방, 강릉시

박인환 문학관 개관 기념 제1회 박인환 시화 그리기 대회

주최 : 인제산촌민속박물관 | 후원 : 인제군

대상 수상작



목마와 숙녀

손모야 / 인제고등학교 2학년

제1장 향토사

내가 겪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 마용봉 • 22

원통 이야기 | 김경애 • 38

내설악 문화 | 문화칼럼 • 62

제2장 기고문

백제의 꿈 부여를 다녀와서 | 최광윤 • 72

제3장 백일장

제11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 84

제18회 하늘내린강원환경백일장 • 120

제4장 향토문예

산문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풍경 | 한용운 • 196

허벅지 치기 | 나영희 • 207

님은 먼 곳에 | 김경애 외 • 217

시

무제2 | 오정진 • 237

여생

황태의 꿈 | 박돈구

春三月 | 한용운 • 240

산사의 가을 | 허계홍 • 242

황태해장국 | 정순덕 • 245

모기

양구대교로 간 잉어 | 박영식 • 248

기호 | 한명숙 • 251

길

방학 | 김수현 • 254

싸움 | 심산 • 255

겨울이 외 7편 | 안지혜 • 256

창밖에 비 외 5편 | 손예진 • 262

내가 한 말 취소야 외 1편 | 박가은 • 268

제5장 입서전

제16회 인제서회 입서전 • 272

임원 명단 • 296

직원 현황 • 297

원고 모집 • 298

제1장



향토사

Inje Culture

내가 겪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마용봉 옹 구술

녹취와 정리 정무교

구술에 앞서

마용봉 옹을 찾은 때는 2012년 여름이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을 피해 방에 계신 마용봉 옹은 지금도 농사를 지으실 만큼 정정하셨다. 농사는 집 앞의 꽤 넓은 밭에서 오미자를 심으셨는데 다른 작물보다 수입이 좋다고 하신다. 방 한쪽에는 부인이 누워계셨다. 몸이 불편하셔서 간간히 앓는 소리를 내셨다.

성함과 연세를 사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마용봉이고 아흔네 살이에요. 기린면 서리에 살아요.

건강비결이 있으세요?

뭐 별로, 지금은 건강식품이라고 찾아 먹는 그게 우리 식생활이었어요. 잡곡밥에 나물도 먹었는데 사실 먹을 게 없어서 먹었지만 지금은 건강식이예요. 우리는 생활이 넉넉지 못해서 특별히 몸에 좋다고 먹은 건 없어요.

선친들이 장수하셨나요?

선친들은 여든까지 사셨는데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은 아들이 다섯이고 딸이 하나예요. 모두 외지에 나가 있어요.

태어난 해가 언제신가요?

내가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그 해에, 음력 3월에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현리에서 건너와서 솔밭 그곳에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우리 집은 꼭대기에 있었어요. 원 고향은 평안남도예요. 큰아버지가 먼저 이곳으로 오시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1918년에 내려 오셨어요. 나는 이곳에 온 지 한 해 뒤에 태어났어요. 아버님의 형제는 둘이었고, 나는 형님이 있고, 여동생이 셋 있었어요. 형님은 왜정 때에 여기에서 노무자란 말도 못 듣고 일본에 신사를 지리 간다고 해서 갔는데 남양군도에 노무자로 갔어요. 서리에서 네 사람과 함께, 인제에서 40명이 갔어요. 가보니까 남양군도 해군작업단이었어요. 거기에서 편지를 했는데, 그걸 보고 우리도 알았어요. 군사시설을 만드는 노무자로 강제로 끌고 갔지요. 불행하게도 우리 형님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해방 1년 뒤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서리에서 간 사람들은 해방 전에 돌아왔어요.

어릴 때 기억나는 일은요?

가장 어릴 때에 생각나는 건, 밥 먹고 노는 건 보통이지만 지금의 솔밭을 광대버

덩이라고 하는데 돌만 있고 평평한 곳이었어요. 내가 클 때만해도 장마가 지면 다 패어졌고, 그 다음에 소나무 씨가 장마에 떠내려 와서 자라더니 지금처럼 나무가 컸어요. 그때는 광대버덩이 판판한 곳이었어요. 당시에 아버지가 산림을 주관하셨어요. 소를 서너 마리를 풀을 먹이려고 아침에 광대버덩에 매어 놓고 학교가 끝나면 풀어 놓고 먹이다가 저녁에 몰아왔어요. 그 당시 광대버덩에는 소나무가 큰 게 없었어요. 그 뒤로 솔씨가 떨어져서 큰 거지요.

산에 좋은 나무들이 많았나요?

산에 소나무가 많았지만 개인 사유림에 큰 나무는 없었어요. 그때는 스무 자로 잘랐어요. 여기에서 소나무를 베어서 앞의 강에 떠내려가게 해서 합강정에서 뗏목을 만들어서 목상들이 서울로 갔어요. 국유림에는 굵기가 한 자 이상의 나무가 많이 나왔어요. 어떤 건 두 자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당시 목상은 머리가 깨인 사람이 했어요. 목상은 돈 좀 버는 일이었어요. 여러 사람이 나무를 만져서 벌어들였지요.

할아버님의 아버님은 뭘 하셨나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어요. 밭농사와 논농사. 논은 한 천 평 붙였어요. 밭은 오천 오백 평이었어요. 논밭이 많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내가 살던 곳은 땅값이 싼 곳이라 우리는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때는 식량이 얼마나 귀했는데 논농사를 지면 공출이라고 해서 일본에게 바치잖아요. 그러면 역배급을 해줘요. 그러니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그때는 기후가 추웠어요. 현리 학교를 우리 다닐 때는 보통학교라고 했어요. 지금 눈이 오면 며칠 지나면 눈이 녹지만. 그때는 추워서 초가을에 눈이 오면 쌓여서 녹지를 앓았어요. 겨울에는 지금 절이 있는 곳에서 배로 건너 학교에 갔고, 겨울에는 학교 앞 조금 내려와서 나무로 다리를 놓고 술가지를 덮은 뒤 그 위에 다

시 흙을 덮어서 건너다녔어요.

보통학교에는 교장이 일본사람이고, 한국사람 교사 둘 해서 셋이었어요. 학생 수는, 돈이 없으니 가르치는데 어려웠어요. 내가 입학할 때는 한 백 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백 명도 못 됐어요. 돈을 못 내니까. 그때 월사금이 4학년 전까지는 40전이고, 5-6학년은 60전이었어요. 월사금을 매달 내야 하는데 그것도 못 냈어요. 그때는 국수 한 그릇이 10전이었어요. 꽤 되는 돈이라 학생들이 다니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 풍수해도 많아서 나무도 바람에 자빠지고 해서 학교도 못 가고요. 결국 우리 입학생 중에 12명이 졸업했는데 실제로는 열 사람이 졸업했어요. 1학년으로 입학해서 6학년에 졸업한 사람은 세 사람뿐이었어요. 그때는 보통학교가 흥천 내면, 상남, 기린 합해서 기린에 하나밖에 없었다. 세 면에 하나밖에 없어서 내면에서 사는 학생들이 기린까지 왔어요. 지금 춘천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때 소값이 싸서 한 마리 팔아야 몇 달 학비를 내는 정도였어요. 돈 있는 집안에서만 학교를 다녔어요. 여자는 우리 3-4년 아래에야 입학을 해서 다녔어요. 우리 나이 위에는 없고.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쳤나요?

그때는 맨 처음에는 한문도 조금 가르쳤는데 곧 없어졌고, 일본어, 산술, 국어도 있었는데 국어는 조금하다가 아예 없어졌어요. 역사는 일본의 역사를 배웠어요.

아이들은 뭘 하고 놀았나요?

당시 노는 건 돌멩이로 공기를 만들어서 놀았어요. 가죽으로 만든 축구공이 학교에 있어서 공도 더러 찼어요. 우리 클 때는 논다는 게, 놀긴 놀지만, 음력 설을 제일 큰 명절로 치고. 그때는 인심이 좋았어요. 아주머니들은 긴 송판을 놓고 널을 뛰고. 정월 초하루 초이틀에는 여자들이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뒤부터는 나가기고 하고 떡도 나눠 먹고. 정월에 만두도 해먹고. 춘향전 같은 소설을 사랑방에서 목청 좋은 사람이 읽고. 정월 음력 열나흘 날은 ‘여름날’ 이라고 해서 밥도 젓가락으로 먹어요. 순갈로 먹으면 ‘밭고랑이 넓은 게 걸린다’ 는 말이 있거든

요. 그때는 밭을 품앗이해서 일했잖아요. 그때 좁은 게 걸리기를 바라는 거지요. 그때는 전수 하나씩 풀을 뽑고 호미로 쫓지, 지금은 기계로 해서 몇 천 평씩 하잖아요. 그때 하루 종일 해봐야 다섯에서 여섯 고랑 했지요. 보름이 지나고 십육일 날은 귀신을 달래는 날이라고 해요. 귀신이 온다고. 그래서 문 밖에 가루를 치는 체를 달아놓았어요. 체에 구멍이 많으니까 귀신이 집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체 구멍을 세다가 못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돈도 귀하고 석유도 귀했어요. 그래서 기름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은 남포불을 켜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기에 등잔불을 켜놓고 썼지요. 방구석에 코를 만들어서 관솔을 캐다가 태워서 불로 쓰기도 했어요.

겨울에 나무를 많이 떼면 따뜻한테 새벽이 되면 춥지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쯤에 쇠죽을 쭈러 나가 불을 떼면 자는 사람은 따뜻하게 잤지요.

그때는 일을 어울려서 했나요?

그렇지요. 혼자 하면 얼마 못하니까. 그때 같이 하는 일을 ‘품앗이’ 라고 했어요.

‘두레’ 라고는 안 했나요?

두레는 여기 말이 아니에요. 품앗이는 있어요. 봄이 되면 내가 그 집에 가서 해주고, 그 사람이 우리 밭일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품앗이라고 해요. 김도 매고. 그때는 도토리 열리는 참나무를 베다가 눈에 거름을 삼아요. 말하자면 풀 잎사귀지요. ‘소만’ 이 되면 갈을 꺾고 ‘망종’ 때 모를 심어요. 참나무 베는 걸 ‘갈을 꺾는다’ 고 해요. 이 일은 품앗이가 아 돼요. 사람을 사서 해요. 보통 일곱 짐을 꺾는데, 진동 같은 데는 논 안 붙이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일부러 갈을 꺾으러 다녀요. 갈 품삯이 아주 비싸요.

왜 비싼가요?

때가 있으니까. 소만 때만 해야 하니까. 몇 칠 지나면 너무 커서 거름이 덜 되니까. 이 사람들은 밤에 와서 자고 새벽부터 가서 꺾어요. 눈에 갖다가 놓고 당장 버

나 쌀로 받아가요. 백 평이 한 마지긴데 한 마지기에 한 일곱 짐 정도 꺾는데 한 마지기에 한 품은 사야해요. 비료가 난 지 얼마 안 돼요. 내가 소화 8년에 졸업을 했는데 그 전에 더러 비료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비료가 없고, 갈을 꺾었어요. 잡초를 썰어서 소 오줌 똥과 합해 놓으면 썩어서 밭에 퇴비로 썼지요. 함경도 함흥에서 비료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비료를 치면 벼가 너무 커서 ‘비료 치면 빌어 먹는다’ 는 말이 있었어요. 벼가 키만 크면 죽으니까. 그래서 비료를 거의 안 쳤어요. 갈을 논에 놓을 때 논이 흙과 잘 섞어서 놓아야 하는데 ‘선군’ 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해요. 여기는 소 한 마리로 갈지 않고, 두 마리로 갈아요. 끄는 힘이 좋거든요. 한 사람이 논 한 마지기를 심어요. 열 마지기면 모 심는 사람이 열 명이 있어야 해요. 이십 마지기 넘으면 선군이 네 명이 필요해요. 그 밖에도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밭을 갈 때도 비탈밭이면 사람이 대여섯을 돼야 일을 해요. 그래서 품앗이를 할 수 밖에 없어요. 품을 갈지 못하면 돈으로 내요.

‘참’ 으로 뭘 드세요.

여기서는 ‘잿놀이’ 라고 해요. 점심은 잘 해먹고 잿놀이는 간단하게 먹죠. 밀국수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 하고. 그 전에 양조장이 리마다에 있었어요. 서리에도 있었고, 복리에 현리에도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로 통합을 했어요. 그때는 주세도 없어서 자기가 누룩을 사다가 만들어 팔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주세를 받기 위해서 통합을 했어요. 밀주를 만들다가 벌금도 내고, 그러다가 문을 닫는 거지요. 막걸리 맛도 리마다 달랐어요. 가장 맛있는 곳은 진동리 조침령 밑의 막걸리가 좋았어요. 거기가 진동2리인데 물이 좋으니까 좋지요. 그 동네 사람들은 화전도 했지요. 어떤 막걸리는 냄새도 나는데 진동2리 막걸리는 취하게도 하고 좋았어요. 그 막걸리의 이름도 없어요. 내가 그 막걸리를 먹어 본 건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다니다보니까 먹어본 거예요.

소주는 없었나요?

소주는 늦게 나왔어요. 내 나이 스무 살 전에 있었어요. 면사무소에 다니다가 면

장을 하던 분의 아들이 오십 몇에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양조장에 들어갔어요. 그때만 해도 막걸리를 참 많이 먹었어요. 소주는 진동 같은 데, 산에 농사일을 하러 가면 막걸리를 짊어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소주를 가져갔어요. 논일을 할 때면 막걸리를 갖다 놓고 일하다가 한 잔 하고 지나가던 사람도 한 잔 하고 그랬지요. 돈이나 있는 사람이 죽으면 막걸리를 오십 말에서 육십 말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양조장이 가장 먼저 알아요. 술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때는 사람이 죽으면 오일장이나 칠일장을 했어요. 부락마다 직매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막걸리를 팔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많이 시키니까 배달을 해줬어요. 소주는 외지에서 들어왔지요. 왜정 때는 소주가 귀했어요.

농사 얘기를 더 해주세요?

옛날에는 혼자 일을 못해요.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한 거지요. 지금은 혼자 해도 하잖아요. 신남 같은 곳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다면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가서 독이나 짚이나 단지나 짐을 저다가 날라줬어요. 인심이 좋았고,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오면 동네 규칙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못 살거든요. 품앗이도 해야 하니까. 짐도 저다 주니 고마우니까, 두 부 같은 거에 국수도 하고 해서 대접도 하고. 지금은 한 동네 살아도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동네 사람이 무슨 필요냐 그래요.

추수 때도 품앗이를 했어요. 옛날에는 ‘테’ 라고 해서 타작을 돌맹이에 쳐서 떨었어요. ‘테 친다’ 고 그래요. 그러니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그 뒤로 밝으면 돌아가며 벼를 터는 기계가 나왔지요. 이 기계가 해방되기 전에 있었어요.

방아는 있었나요?

방아는 나무를 깎아서 하는 통방아가 주로 있었어요. 통방아도 물로 해요. 아침에 찜을 걸 갖다 놓으면 혼자 찜고, 가끔 가보면 됐지요. 나중에 물레방아가 나오면서 통방아를 헐어냈어요. 물레방아는 하루에 육십 말에서 칠십 말을 찜었어요. 통방아는 다섯 말 정도.

그때는 동네 위계질서가 엄격했겠어요?

엄격했지요. 우리 클 때는 반장이 아니라 부락에서 일보는 사람을 조합장이라고 했어요. 왜정 말에 반장이라고 했어요. 부락마다 다른 데 조합장보다 무서운, 힘 주고 사는 ‘대방’ 이라는, 직책은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못 배겨요.

동네에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른들이 꾸중도 하나요?

화투 같은 거 하면 동네 어른들이 알면 그 사람 집에 가서 문짝을 떼어놔요. 겨울에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신 안 한다고 그랬어요(웃음). 어른들이 투전이 나 화투를 못하게 했어요. 지금은 며느리하고도 화투를 치지만. 화투를 해도 일 전 내기 정도를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하고 노셨나요?

대개 젊은 사람들은 소설을 읽기도 하고, 담배를 사다가 칠성내기라고. 일부터 칠까지 놓고, 따먹기를 했어요. 사랑방에 모이면 살아가는 얘기 하고.

명절 얘기를 해주세요.

추석이 가장 좋지요. 햇곡식으로 송편을 빚어서 집집마다 떡을 먹으면 즐거웠지요. 지금은 식당이 많아서 외식도 하지만 그때는 사먹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국수가 먹고 싶으면 메일국수를 만드는데 지금은 밀가루를 섞지만 그때는 순메밀로 만들어요. 놀다가 심심하면 “야 국수추렴 좀 하자” 그러면 여섯 사람이면 한 말을 눌러서 실컷 먹고 그랬지요. 그때는 인심도 좋고. 강아지나 돼지를 나오면 지금은 팔아먹지만 그때는 돼지도 돈을 받는 일 없이 그냥 쥐요. 새카만 돼지가 작지만 맛있었어요. 몸집이 적고 주둥이가 길어요. 이 돼지가 원래 토종돼지예요. 한 칠십 근 정도 나갔어요. 잡아서 먹어도 기름이 별로 없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집집마다 한 마리 정도는 키웠어요. 쌀뜨물도 나오니까. 지금 돼지는 외국

종이죠. 닭도 토종닭이에요. 색이 빨갛고 적어요. 맛이 좋았지요. 돼지도 잡아서 나눠먹고. 돼지 한 마리 잡으면 다리 넷, 갈비 둘, 머리, 목과 배 이렇게 여덟 개와 내장 가운데 다리니 뒀니 하나씩 가져가요. 달아서 주는 것도 없어요. 이런 인심이 왜정 말기 되니까, 우리 물건을 가져가니까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때는 단오도 큰 명절이었어요. 동네마다 큰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탔어요. 우리 부락에는 지금도 단오면 음식을 만들어 놀아요. 소나무에 그네를 매고 타고요. 사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오동고리’ 라고 다섯 사람이 어깨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공연을 하러 오는 남사당패가 있었어요. 맨 위에는 애가 올라가지요. 남사당이 오면 상모 열두 발짜리를 돌리고. 동네에 돌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성기를 지고 다니며 틀어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천하지대본’ 이라는 깃대를 들고 다니면 집 주인이 돈도 내놓고, 쌀도 내주었지요. 단오에 씨름은 안 했어요. 산에서 뜯어온 취 넣고 취떡을 많이 해 먹었

현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현리에 쌀창고가 있어서 보통 ‘창말’ 이라고 했어요. ‘창고마을’ 이라는 말이에요. 이즈 때부터 쌀창고가 있었다고 해요. 벼를 모아서 쌓았던 자리가 있다고. 지금은 시가지정리니 해서 차가 다닐 만큼 넓지만 그때는 길도 좁았고 차라는 건 얘기도 못 들었고 기린서는 보지도 못했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나가 풀뿌기를 하는데 좁쌀을 두 되를 쥐요. 이게 하루 품이에요. 열 다섯 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열일 곱에 집을 짓고 이사했어요. 집을 한 번 옮겼어요. 그때 아버지 계시고 형님은 남양군도에 가서 죽고, 형수님이 있고, 여동생도 있고, 형님의 아기 둘 있고, 내게 딸린 식구 해서 10여명이라 농사 쳐 좁쌀 두 되로는 먹기 살기 어려워서 면서기로 다니는 게 낫겠다 해서 시험을 보아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정 때부터 24살에 면서기를 했어요. 면서기를 하는 걸 이렇게 시는 거다, 달리 생각을 못했어요. 해방이 된 뒤에 독립운동을 한 분들 얘기를 들었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시는 거다 생각을 했어요. 해방 뒤에도 면서기를 30년 했어요. 공무원 그만 둔 뒤에는, 면장을 하던 분이 양조장을

했는데 그분 아들이 죽으니깐 나를 오라고 해서 양조장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24살 때 면사무소에 들어가실 때의 기린은 어땠나요?

면서기로 들어갈 때의 현리는 교통이 워낙 불편하고, 차를 구경도 못하고, 호적을 보니까 춘천법원 같은데 나가면 그때 차를 타보고. 먹구너미(오동고개)라고 보통 그러는데, 하도 기니까 ‘먹구 넘어간다’고 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오동곡이라고 해요. 이 고개를 넘어서 목탄차를 타러 갔어요. 여기에서는 인제보다는 남면 신남리라고 했는데 신남이 가까우니까, 한 60리 되는데, 신남에 가서 버스를 탔어요. 차가 인제까지 왔어요. 왜정 때는 기린이 인제군에 속했다가 해방이 되고는 홍천군에 속했어요. 회의를 보러갈 때, 인제군청에 갈 때는 걸어 다녔어요. 수복되고부터 차가 이 앞에 다녔어요. 해방 되고 인제는 이북이 되었잖아요. 기린은 홍천에 속하고.

왜정 때 일본사람들이 탄피를 만든다고 낫그릇 다 걸어가고, 기름 만든다고 관솔을 파다가, 덕다리 못 미처서에 기름을 짜는 공장이 있었어요. 일본이 기름이 없으니깐 이 기름이라도 짜서 쓴 거지요. 머루나무도 가져다가 기름을 냈어요. 쌀도 농사를 지면 한 20마지기 하면 50가마 나오는데 다 공출을 해요. 다 가져가는 거지요. 그리고는 조금씩 배급을 줘요. 쌀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배가 고팠는데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죠.

해방 될 때 기억나세요?

해방이 되는데 ‘일본 놈들이 다 간다’는 말을 현리에 있으면서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8월 15일에 들었어요. 우리 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제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점령을 했었구나’ 알았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사는 거다’ 했어요.

해방이 되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해방이 되니 우리 자체가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 현리에 주민들이 모여서 경찰도

하는 등의 자치활동을 했어요. 일본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이곳에는 일본사람이
라야 주재소의 수석 하나, 학교 교장만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는데 슬그머니 일
본으로 갔어요. 워낙 시골이라 헌병도 없었고, 일본인이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
것도 없었고, 헌병도 없었어요.

생활이 참혹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찹을 많이 캐 먹었어요. 내
가 열댓 살 됐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찹을 캐어요. 우리는 밭이 있어서 찹을 캐지
는 않았고, 나물을 많이 뜯어 먹었어요. 잘 산다는 사람은 입쌀을 약간 섞어서 먹
었어요. 보통 못 사는 사람들은 조를 많이 심었어요. 대개 잘 먹으면 좁쌀에 콩을
섞어서 밥으로 먹었어요. 콩탕도 많이 먹었어요. 김치도 먹었고요. 장도 담고. 그
때는 작물이 크지 않았어요. 배추도 작았어요. 생활이 아주 어려웠어요. 찹을 캐
서 두드리면 빨금한 물이 나오고 가루가 나와요. 가루가 아주 꺼끌꺼끌한데 그걸
성긴 거와 같이 섞어서 먹었어요.

산에서 짐승도 모셨어요? 포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전에는 포수가 드물었어요. 하남에 와골(왜골)이라고 있는데 부자간이 포를
했어요. 이 분들이 우리와 평안도에서 같이 나온 분들이에요. 우리집에도 자주
왔는데 이 분들이 산에서 산돼지도 잡아오고, 노루도 많이 잡았어요. 그 아버지
는 평안도에서부터 포수였고, 아들은 이곳에서 배웠어요.

원주민 가운데는 포수가 없었나요?

원주민 가운데는 포수가 없었어요. 기린에는 총이 원래 없었어요. 일본 사람 하
나가 포수로 같이 다녔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어요. 곰도 더러 잡아오더라고요.
나도 곰고기를 먹었는데 구수하고 쫄깃하고 맛이 좋아요. 노루는 가끔 잡는데 봄
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가 ‘앵~’ 하고 울어요. 그럼 피리 같은 걸 포수가 불면
제가 낳은 새끼지 알고 어미가 온대요. 그러면 잡는데요. 산돼지를 산에서 본 적
도 있지요.

호랑이를 본 적은 있으세요?

호랑이를 본 적은 없어요. 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한계룡이란 분이 처음으로 포수로 나가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기린에서. 그런데 그 뒤에 사냥이 되지 않아서 호랑이를 잡아서 재수가 없다고 해요. 아무튼 호랑이를 잡았다고 하는데 잡은 건 못 봤어요.

산에 화전민도 많았지요?

산에 화전민이 많았어요. 기린면이 해방 전에 세대수가 2천이고 인구가 1만 정도였어요. 해방이 되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양구 해안 같은 곳으로 간 거예요. 당시에는 진동 2리에 호수가 170호 됐어요. 방동 2리도 100호가 넘었어요. 지금 진동 2리에 한 30가구 살까요? 아침가리가 방동 2리인데 거기 도 몇 집 있었어요.

화전을 하느라 봄이면 산마다 불이 났겠네요?

화전을 하느라 봄이면 산마다 불이 났어요. 국유림관리소에서 감시를 해도 몰래 불을 질렀어요. 발견되면 혼나니까. 화전도 몇 해 해먹으면 곡식이 안 되니까, 옮겨 다니며 했어요. 국유림에 큰 나무가 적은 것도 화전민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이에요. 평지에 밭이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니까 평지에 있는 밭도 버리고 간 사람도 많아요. 박정희 시대 전에, 해방되고도 화전정리를 했어요. 지금 기린에 있는 독가촌은 박정희 시대 때에 화전을 정리하면서 화전민들이 살게 된 곳이에요.

일제 때에 창말에는 어떤 가게가 있었나요?

그때 창말에는 생필품 가게가 두서너 개 있고, 약초상도 있고. 전파사나 그런 가게는 없었어요.

면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면사무소에서는 호적을 주로 보았어요. 그리고 재무도 보고 그 다음에 총무도 보고 나중에는 부면장을 했어요. 일제 때에 공무원봉급이 많았어요. 처음 들어갔더니 25원을 주었어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때 국수 한 그릇이 10전이니 25원이면 250그릇이에요. 다른 품값에 비하면 굉장한 거지요. 해방 뒤에는 면사무소에서 미국에서 온 쌀을 주었어요. 이걸로 살았어요.

해방 되고 미군들이 들어왔나요?

해방 뒤에 남쪽이던 기린에서 미국인을 더러 보았어요. 소련 사람들은 인제가 북이라 인제에서 많이 보았어요. 인제에 아는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는데 불일이 있어서 갔는데 소련군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전부 군인인데 한국 사람보다 체격이 컸어요. 인제에서 함강리로 오는 길을 지금은 다리로 건너지면 그때는 배를 타고 건너야 했는데 함강리 강변에 소련군이 가득 있었어요. 총을 가지고 있는데 민간인에게는 본 체도 안 해요. 거기에 삼팔선이라고 써 붙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온 거죠. 미군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이곳에서 지나갈 때 볼 뿐이었어요.

삼팔선을 두고 남과 북이 전투를 벌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삼팔선이 여기에 있고. 개울 이쪽은 서리고 건너며 북리인데, 북리도 반이 갈라져서 남과 북이 나뉘고. 진동도 2리는 북이고. 여기는 삼팔선이 지나가서 그것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지요. 해방된 뒤에 밤이면 삼팔선을 대한청년단(한청) 원들이 지켰어요. 귀둔과 진동이 삼팔선이 지나가니까 이곳이 넘기가 쉬우니까 북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어요. 처음에는 소장수들이 오고 물건을 팔러오고 그랬는데 북에서 못살겠다고 많이 넘어왔어요. 이곳에서 전투를 많이 했지만 우리는 전투를 보지는 못했어요. 말로 많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수색 그 패들이 가장 먼저 이곳에 들어왔어요. 분대가 넘는 국방군인데 수색을 해서 정보를 보고하는. 수색대들이 노인들을 북으로 보내서 상황을 보고 오라고 북으로 보냈는데 붙들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갔다가 못 왔으니까.

동네 분들도 간 분들이 있나요?

이곳의 주민들도 여럿이 갔어요. 돌아온 사람은 드물어요.

삼팔선에 철조망이 있었던 건 아니죠?

삼팔선에 철조망이 있지는 않았어요. 인제읍도 거의 북이었어요. 우리는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저쪽은 소련이 들어왔고,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기에 자연스럽게 삼팔선이 있었어요. 갈라진 사실을 해방되고 얼마 안 있다가 알게 되었어요.

북쪽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많았겠네요?

아나마나죠. 한 면에 살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밤에는 이쪽으로 넘어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을 보기도 했어요. 아예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한 면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하루아침에 저쪽은 빨갱이가 되었어요. 밤이면 북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해코지를 하니까, 군데군데 호를 파놓고 군인들이 지키기도 했는데 워낙 긴 거리고 군인들 자기들은 잠을 자고 한청 청년들이 지켰어요.

북에서 살짝 내려온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많지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나 밤에 넘어온 사람들은 그쪽 정치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없어요. 현리에서 만난 거지요. 내가 사는 서리는 당시에 배를 타고 건너와야 했기 때문에 날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북에서 진동 평밭으로 넘어오면 그곳에 살기도 하고, 나와서 살기도 했지요.

해방이 되고 흥흥했겠어요?

북에서 넘어오면 간첩이다 빨갱이다 하는데 간첩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넘어와서 사람들을 포섭하면 포섭당한 사람들이 지방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북에서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동네는 지방빨갱이가 있어요. 몰래 활동을 하지요. 대개 여기 사람들은 속지는 않아요. 여기 사

람들은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식이지.

면사무소에 있을 때에 인제에 나가면 원대리 개울 건너에 복주께봉에서 군인들이 와서 주둔을 했어요. 그때 전투가 벌어져서 거기서 시체가 생겨서 면사무소, 불에 타 지금은 다르지만 숙직실 아래에 시체를 더러 갖다 놓았어요. 그때 봤지요. 직접 총을 쏘는 걸 본 거 아니고.

육이오 직전에 북한군이 쳐들어올 김새가 있었나요?

넘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살기가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육이오 나고 먼저 피난 간 사람들은 가고, 나는 어물어물 하다가 못하고 산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디에 계셨는데요?

남면 소치리에 있었어요. 사촌 형님이 거기에 살았어요. 가보니까 큰 바위 밑에 평평한 곳이 있는데 물이 있고, 넓어서 한 부락 사람이 있어도 돼요. 거기에 있으면 세상에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창 단장 한 사람, 나 그리고 두 사람 더 해서 한 겨울을 냈지요. 사촌 형님이 쌀을 갖다 주셔서 먹었어요. 괜찮았어요. 거기에 있으니 총소리도 못 듣고, 비행기 소리만 들었어요. 그 다음해 봄에 나와서 는 이틀인가 사흘인가 있다가 후퇴를 하는데 그게 일사후퇴예요. 방태산 하남 용포다리 안 건너가고 그 골짜기인데 골짜기로 안 가고 능선으로 갔더라고요. 그런데 3군단이 후퇴를 하느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길이 새로 생길 정도예요. 우리는 맨 끝에 가는데 날이 새벽이야. 3시나 4시쯤인데 닭이 울 땐데 하답에 멈춰 있는데 지금 부락이 있는. 그쪽 개울에서 중공군이, 그 사람들은 나팔을 먼저 불어요. 그 다음에는 총을 쏘는데 딱꿍딱꿍 소리가 나요. 총소리가 나니까 선발대는 다 가고, 우리는 앞사람을 그냥 따라갔지요. 한참 가는데 중공군이 막고 있어서 국방군 차가 오미재를 넘지 못하니까 버리고 가려고 불을 질렀어요. 덕다리에서부터 용포다리까지 차가 섰으니 수백 대는 될 거예요. 그 차를 버리고 가면 북한군이 쓰니까 다 불을 질렀어요. 우리는 맨 뒤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군인과

민간인이 섞여서 누가 누구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묵밭에 중공군이 쏘는 총알이 떨어져요. 흙이 이만큼(손으로) 튀고, 생명이 위태했지요. 그렇게 몇 번. 그리고 배가 고파서. 먹지를 못하니까. 군인들도 가다가 힘들면 총이고 튀고 소지품이고 다 버려요. 군인들은 대항을 안 하고 다 내빼더라고. 우리는 군인을 따라가다가 내면에 갔어요. 그 부락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밥을 해주더라고요.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누룽지나 얻어먹었어요. 거기에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더 가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저녁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산속에 뭘 해왔는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과 같이 가봤지요. 거기에서 잤어요. 거기서 내가 장질부사에 걸렸어요. 으실으실 चु고 떨리고. 그래도 사람이 살 때가 되니까 죽지 않고. 그 동네 사람이 밥을 줘서 먹고, 그 사람이 집에 가는 길도 알려주고. 살 때가 되니까 그런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집을 찾아 밤에 길을 가다가 한 집에서 불빛이 나와요. 가서 보니까 그 집 주인이 자라고 해요. 자고 아침에 나오니까 그 집 주인이 우리 병장님을 알아요. 그 집 주인이 우리 장인의 매부가 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가족을 인사시키더라고요. 그 집에서 열흘 더 밥을 먹었어요.

그 집에 있는데 중공군 둘이 왔어요. 키가 작아요. 우리보다 더 작아요. 그 집 주인이 우리말로 “미군이 오면 너희는 죽어 가!”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중공군을 가까이 본 건 처음이에요. 소치리에서 북한군 들을 본 적도 있어요.

원통 이야기

김경애 수필가·원통부강철물 대표

원통이 많이 변했네!

오랜만에 원통에 온 사람들은 원통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70년대 초에 이곳 원통은 모든 것이 열악한 전방지대였다. 군인들을 상대해서 장사하느라 원통에는 술집과 여관과 음식점이 많았다. 또 군인 가족들이 많아 생활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고 물가도 비싼 지역으로 꼽혔다.

그때는 번듯한 집도 길도 흔치 않았다. 집이 길보다 낮은 이상한 곳도 있었다. 군데군데 길이 파여 물이 고이고 빙판이 저서 출입이 불편했다. 허술한 집들의 지붕은 거의가 깡통을 퍼서 납작하게 이은, 일명 깡통집이 많았다.

지금의 제주도 마을은 집이 몇 호 되지 않았지만 사방으로 물이 빙 둘러 흘러서 섬 같다고 해서 제주도 마을이라고 불렀다. 제주도 마을은 진짜 제주도를 닮은 듯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냇가에 빨래하러 나갔던 아낙네들의 빨래함지를 날릴 만큼 바람이 세찬 곳으로 유명하다.

지금 굿모닝사우나가 있는 곳은 옛날에 논이었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외곽도로에서 로터리로 들어오는 곳에는 보안부대 초소가 있었다. 24시 편의점 자리에는 헌병초소와 을지안내소가 붙어 있어서 많은 면회객이 거기를 거쳐 군인들을 면회하는 안내를 받았다. 이곳은 따끈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휴게소도 겸했다.

원통복지회관 자리에는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군인극장이 있었다. 전방지역의 군인들을 위한 유일한 문화공간인 이곳에서 군인들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줄을 서서 영화를 보았다. 덕분에 가끔은 우리 민간인도 영화를 보는 혜택을 누렸다. 극장에서는 오후만 되면 요란한 음악이 귀가 아프도록 들렸다. 처음엔 이 소리에 시달리던 우리도 나중에는 음악소리가 나지 않으면 웬일인가 궁금해 하

기도 했다.

지금처럼 번듯한 마트나 가게가 없던 시절이라 5일장이 유통의 역할을 단단히 했다. 장터로 가는 길목에는 통나무로 열기설기 엮은 돼지우리가 있었고, 사람들은 돼지우리 앞에서 구경을 했다.

원통이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에 주민들이 화합해 도시정리를 하면서다. 길이 넓어졌고, 길 좌우에 집들이 3층 4층으로 올라가면서 요즘의 모습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주위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이 변화의 요인이 되었다. 근간에 오거리로터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원통의 명물이 되었다. 44번 국도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도 깔끔하게 단장되어 새로움을 더해준다.

현재가 미래를 만들듯이 현재를 알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찾아가려면 과거를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이 글에서는 원통의 옛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보겠다.

.....
원통 이야기②

굿모닝, 원통!

굿모닝사우나는 원통 주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목욕탕이다. 번듯한 건물에 내부시설이 잘 되어 있어 해안과 서화는 물론이고 기린에서도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토요일이면 군인들도 끝없이 줄을 서서 사우나로 향한다.

옛날에 이곳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논이었다. 이른 봄에 모내기가 시작되면 이웃 사람들은 너나없이 이 집에 초대되었다. 그러면 온 동네가 못밥을 먹으며 잔치분위기를 냈다. 생각하면 인정이 넘치는 시골풍경이다.

밤이면 눈에서는 귀가 아프도록 울어대던 개구리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여름에는 무성하게 자란 벼들이 출렁이는 푸른 모습이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가을에는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고개 숙인 모습이 알찼다.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느라 벼를 밟는 아이들의 극성에 할아버지가 거의 매일 지팡이를 들고 고향을 지르는 모습도 지금은 정겹다.

개구쟁이들은 논 가운데로 흐르는 붓도랑에서 개구리와 물고기를 잡다가 신발을 물에 떠내려 보내고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맨발로 서서 울던 적도 많았다.

지금 원통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옆에는 크고 높은 아름답드리 버드나무가 있어 오가는 이들이 잠깐 쉬어가는 쉼터가 되었다. 그 밑에는 크고 튼실한 누런 황소가 항상 매여 있어 아이들은 무섭다고 뛰어다니던 곳이기도 하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집의 두 아들이 논을 메워 그곳에서 불력공장을 오랫동안 했었다. 불력공장을 하기 위해 터를 닦아 놓자 이곳은 원통에서 가장 평평하고 넓은 땅이어서 처음으로 야시장이 열리기도 했다. 전기시설이 열악해 꼭 필요할 때만 전기사용을 하던 그 시절에 휘황찬란한 오색불빛을 받으며 반짝이던 야시장의 물건들이 하도 신기해서 분별없이 이것저것 사던 생각에 지금도 웃음이 난다.

불력공장에서는 일꾼들이 틀을 사용해 불력과 벽돌을 찍어냈다. 틀에 찍혀 나온 불력과 벽돌은 말리기 위해 마당에 가지런히 놓여 보기에 좋았다. 이 공장이 없어진 뒤에는 경동택배가 가건물을 들여 사업을 했다.

당시 원통은 비포장도로였고 길도 적었다. 불력공장 앞, 지금의 로터리가 있는 곳은 당시 작은 공간이었는데, 속초, 서화, 원통중앙, 터미널 쪽으로 좁은 길이 나 있는 사거리였다. 그리고 길 주변의 집들은 항상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쓰고 초라하게 서 있었다.

이랬던 원통이 많은 분들의 수고로 '하나로 통하는 으뜸 원통'으로 거듭나고 있다. 우리 교회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한다.

원통에 웬 제주도!

제주도.

말만 들어도 금방 비행기가 붕 날아 우리를 이국풍경이 물씬 나는 도시로 태워다줄 것만 같다.

지금은 제주도를 가기도 쉽고 갈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만 70년대 초반 그때는 신혼여행이나 계를 부어야 한번 가는 꿈의 도시였다.

그런데 내가 갓 시집 온 새댁시절에 이곳 사람들은 제주도에 다녀왔다는 말을 쉽게 했고, 아예 제주도에 산다는 말도 했다. 제주도를 수시로 갈 정도면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이거나 했다. 아니면 군인이 휴가차 제주도 집에 다녀오던가.

나중에 알고 보니 강 옆에 있는 동네 이름이 제주도였다. 양쪽으로 강이 흐르며 몇 집이 원통시내와 떨어져 있다고 붙은 이름이라니. 처음엔 웃음이 절로 나오더니 어느새 나도 그곳을 제주도라고 불렀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원통은 어디를 가도 맑은 물이 넘치도록 흐르는데 그때는 희한하게도 식수가 부족했다. 그래서 아침부터 우물물을 길어야 했고, 그 물도 고갈돼 살기가 짜증스러웠다. 그러니 빨래야 강에서 해야 했다. 아낙네들은 그 빨래를 제주도 강가에서 했다.

여름에는 그래도 재미가 있었다. 여러 집이 한데 어울려 빨래거리를 한 보따리씩 이고는 제주도로 갔다. 솔단지과 냄비를 준비해 밥도 해먹으며 삶은 빨래를 바위에 널어 말려서 이고 왔다.

그런데 추운 겨울에는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지금의 김광수 장로님의 집 옆 길가에서 더운 물이 솟아나왔다. 그 물에 빨래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빨래를 이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꼭 황천길 같았다.

제주도에서부터 에이스마트까지 길 옆에는 집이 없는 가운데 추수가 끝나 황

량한 눈은 얼어 있었다. 여기에 칠성고개에서 내려치는 골바람이 어찌나 세고 매서운지 손은 뾰뾰 얼었고, 입은 뻣뻣해져 집에 오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아기가 있는 집은 매일 기저귀를 빨아야 했기에 그 고생이 더했다.

언젠가 칠성고개를 내려오며 원통시내를 보다가 크게 변한 모습에 낯선 곳에 온 듯한 생각이 들었다. 수도꼭지만 틀면 더운물도 콧물도 나오는 요즘을 사는 젊은 이들은 우리의 고생을 상상이나 할까. 고생스러웠던 그 시절이 꿈만 같다.

.....

원통 이야기④

'촌놈 생일' 같던 장날

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왁자지껄하고 시끌벅적한 소리가 있는 곳이다. 온갖 장돌뱅이가 모이고 활기가 넘치는, 삶의 애환이 녹아 있는 곳이 시장이다.

옛날의 원통은 다른 것은 다 뒤졌어도 시장만은 꽤 큰 장이 섰기에 볼거리가 참으로 많았다. 많은 구경거리와 먹을거리가 있는 장날은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생일만큼이나 기대가 컸다. 오죽하면 장날을 '촌놈 생일'이라고 했을까. 특히 군인 가족이 많은 이곳의 특성을 살려 10일이 군인봉급 날이면 12일 장은 대목장처럼 더 많은 상인이 몰려들었다.

장날이면 사람들은 차로 한 가득씩 싣고 오는 옷을 마음껏 구경하고 마음에 드는 옷을 샀다. 바리바리 싣고 온 그릇전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기웃거린다. 집에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예쁜 그릇이 보이면 만지작거리는 게 주부의 마음이다. 닭, 강아지, 오리, 고양이 등의 동물들도 장날에는 한데 모여 주위를 힐끔거리며 새 주인을 기다린다. 장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조금이라도 깎지는 사람과

본전에 판다고 능청을 떠는 장사꾼 사이에 벌어지는 입씨름도 정겹다.

그때는 시장 맨 아래쪽에 어시장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장날 하루만은 속초에서 신고 온 싱싱한 생선을 골라 살 수 있었다. 온갖 야채와 과일도 싸게 살 수 있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가 정신없이 바빠 늘 난장판이었다.

돼지를 한 마리씩 잡아 국밥을 만들어 파는 집도 있었다. 어느 장날에 우리 아이와 시장구경을 하다가 늘 보던 돼지 한 마리가 네 발이 묶인 채 멍때는 소리를 내며 잡혀가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 아이는 무슨 일인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나는 아이에게 마땅히 해줄 말이 없어 돼지가 시집을 간다고 엉뚱하게 둘러댔다.

이리저리 기웃거리다보면 발길은 어느새 음식을 파는 곳에 다다른다. 감자부침개, 메밀부침개, 올챙이국수, 묵 등을 파는 좌판에 앉아 뜨거운 감자부침개를 간장에 찍어 먹으면 장구경은 절정이다. 일어날 때는 훌훌 마시면 시원한 올챙이국수도 한 봉지 사서 집으로 돌아온다.

장이 파할 때쯤이면 마지막 떨이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밥을 하다 말고 뛰어나가 반찬거리를 싼값에 한 보따리씩 건져 오곤 했다.

이제는 대형마트에 밀려 정겹던 시장의 모습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마음 아프다.

.....
원통 이야기⑤

산은 '보물창고'

지금도 '인제와 원통'은 산나물과 약재료가 월등히 많이 나는 곳이지만 옛날의 원통 사람들은 거의가 산나물이나 약재료를 캐다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

서 유난히 약초상회가 많고 또 유명해서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 내가 처음 원통에 와서 많이 본 것도 약초상회나 덕덕상회 같은 간판이었다.

이른 새벽이면 배낭이나 큰 마대자루 같은 것을 들고 뽕족한 썩이에 점심보따리를 지고 매일 산으로 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오후가 되면 아침에 산에 갔던 사람들이 무겁도록 등짐을 지고 걸음을 겨우 떼놓는 모습이 보였다. 걸으러 보기에는 별스럽지 않던 그 등짐에는 깊은 산에서 나는 온갖 귀한 산나물과 약재료가 들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등짐에 가득 넣고도 남을 정도로 산나물을 많이 캐면 남은 산나물을 산에서 직접 삶아서 말렸다가 지고 내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늘 후줄근한 옷차림에 까만 얼굴로 기진맥진해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며 마음이 안쓰러웠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건 아닌지, 생계유지는 되는지.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심심치 않게 산삼을 캐어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논과 밭도 사농은 알부자가 많단다. 괜한 걱정이었다.

산에 다니는 사람들은 얽매여 하는 일은 못 한다고 한다. 하루의 삶이 복권을 산 사람처럼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산을 오르고, 비록 그날의 수확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내일을 기대하며 자유로움을 누리며 산다고 한다. 아무리 고달파도 산에만 갔다 오면 돈이 생기는, 밀천 없는 장사를 할 수 있으니 생각해 보면 괜찮은 직업이다. 일부러 산을 타러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들은 돈을 벌며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을 골골마다 누비니 도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일이다.

하지만 때로는 금지구역에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일행과 산에서 합숙을 하다가 추워서 천막 안에서 가스불을 피웠다가 질식사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 세상에 다 좋은 일은 없나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산도 높고 골도 많고 깊은 이곳은 그때의 맑고 시원한 공기도 여전하다. 온난화의 영향으로 올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앞으로 지구가 자꾸 달궂어지면 우리 원통은 지금보다 더 사람들이 찾아오는 고장이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원통에 사는 보람을 더욱 느끼게 될 듯도 하다.

미로 같던 골목길

지금은 사방팔방으로 큰길이 죽죽 뻗어 있고 소방도로도 나 있어 골목길을 쉽게 찾아 볼 수 없지만, 옛날 이곳 원통에는 골목길이 참 많았다.

마땅한 놀이터가 없던 시절이라 아이들에게는 골목이 놀이터다 보니 술래잡기를 하며 미로 같은 길을 다람쥐 같이 빠져 다니며 잘도 놀았다. 그러다 때로는 돌멩이에 걸려 넘어져 이마도 다치고 코피도 터지는 불상사가 났다. 그래도 아이들은 골목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엄마에게 혼이 나도 골목길로 쏜살 같이 달아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골목길 후미진 곳에 혼자 앉아 분을 삭였다. 그래서 골목길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다.

나도 골목길을 참 많이 다녔다. 골목길의 매력은 우선 먼 거리를 질러 갈 수 있어서 좋고, 남이 모르는 길을 혼자 살쭉살쭉 빠져 나가는 재미가 있다. 남들이 시장에 갈 때 나는 집에 있다가 그들보다 먼저 시장에서 돌아다녔다. 올 때도 어느새 돌아와 우리 가게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축지법을 쓰느냐고 물었다(골목길을 이용하는 것도 나의 비법이니까 축지법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축지법을 나보다 잘 이용하는 어린 도둑을 골목길에서 놓친 적이 있다. 가게를 별로 비우는 일이 없는데 짧은 순간에 금고의 돈이 자꾸만 없어졌다. 하루 날을 잡아 숨어서 가게를 주시했다. 초등생 정도에 유약하게 생긴 아이가 간도 크게 가게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파는 카터를 들고 금고 걸고리를 자르려고 했다. 순간 나는 "야, 너 거기 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아이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문을 박차고 쏜살 같이 달아났다. 아이를 잡으려고 남편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분명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아이는 바람처럼 없어졌다.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 골목 끝에 이어져 있는 낮은 지붕을 타고 터미널 쪽으로 빠져 달아간 것이었다. 아이는 그쪽 골목길을 훤히 꿰

뚫고 있었다.

때로는 골목에서 난처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거운 시장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바삐 걸어오는데 마주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비키느라 곤욕스럽다. 가끔은 무서운 일도 있었다. 어느 땐가 급히 시장에 갈 일이 있어 질러가는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앞에서 행색이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지 나병환자였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자 덜컥 겁이 났다. 뒤돌아설까 망설이는데 그 거지가 손을 번쩍 들어 나를 잡으려고 했다. 순간 휙 돌아서서 내 생전 그렇게 빨리 뛰어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 뒤로 한동안 골목길을 다니지 않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골목길에 발을 들여놓는 나를 보며 피식 웃는다. 지금도 나는 큰길보다는 골목길에 새로 난 소방도로를 자주 이용한다.

.....
원통 이야기⑦

추억의 명물식당

〈금강당〉과 〈을지회관〉 하면 얼핏 금은방이나 회의장소 같은 생각이 든다. 이 두 곳은 원통을 대표했던 식당의 이름이다. 두 식당은 쌍벽을 이루듯 옆에 붙어서 장사를 했다. 이름이 다르듯 두 식당은 차림도 달라서 서로 다투거나 시기하는 일도 없이 손님이 항상 만원을 이루는 사이좋은 이웃이었다.

〈금강당〉은 갈비탕, 육개장, 설렁탕 같은 뜨끈한 국물음식과 각종 술안주가 푸짐해서 주로 회식이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했다. 그래서 〈금강당〉에는 담배연기가 자욱하고 각양각색의 민간인과 군인들이 술 마시고 떠들고 잡

담하고 가끔은 술에 취해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싸움까지 벌여졌다. 그래도 우리는 이 식당에 자주 갔다. '그 살벌한 곳에 우리는 왜 자주 외식을 갔던가?' 생각하니 이 집 주인의 후덕한 인심과 사람을 반기는 정에 끌린 듯하다. 또 한 가지는 신발을 벗기 힘든 군인들을 배려해 의자를 놓은 넓은 실내도 한몫을 했다. 가장 끌린 매력은 실내 한쪽에 둔 '석빙고'라고 이름붙인 통이었다. 얼음과자가 귀하던 그대에 <금강당>은 '석빙고'에 얼음과자를 담아 원통에서 제일 처음으로 팔며 단골에게는 공짜로 주기도 했다. 석빙고에 담긴 바나나 모양의 얼음과자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던지 아이도 어른도 외식을 하려면 저절로 발걸음이 그 집으로 향하곤 했다. 지금이야 너무 달다 너무 차다며 얼음과자를 잘 먹지 않으려고 애 쓰지만 그때는 어른들도 달고 시원한 것이 맛있었다. 요즘은 얼음과자 종류가 많지만 그 어떤 것을 먹어보아도 석빙고 속에서 꺼내주는 달고 시원한 얼음과자의 맛을 느껴 볼 수가 없다.

한편, <을지회관>은 산채비빔밥이 전문이었다. 원통의 깊은 산과 골골에서 나오는 산채를 여름이면 보따리에 싸서 창고에 쌓아두고 사계절 내내 푸짐하고 향기로운 산채비빔밥을 담아내었다. 사실 <을지회관>은 이곳 사람들보다도 전국 각지에서 오는 군부대 면회객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풍성한 산나물에 반한 사람들은 이 비빔밥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경상도 쪽에서 온 면회객들이 우리에게 "아지매에 말 좀 문졌심더. 여기 어디라 카던가. 산나물비빔밥 잘하는 데가 있다 카던데 어디라예?"하고 물으면 서슴없이 <을지회관>을 알려주었다. 때로는 전라도 사람도 "아따 참말로 골짜기가 거시기 한 게 장난 아니랑개요. 요런디는 산나물비빔밥이 최곤디 겁나게 맛나는 곳 없당가요?" 하면 곧바로 <을지회관>을 알려준다. 그래서 <을지회관>은 차츰 원통의 대표식당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을지회관>의 명성은 그 집의 젊은 여주인이 싹싹하고 솜씨가 좋았기에 얻은 것이다.

대를 이어 장사를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두 집 모두 기동 같던 주인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장사를 물려받은 뒤에 명맥을 잇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 문을 닫았다. <을지회관>의 젊은 여주인은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서 두 식당은 원통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금 그 자리에는 축협원통지소가 들어서서 날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원통 이야기⑧

판따라 군인극장

지금 원통복지타운이 세워진 자리에 인제군에서는 유일하게 군인극장이 있었다. 극장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큰 행사나 썰기대회 같은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공간이 넓어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도 있었고 스크린 앞쪽에 강당이 마련되어 있어서 주민노래자랑이나 강연회 같은 행사도 자주했다.

나는 신접살림을 극장 옆집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극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극장은 오전에는 항상 조용하고 문도 꼭 닫혀 있지만 오후만 되면 시끄러운 음악소리와 함께 오색등불이 켜지고 만국기도 줄 줄이 달렸다. 상영시간이 가까워 질 때쯤이면 군인판따라대가 극장 문 앞에 나와 나팔을 불며 신나는 연주를 했다. 그러면 꼬마들은 이때다 하고 뛰어나와 귀여운 춤을 추었다. 그때부터 극장은 완전히 변화가로 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 상영을 했다.

각처에서 모여온 신병들은 일렬종대로 줄을 맞추어 선임하사의 구령에 따라 "차렷 열중 쉬어 바로" 하면 잠시 서서 인원점검을 한 뒤 차례로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 극장 안에는 매점과 식당이 있어서 모처럼의 외식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먹고, 이날 하루는 축제의 날이 되어 실컷 즐기게 된다. 극장 안의 매점은 극장관리인의 아내가 운영했다. 항상 독점이다 보니 부르면 값이 고, 서비스는

아예 없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식당은 한 번씩 입찰을 보아 운영권을 넘겼기 때문에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

한 번씩 매점에 손님이 들이 닥치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이웃인 우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는 기꺼이 도와주고 한 번씩 공짜로 영화를 구경하곤 했다. 영화관은 항상 만원이어서 우리는 맨 뒤쪽에 서서 영화를 보았고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누가 볼세라 번개같이 뛰어나와 집에 왔다. 텔레비전이 귀하던 때라 그렇게 몰래 보는 영화가 어찌나 재미있던지! 우리는 상영시간이 중반을 넘어서면 열어놓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영화의 끝 장면을 보고 앞부분을 상상하는 공상을 떨기도 했다. 그때는 이렇게 궁색하게 살아도 불평불만이 없었고 많은 일을 했어도 힘들지 않았다.

겨울이면 극장의 난로에서 장작을 땀다. 군데군데 놓인 난로에 나무를 넣을 때 마다 향긋한 송진 냄새와 함께 불꽃이 타다닥 소리를 내며 불똥이 튀었다. 그래서 극장 마당 한 구석에는 나무가 늘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극장에 배치된 군인들이 통나무를 패느라 날마다 씨름을 했다. 이 군인들은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채 극장이라 편할 거라고 자원해 왔다가 장작을 패니 능률은 오르지 않고 도끼 자루만 부러뜨려 관리관 아저씨에게 자주 욕을 들었다.

극장은 오랫동안 번창을 누렸지만 군인막사 신축공사와 부대 내 텔레비전 공급이 잘 되면서 차츰 운영난에 시달리다가 문을 닫았다. 지금 원통 사람들에게 옛날에 이곳에 군인극장이 있었다고 하면 "원통에 웬 극장"이라고 할 정도로 세월이 흘렀다.

신령님의 포도밭

원통에서 칠성고개로 올라가는 오르막 오른쪽에 선 미진아파트는 원통에서 극동연립 다음으로 지어진 곳이다. 옛날 이곳은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포도밭이었다. 안씨 성을 가진 그 할아버지는 아들딸이 여럿이었지만 다 객지로 나가고 늦게 낳아 꼭 손녀딸 같은 막내딸 하나를 데리고 할머니와 농사를 지었다. 할아버지의 생김새가 흰칠하고 큰데다 얼굴이 약간 길고 머리와 수염이 눈같이 하얗고 늘 하얀 바지와 저고리를 입고 농사를 지어서 사람들은 이 밭을 '신령님의 포도밭'이라고 했다.

그 밭에서 다른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포도묘목을 심자 사람들은 무슨 포도나무냐고 비웃었다. 그 밭은 약간 경사진 곳에 네모반듯하고 양지도 바로고 넓어서 포도밭으로 적합하기는 했다. 할아버지는 자갈이 많은 밭을 손질하고 돌멩이를 추려내고 애기 돌보듯 날마다 밭에 엎드려 사셨다. 봄이 되면 삭아서 부리지는 나무버팀목을 새로 갈았고, 철사를 늘여서 포도넝쿨을 유도했다. 여름이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겉가지와 넝쿨을 손질했다.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나날이었다. 그러자 포도밭은 성경에 나오는, 아합왕이 탐내던 나봇의 포도원처럼 누가 보아도 탐이 날 만큼 멋진 모습이 되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게 되는 원동력은 늦게 낳은 막내딸인 것 같았다. 그 아이의 이름이 '순녀'인지 날마다 큰소리로 "순녀야 물 가지고 오너라. 막걸리 한 되 받아 오너라"하면서 온갖 잔심부름을 시켰고, "우리 순녀 공부시키고 시집보낼 때까지 내가 오래 살아야지"하면서 늘 열심히 일하시는 하얀 할아버지를 우리는 자주 보았다.

포도는 추석이 다가오면 알이 굵어지고 짙은 보랏빛으로 변했다. 이때를 앞뒤로 해서 절정을 이루며 사고파는 것이 끝났다. 우리는 성수기가 지난 뒤에 한 번

씩 포도밭에 가서 끝물포도를 사다 먹었는데 그 맛이 기막혔다. 추석장사를 잘한 할아버지는 인심이 후해져서 우리보고 실컷 따먹고 사가라고 기분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맘껏 따먹고 한 보따리씩 사들면 할아버지는 우리 등 뒤에 대고 "이제 내년이나 또 봅시다"하면서 너털웃음을 웃으셨다.

그러던 할아버지에게 몹쓸 병이 들면서 포도농사도 지지부진하더니 '안씨 할아버지 포도밭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자주 들렸다. 우리는 도시에서나 '필요한 아파트가 뭐 이런 시골구석에' 하면서 별 반응 없이 지냈다. 소문은 '포도밭이 팔리고 할아버지네는 서울로 이사를 간다'로 발전되어 떠돌다가 사실이 되어 아름답던 포도밭은 한순간에 평평한 대지가 되었다. 그 뒤 12층짜리 미진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러자 너도나도 편리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했다. 촌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파트에 살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농사 지러 다니는 이변도 생겼다. 그 뒤에도 원통에서 땅이 평평하고 넓으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지금은 여기저기 아파트 천지가 됐다.

.....
원통 이야기⑩

또순이 아줌마①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상수원으로 일급수를 자랑하는 원통이지만 옛날의 이곳은 상수도시설이 없었다. 먹는 물은 우물물을 사용했고 빨래는 늘 강이나 수로를 이용했다. 그러다보니 후방지역에서 올라온 군인가족들의 불편이 오죽했겠는가?

그래서 생긴 것이 일주일 또는 한 달을 주기로 정하여 빨래를 해주는 '빨래아줌마'가 생겼다. 나도 처음 와서는 '세상에 빨래를 어떻게 남한테 맡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인 것을 알게 됐다. 매월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 덜 쓰고 빨래를 맡기면 그 생활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리고 특별한 별이가 없이 아이들이 조롱조롱한 가난한 사람들은 몸을 움직여서 두세 집씩 빨래를 하면 그 돈으로 생활하고 아이들 용돈도 주고 살았다.

빨래아줌마는 내가 이곳에 와서 처음 본 가장 이상한 직업이었다. 그런데 이 직업을 천직으로 삼고 정말 열심히 사는 또순이 아줌마가 한 사람 있었다. 아이들이 무려 다섯이나 되었고 거기에 남편이란 사람은 돈 한 푼 벌지 않으면서도 만 날 술을 마셔야 되는 사람이었다.

한 번씩 군인가족들이었던 오빠네 집의 빨래를 해오는 또순이 아줌마를 보았다. 생김새도 험하고 체격도 억세서 삶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다른 아줌마들은 힘들어서 몇 집 정도만 빨래를 하는데 이 아줌마는 일거리가 있으면 있는 대로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고 했다. 겉모습 같지 않게 알뜰하고 깔끔해서 속웃은 매일 삶아서 뽀얗게 해왔다. 그리고 그 많은 옷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큰 보자기에 차곡차곡 하나도 빠트림이 없이 잘 개켜서 가져왔다.

어느 날 또순이 아줌마는 무거운 빨래를 이고 강에서 곧바로 오빠네 집으로 왔다. 벌벌 떨면서 방안에 들어와 한참 동안 언 몸을 녹였다. 나는 그 아줌마의 손을 보는 순간 사람이 저렇게 일을 하고도 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손가락이 우리의 손 두 개 합친 것 같이 통통한 게 꼭 무슨 만화에 나오는 이상한 생김새의 손 같았다. 얼었다 녹았다 한 손의 색깔도 정상이 아니었다. 너무 불쌍한 생각에 아줌마의 손을 꼭 잡았다. 터져서 반창고를 붙인 곳이 있었다. "또순이 아줌마, 그렇게 돈 벌어서 어떻게 아저씨 술 사 드릴 수 있나요?" 내 물음에 아줌마는 "글쎄요. 사람이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답니다.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쫓아낼 수도 없고. 내가 거두지 않으면 누가 그 인간을 좋아하겠어요"하면서 술 한 병을 사들고 종종 걸음으로 사라지곤 했다. (계속)

또순이 아줌마②

이곳 원통에는 빨래 아줌마 외에 또 한 명의, 유명한 또순이 아줌마가 있었다. 부산에서 왔다는 그 군인가족 아줌마는 누가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또순이 아줌마"다 하면서 자기를 소개했다. 그 아줌마는 옷 잘 입고, 잘 놀고, 입담 좋고 두리뎛직한 얼굴에 화장 또한 얼마나 잘하고 다니는지, 처음 그 아줌마를 봤을 때 나는 원통에서 저런 멋쟁이도 있는가 싶어 입이 벌어졌다. 어디를 가도 시끌벅적하고 놀고, 먹는데 그 아줌마가 빠지면 재미가 없다고 이곳 저곳 불러 다니며 금방 원통에서 유명인사가 됐다. '날마다 차리고 밖으로만 나다니는 그 아줌마네 집 꼴은 어떨까?' 하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그런데 우연찮게 그 집에 가볼 일이 생겼다.

마당에 들어서서는 순간, 지금까지의 내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깨끗한 마당과 마루가 반짝거렸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는데 나는 확 하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때 당시 나는 그렇게 예쁜 화장대를 본 일이 없었다. 빨간색 자개화장대 위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들. 차곡차곡 개켜놓은 스카프. 방안 살림살이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때 없이 정갈하고 깨끗했다.

우리 오빠와 그 집 아저씨가 한 부대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또순이 아줌마는 나를 시누이처럼 고모라고 불렀다.

"고모, 우리 집에 처음 와 봤지?"

또순이 아줌마는 내 속을 훤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먹고 남는 게 시간인데 왜 더럽게 하고 살겠어. 나는 또순이 짓을 해도 나 자신한테는 최고로 투자하고 살아."

나는 그날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다.

사실 그때 그 또순이 아줌마로 인해 원통 아줌마들에게 큰 혁신이 일어난 것도

사실이다. 한 번씩 부산에 갔다 올 때마다 새로운 유행을 몰고 오는 아줌마에게 사람들은 한두 가지 물건을 부탁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차츰 아줌마는 보따리장수로 변신해 스카프, 옷, 소소한 여성용품, 화장품 등 온갖 물건을 부산에서 구입해와 원통의 시골 새댁들에게 불티나게 팔았다.

우리는 또순이 아줌마를 통해 조금씩 멋도 내게 되었다. 아줌마는 누가 잔치집이나 친정에 가는데 옷이 마땅치 않다면 옷에서부터 스카프와 구두까지 코디를 해주었다. 심지어는 자기 것까지 동원해서 멋쟁이로 만들어 주었다. 뒤돌아보면 정말 옷을 나는 세월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온 이곳 원통은 이제 패션이 첨단을 달리게 되었으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나보다.

.....

원통 이야기⑫

눈은 해마다 풍년이야

이곳 원통은 옛날부터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다. 내가 원통에 처음 왔을 때도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한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아랫녘 부산이나 대구 쪽에서는 쌓인 눈을 볼 수가 없었다. 가끔 눈이 내린다 해도 금방 녹아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얗게 쌓인 눈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들떴다.

장독대에 소복이 쌓인 눈도 아름다웠다. 더더구나 큰 나무에 솜꽃이 피듯 아름다운 설경은 우리를 무아지경에 이르게 했고 잠시도 우리를 방안에 가두어 두지 않았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무작정 흰 눈길을 마냥 걷다가 집에 돌아오면 발은 시리다 못해 얼은 것 같고 손도 발갛게 얼었다가 녹으면 얼마나 가려운지... 그 래도 나는 아랑곳 하지 않고 틈만 나면 아무도 걷지 않은 하얀 길에 예쁜 발자국

을 내며 한없이 걷곤 했다.

나 말고도 군인가족인 언니네 집에 놀러 온 부산아가씨는 하루 밤새 함박눈이 하염없이 쏟아져서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하고 발목이 푹푹 빠지도록 내린 눈을 보고 "엄마야! 세상에 내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세상은 처음 봤다. 하루 밤새 세상이 이렇게 변할 수도 있습니까. 내 미치겠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에 우리는 한바탕 웃음보를 터뜨리며 같이 즐 거워 했다.

그아가씨는 주인집 총각을 따라 집 앞의 눈을 쓸고 또 쓸었다. 눈을 무척 좋아하는 부산아가씨 매력에 푹 빠진 강원도총각도 덩달아 신이 나서 칠성고개 쪽으로 눈을 쓸며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더니 결국 둘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서로 많이 좋아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부산에 내려간 아가씨가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오도록 강원도에 오지 않았다. 총각집이 넉넉하지 않고 날씨도 너무 추워서 이곳에 살 생각이 없었을까? 아니면 주위의 반대가 많았을까?

결국 총각도 다른 곳으로 장가를 갔다. 그래도 가끔씩 부산아가씨 소식을 물어 보는 것을 보면 아마도 첫사랑이었던가 보다.

또 강원도의 눈은 좀처럼 녹지를 않는다. 녹는 듯 하다가 또 얼어붙고 나중엔 반들반들한 씨눈이 되어 길 곳곳에서 복병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나도 우리교회 언덕길에서 위험천만한 일을 한 번 당했다. 눈이 녹아 얼어붙어 반들반들한 길 위에 흙먼지가 살짝 덮여 아무 의심도 없이 발을 내디딘 순간 보기 좋게 넘어졌다. 그 순간, 위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왔다. 내 뺨쪽한 구두 뒤꿈치가 차바퀴에 닿는 것 같아 간담이 서늘했다.

그 뒤부터 나는 눈이 내렸을 때보다 녹을 때를 더 조심한다. 이곳 원통에 살려면 추위조심, 눈조심, 얼음조심을 각별히 하면서 지내는 것이 몸에 좋다.

수제가구점 총각네 ①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길옆 써유마트가 있는 그곳에는 옛날에 가구점이 있었다. 제일가구점이라는 간판이 붙은 그곳은 직접 손으로 짜서 가구를 만드는 수제 맞춤형 가구점이었다. 혼인식이 몰리는 가을철에는 일손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고 일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일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긴 총각 한 사람이 있었다.

일을 배우는 중인지 기술자인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씩 시집 가는 새색시가 가져갈 가구가 완성되어 구경을 가보면 그 총각은 신이 나서 장롱 설명을 했다. 너무 예쁜 자개장농에 차단스, 화장대, 문갑까지 한 세트 가구가 방안 구도를 따라 예쁘게 진열된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람 손으로 저렇게 예쁜 가구를 만들다니', 기술이 좋다고 칭찬하며 놀라운 감탄을 절로 했다.

그런데 잘 되던 사업이 약간 내리막길이었을 때 가구점을 처남에게 물려주었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갑자기 그 총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사이에 총각은 장가를 가서 예쁜 색시를 데리고 왔다. 색시는 키가 컸고, 싹싹해 보였다. 내가 기뻐던 것은 그 새댁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었다. 나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 얼마나 기쁘고 신나던지 금방 가까운 이웃사촌이 되어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며 많은 정을 쌓았다.

그 집사님은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썼다. 바닷가 쪽이 친정이었는지 계장을 참으로 맛나게 잘 담았다. 한두 번 얻어 먹어보고 그 맛이 어찌나 기막힌지 나도 몇 번 따라해 보고 배우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맛이 비슷하지만 할뿐 그 집사님의 계장이 내는, 감칠맛이 나며 입맛을 사로잡는 맛을 내지는 못했다.

내가 한 번씩 특별한 비법이 있으면 숨기지 말고 가르쳐 달라고 하면 "특별한 것은 없슈, 그냥 계를 척척 갈라놓고 양념간장을 끼었었다가 하루만 지나고 먹으

면 돼유"하면서 별 것 없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계장 담그는 법을 배우느라 장
날마다 계를 사 날랐다.

그 집사님이 아이 둘을 낳아 키우던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느닷없이 아이 머리를
쓱쓱 잘라서 나중엔 그 길이를 맞추지 못하고 바가지 썩은 것처럼 이상한 머리를
만들어 아이가 내 머리를 붙여 놓으라고 악을 쓰며 우는 소동이 나기도 했다.

또 어느 날은 큰 아이 범선이 학교에 숙제를 해가야 한다고 해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무리 가르쳐도 학교 다니는 아이는 모르고 뒤에 앉아 놀던 동생은 물으면 척척
답을 한다고 세상에 나 살다가 별일을 다봐유. 글씨 가르치는 놈은 모르고
아직 학교에 안 간 동생은 척척 대답을 하니 나도 모르게 '너는 학교 다니지
말라'고 뺨을 때렸다면 하소연 하던 일. 우리는 그렇게 젊은 시절을 원통에서 보냈다.
(계속-)

.....
원통 이야기⑭

수제가구점 총각네②

우리 아이들과 범선이 엄마 김향숙 집사는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 다니던 어느
해 뒷강으로 봄소풍을 따라갔다. 범선이네는 김밥을 싸고 나는 찰밥을 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데, 공교롭게도 두 집 다 물을 깜박 잊고 그냥 왔다. 아이들이 체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다가 내가 아는 집에 가서 물을 한 주전자 얻어오니 아이들은 그
새 번개같이 김밥을 다 먹어 치우고 각자 흩어졌다.

나는 물을 못 챙겨 간 것이 죄스러워서 아이들을 찾아 물을 먹으라고 권하니 하
나 같이 물을 다 먹었다. 어디서 물을 먹었느냐고 물으니 저쪽에 맑은 물이 흐

르는 곳이 있다고 했다. 내가 의아해서 찾아가 보니 세상에! 작은 물고를 따라 아
랫논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통로에 보기에겐 맑고 깨끗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던 것이다. 그 위의 논을 보니 앞으로
모를 심기 위해 거름도 군데군데 퍼 놓았고 아마 소똥도 있었으리라. 나는 기가
막혀서 왜 아무 물이나 먹었느냐고 야단을 치니 아이들은 물이 깨끗하고 물맛이
좋더라. 그 순간 나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거름물을 손으로 떠서 꿀꺽 마셨
다. 아이들만 배탈을 낼 수는 없지 않은가.

내가 그 이야기를 김향숙 집사에게 했더니 금방 눈이 둥그레지며 "뉘유! 알면
서 거름물을 마셔유. 나 참 별꼴을 다보고 사네유"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다. 아이
들은 모두 그날 하루를 즐겁게 놀다 와서인지 다들 무탈하였다.

가을운동회 때도 우리는 이웃사촌으로서의 협동심을 십분 발휘하는데 가끔은
서로 편이 갈라져 각각 신나게 응원을 하다보면 "아이 참 옆 좀 돌아보고 응원해
유" 하면서 내 팔을 흔드는 사람은 김향숙 집사다. 그래도 마지막 계주가 벌어지
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벌떡 일어서서 목청껏 팔을 흔들며 힘찬 응원을 보냈
다. 그렇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범선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가구점 주인이 춘천으로 이사를 가면서 집을
팔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그 집을 사면서 범선이네는 이사를 갔다. 어디로 갔는
지 그 뒤의 소식은 알아볼 수 없었고 물어 볼 곳도 없었다. 그 사이 우리는 가구
점을 포함한 넓은 집을 한데 모아 큰 집을 지었다. 옛날 가구점 자리에는 씨유마
트가 들어왔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우리 철물점으로 건장한 젊은 청년이 찾아왔다. 혹시 이
옆에서 가구점을 하던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알고말고, 그 집 소식을 몰라 궁
금하다고 했더니, 자기가 바로 범선이란다. 세상에, 어릴 때 엄마가 깎아준 바가
지 머리에 만날 웃고 다니던 그 범선이. 얼굴이 까맣고 반들반들하며 눈만 반짝
이던 바로 그 범선이.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키가 크고 자기 아버지를 닮았는
지 얼굴도 흰했다. 냉커피를 대접하며 찬찬히 보니 어릴 때 모습이 약간은 겹쳐

보이기도 했다. 나는 속사포를 쏘듯이 궁금한 소식을 끝없이 물었다. 김향숙 집사는 안산에 살며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운영하고, 권사가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받았다.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살아 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고가다 서로 만날 수 있는데 한 번 돌아가신 분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또 미안하다는 말, 잘못했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 어떤 말도 전할 수 없음이 나는 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됴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
원통 이야기⑯

눈아 눈아, 그만 내리그라 마!

이곳 강원 북부 지방의 한 겨울은 춥고 길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엔 불편한 곳이라고 어떤 분이 말했다. 그렇다. 나도 처음 이곳에서 살면서 '겨울이 왜 이리 길고, 춥기는 왜 또 이리 춥고,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내리나?' 하면서 불평하며 살았다.

처녀 때는 그렇게 좋기만 하고 환상이던 눈이 지겹도록 내리는 통에 이제 눈 좀 그만 왔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한계령도 미시령도 뚫리지 않았기 때문에 속초에 가려면 진부령으로 그것도 단일로라 이쪽과 저쪽으로 번갈아 가며 통제하는 길을 둘러서 가야하는 불편함에 속초에 가기가 겁났다. 또 영동과 영서의 구별이 계절에 따라 어찌나 확연한지 이곳 영서지방에 겨울 채비를 끝내고 영동으로 넘어가면 그곳엔 아직도 채소가 과량고 고추대가 그대로 서 있곤 했다. 나는 시집이 동해이다 보니 시댁어른들이 계셔서 자주는 못가

도 명절에는 꼭 가야하는 형편이었다. 그때면 아이들까지 데리고 큰 여행을 하는 셈이었다.

어느 해 구정에 우리는 큰택에 명절을 새러 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큰 눈으로 인해 모진 고생을 한 적이 있다. 그때는 눈이 시작되면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교통이 두절되어 오랫동안 발이 묶인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를 서둘렀다.

속초에서 차를 바꾸어 타고 진부령으로 돌아오는데 눈은 앞이 보이지 않게 계속 내렸다. 진부령 군인초소에 도착했을 때는 통제가 되고 있었다. 그래도 차에 탄, 귀대를 해야 하는 군인들과 우리가 합세해 빨리 가보자고 우겼다. 운전수도 자신이 있었는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데 정상 막바지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눈이 쌓여 있었다. 눈에 치인 버스는 쌓인 눈을 헤치고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없는 위급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군인들이 차를 밀어보고 눈을 치워도 보았지만 차는 오히려 방향감각을 잃고 밑으로 슬슬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 순간 나는 수천 길 낭떠러지가 떠올랐다. 온 신경이 위기감으로 오싹했다. '차가 옆으로 기우뚱 하면 창문을 깨고 밖으로 뛰어내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 입에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금 죽으면 저 천국 못갑니다"라는 말이 튀어나왔다. 내 어린것들이 불쌍한 생각도 들었을 텐데 왜 그렇게만 기도가 나오는지. 사람이 위급하면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본능을 그때 느꼈다.

한참 만에 차가 겨우 멈추어 섰을 때 군인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들쳐 업고 정상까지 앞서서 올라갔다. 나는 그 길이 수천 리 수만 리나 되는 것 같았다. 온 몸이 얼어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군인초소에서 뜨거운 물을 먹고 불을 쬐면서 몸이 풀리고 긴장도 풀렸다. 그리고 군부대에서 배려한 군인차를 타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

폭설이 내리면, 가끔 그때가 생각나 하염없이 내리는 눈을 곱지 않게 보게 된다.

격월간

네셜악문화

문화칼럼

이 시대가 부르는 문화원

오정진 시인 · 전 인제문화원 원장

대륙과 해양 두 세력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린 우리민족이 꾀꾀하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향기 높은 '문화의 힘'이다.

여진이 세운 청나라가 '중원문화'에 흡수되어 멸망한 것을 보면 문화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김구 선생께서도 "오직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라고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이러한 시각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문화원의 역할이 더욱 막중함을 깨닫게 된다. 잘살고 못사는 것이 지역주민의 책임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문화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문화원은 주민이 행복한 삶을 살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문화원은 먼저 강과 산에 기대어 살아온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를 깊고 넓게 연구하고 발굴해야 한다. 아직도 묻혀 있는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가 발굴되어 알려지면 그것이 곧 군민의 자긍심으로 연결된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고장으로 바꾸면 치열한 경쟁시대를 사는 도시인이 찾아와 긴장된 몸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고 쉬어가는 휴식처도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문화원은 이름뿐인 <향토사연구소>를 확대개편하고, 군은 과감하게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이 시대가 부르는 문화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믿는다.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문화의 힘을 높여야 한다.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으면 그 다음에는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문화인과 도전정신



최광윤 소설가

우리는 지금 ‘문화’의 홍수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안방문화, 주방문화, 청바지문화, 자동차문화 등등 어떤 생활의 영역이건 ‘문화’라는 말만 매달아주면 그 삶은 더 매끈하게 미화되어 대중 앞으로 한 발짝 다가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래 ‘문화’에 해당하는 영어 ‘culture’는 단지 ‘밭갈이’를 이르는 말이었으나 20세기에 와서 ‘크랙혼(미국 인류학자)은 “사람의 내면적, 외면적 생활양식이 문화(1952, 『문화의 성질』)”라고 정의함으로써 문화와 ‘삶의 방식’을 거의 동일시 하였다.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 생성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전시대에 찬란했던 문화가 이 시대에 와서는 외면 받을 수 있다. 문화의 가치가 사람들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다고 보면, 이전시대에 환영받던 삶의 방식들 중에 어떤 방식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상을 무시하는 낡은 삶의 방식이 되기 쉽다. 그런 이유로 한 시대의 문화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다음시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조선의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시고 문학, 음악,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아름다운 미래지향적인 문화를 남겨 놓으셨기에 조선 5백년을 마감하고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영원불멸의 반석에 올려놓을 당찬 기상을 품게 되지 않았던가!

생각해보면 우리 ‘인제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문화를 생성하는 주체이기에 건실한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남다른 각오로 삶을 영위하면서 올바르게 향기 나는 삶의 방식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럼, 훌륭한 ‘삶의 방식’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바람직한 삶을 향한 ‘도전정신’ 속에서 만들어진다. 도전정신이야말로 가정이건 사회이건 간에 사람의 생존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정신적인 지주이다. 지구촌은 이제 무한 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어떤 민족이 융성하는 건 전적으로 그 민족의 문화의 힘 즉 도전정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인제사람들도 이 점을 마음에 새겨 힘찬 도전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고, 이에 인제 문화원이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젊은이를 키우는 문화를 만들자



방효정 원로회 회장

이제 나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나이가 되었다. 살면서 무언가 썩 듯 했는데 손을 보면 모두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

으로 가는 게 인생이라지만 열심히 살아온 보람은 남기고 싶다.

우리 세대나 우리보다 앞선 세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정신없이 지나느라 다음세대를 키워줄 생각을 하지 못했다. 생존에 급급하다보니 누구를 키운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죽거나 이 나이가 되었다.

한 시대를 담당했던 사람들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 이 땅을 이어받은 다음세대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수많은 문제를 서로의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얻은 지혜와 겪은 실패를 말해주고, 일을 맡기고, 역량을 키워주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다.

'최고의 농사는 사람농사'라는 말이 있다. 건물을 세우고, 무슨 사업을 하는 일보다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 건물과 사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없다면 그것들은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인재를 키우면 그들은 필요에 따라 건물도 세우고 사업도 하게 된다. 지역의 현안인 시군통합반대, 내설악 케이블카설치, 마의대자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젊은 인재는 꼭 필요하다. 하늘내린 '인재' 에 더해 하늘내린 '인재' 를 키운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다.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자.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고, 기회를 주고, 양보를 하자.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때로는 꾸중도 하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가진 뭔가를 뺏기는 것 같겠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을 얻는 길이다. 이 나이가 되니 '섬김을 받으려면 먼저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 듯도 하다.

비석거리를 만들자

최병헌 향토사연구소 소장

필자가 향토사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조선조에 인제현감을 지냈다는 조기순(趙箕淳)현감과 김태진(金泰鎭)현감 후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었는데, 몇 개월 전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전화를 또 받았다. 반남(潘南)박씨 후손이라고 밝히며, 선조님 여려분이 인제현감으로 다녀가셨다면 그분들의 유적을 찾아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런 일이라면 군청이나 문화원에 알아보시지 그랬느냐고 하였더니, 내게 알아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더라는 것이었다.

우리 군의 경우 1840년에 간행된 『인제읍지(麟蹄邑誌)』에 수록된 <읍선생안(邑先生案)>을 보면 1549~1897년 사이에 인제를 거쳐 간 현감(縣監)과 군수(郡守)는 무려 160여명에 이른다. 그 중에서도 선정을 베풀어 주민들의 손에 의해 선정비(善政碑)가 세워진 인물은 이세억(李世億), 김창국(金昌國), 이수(李洙), 이우신(李雨臣), 한배후(韓配厚), 박종복(朴宗福), 이중우(李鍾祐), 어재완(魚在腕), 홍은섭(洪殷燮), 정순영(鄭淳榮), 조기순(趙箕淳), 남희중(南羲重), 김현초(金顯初), 이인회(李仁會), 박종영(朴宗永), 신석완(申錫完), 정숙조(鄭翹朝), 황의룡(黃義龍)으로 18명에 불과하다. 비록 문화재로 등록하여 관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상들의 얼이 깃들어 있고, 권선(勸善)의 상징으로, 훌륭한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부주의와 무관심속에 사라지고 없다. 후손들의 원망과 질책이 부끄러울 분이다. 따라서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선(善)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사라진 선정비(善政碑)를 다시 세워 그들의 공을 기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무(慰撫)하며,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자료로 활용은 물론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

철딱서니 사총사

나영희 원통서울약국 약사
(설악산배움터) 운영위원장



“약사님! 우리 속초가요. 네?” 사총사가 약국에 나타났다. “뭘할 건데?” “응… 바다 보러 가요.” 고등생인 소현이, 정화, 주현이, 채림이는 약 하나 사러 와도 우르르 몰려다니기에 나는 사총사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이들의 성화에 우리는 가끔 속초에 가서 먹거리를 산 뒤에 바다구경을 했다. 파도와 장난치며 모래사장에서 뛰노는 모습은 영락없이 어린아이들 같다. 시간이 되어 영화라도 보게 되면 최고로 신나는 날이다. 이곳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라 이곳을 벗어나고 싶은가보다.

돌아오는 차안은 마치 합창단연습실 같다. ‘사총사 시스터즈’라고 할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춘다. 나도 덩달아 흥이 난다. “약사님! 오래 오래 사세요. 우리가 나중에 돈 벌면 여행시켜 드릴게요.” “그래? 어디로 여행을 갈까?” 천방지축 같더니 이런 속 깊은 마음이 있었구나! 사랑스런 아이들.

내가 아이들과 어울리는 건 호기심과 반항심이 많은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에게 조그만 탈출구를 만들어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연장이나 미술관을 함께 구경하며 끼꺼이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때로 관심이 없는 예술전이라도 관람경험이 추억으로 남으리라 생각하였다. 작은 산촌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지만 나는 이 아이들이 큰 꿈을 품으면 좋겠다. 눈과 귀를 크게 열고 마음도 바다처럼 크길 바란다.

머잖아 이들은 공부하러 취직하러 또는 결혼하여 이곳을 떠나기도 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자신들의 고향에 얼마나 아름다운 산과 계곡이 있는지 알게 되리라. 계절 따라 펼쳐지는 설악산의 아름다운 자태를 기억하길 바란다.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고, 맑은 공기를 흠뻑 들며 마시며 엄마의 품 같은 고향에서 이들의 꿈이 알알이 영글기 바란다.

아이들은 요즈음 내면이 제법 자랐는지 “뭐 사줄까?” 라고 물으면 “아니예요. 괜찮아요” 라며 사양할 줄도 안다. 철딱서니 없이 사달라고 할 때가 오히려 그립다. 여행시켜 주겠다던 약속은 잊지 않았겠지?

나이 듦에 대하여



박돈녀 수필가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이 서글퍼 보인다.
한해의 갈무리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인가, 거리엔 분주한 일상이 흐르고 있다.
또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또 한 살이 늘어나는 나이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세월의 난간에 기대여 차 한 잔에 마음을 녹이며 돌아본 자화상이다.

언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간 건지 부인할 수 없는 늙음이 다가오고 있다. 궁핍의 협곡을 지나 흘러온 여정, 이제 아름답게 늙고 싶다. 그런데 이건 뭔가?

선거 때마다 겪는 일이다. 여론조사가 한창일 때 전화가 걸려온다. 전화를 받으면 “선생님이 여성이면 1번 남성이면 2번을 눌러주세요. 선생님의 나이가 20대면 1번 30대면 3번 50대면 5번 60대면 6번을 눌러주세요”한다. 6번을 눌렀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대상이 아니십니다”하고 매정하게 끊는다.

누구를 놀리는 건지, 늙기도 서러운데. 온종일 마음이 씩씩하다.

보험도 들어주지 않는 나이, 반겨주는 이도 별로 없는 나이. 어디서도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꿈과 희망이 없는 삶이 노년인가. 점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길바닥에서 구르는 낙엽이 된 기분이다. 이럴 바엔 60대와 70대를 질문문항에 넣지 않으면 될 일인데. 비록 나이 들어 할 일은 없어도 돌아보면 억새풀처럼 평생을 등 굽은 허리로 빈들을 지켜온 나이 아닌가?

알곡 다 내어준 벼짚으로 선 어머니와 아버지를 생각할 때다. 붙잡았던 시간의 등을 다독이며 쓸쓸하지 않게 보낸다.

제2장



기고문

Inje Culture

백제의 꿈, 부여를 다니면서

(2012 부여여행수기 응모작)

최 광운(崔光潤)

인제고등학교 영어교사 퇴임

인제문인협회 회원

소설 <금빛녘새> 발간



직장을 퇴직하고 한 조각 텃밭 가꾸는 일에 겨우 익숙해질 무렵, 예상치 않게 집사람의 무기력증이 재발하여 치료할 방법을 찾다가 머릿속에 부녀여행을 떠올렸다.

아내는 물론 나도 평소 '부녀'를 몹시 가보고 싶어 했다. 부소산과 백마강에 깃든 애절한 백제의 한(恨)을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함이었다. 우리부부의 부녀여행 계획이 구체화 되던 어느 날 저녁, 전라도 광주에 사는 막내딸이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전화를 했다. 부녀와 광주는 그리 멀지 않음으로 먼저 광주로 와서 외손녀 재롱을 즐기면서 며칠 쉬다가 부녀로 가면 된다는 거였다. 그렇지 않아도 외손녀라면 껌뻑 죽는 아내는 내 의사는 들어볼 겨를도 없이 즉시 그 말에 동의해 버렸다.

2012년 6월 3일, 마침내 우리부부는 인제에서 남행 버스에 몸을 싣고 다섯 시간이 걸려 광주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외손녀의 재롱에 취해 밤이 세 번 바뀌고 6월 6일 아침을 맞아 딸네 가족과 작별했다. 이제 목적지는 부녀, 하지만 부녀는 커녕 공주로 가는 노선도 광주버스터미널에선 찾아 볼 수 없었다. 대한민국 하늘 아래, 더구나 광주와 같은 큰 도시에서, 유명 관광지로는 가는 노선이 없음은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대전에 가면 공주로 가는 차가 있고 공주만 가면 부녀로 갈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을 믿고 무작정 10시발 대전행버스에 올랐다.

정오가 지난 시각에 대전에 도착해서 버스시간표를 쳐다보는 순간 내 예감이 적중했음을 알았다. 배차표에는 공주행이 거의 시간대별로 줄줄이 올라 있었다. 우리부부는 광주에서 딸아이가 건네준 김밥을 터미널 소파에 앉아 먹은 후, 껌까지 씹는 여유를 보이며 공주행버스의 출입문 바로 뒷좌석에 자리를 틀게 되었다. 의외로 버스는 승객도 많지 않은데다 좌석이 꽤나 넓어 오늘 내가 광주에서 타고 온 대전행버스와는 비교가 됐다. 버스가 한 시간 반이나 달려 공주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작고 초라한 터미널이 답답하긴 했지만 그저 한 시간 남짓 참으면 부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마냥 부풀어 있었다. 오후 3시쯤, 부녀행버스가 머리를 디밀었다. 그리고 그 버스는 한 시간 죽히 남쪽으로 길을 달려 부녀읍에 닿았다.

정한 숙소는 ‘명성모텔’, 하룻밤 보내기에 손색이 없는 2인 1실의 숙박비가 3만 5천원, 운이 좋았다. 객실에 가방을 놓고 가벼운 차림으로 부소산성을 찾아 가던 거리에서 비마(飛馬)를 탄 ‘계백장군’ 을 만났다. 사직의 운명을 건 황산 별결전에서, 가족의 목숨을 앗아 다진 충심에 의지하여 겨우 5천의 결사대로 5만의 신라군을 맞아 싸우다가 패함으로써 자결로 장렬하게 생을 마친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 계백, 그 분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이름처럼 소나무가 많은 산, ‘부소산’ 기슭에 도착한 때는 오후 4시 30분이 좀 지난 시각이었다. 소나무 사이로 기어오른 길을 따라, 삼삼오오 하산하는 관광객들 사이를 비집으며 우리부부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를 올라 가자 인적이 하나 둘 끊어지면서 길이 오른 쪽으로 놓더니 ‘사자루’ 누각이 목을 길게 뽑아 우리부부를 맞이했다.

우리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각에 올랐다. 한 눈에 부여땅의 사방팔방이 모두 내 눈 속으로 들어왔다. 옛날 임금님이 만조백관(滿朝百官)을 거느리고 달구경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 우리내외가 서있다니 가슴 벅찼다. 누각을 내려와서 아내와 사진을 한 장 남기고는 한 점 선들 바람을 앞세워 바위 길을 내려섰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고대하고 고대했던 ‘백화정’ 정자가 육각형의 다리를 바위 뿌리에 묻고 비껴 내리는 길을 막았다. 두렵고 슬픈 심정으로 정자에 올랐다. 그때 갈피갈피 기왓장 밑에 숨어있던 궁녀들의 울음소리가 하나 둘 기왓장들을 밀고 나와 귓전을 맴돌았다. 정자 난간을 붙잡고 아래를 살펴보았다. 이어진 바위 길이 문득 끊어지며 백제의 여인들이 치욕보다는 죽음을 택해 치마폭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어졌다는 ‘낙화암’ 천길 절벽이 ‘백마강’ 푸른 물결 아래로 내려박혔다. 그때 춘원 이광수님의 시 한 수가 한숨 속에 서렸다.

“사자수 내린 물에 석양이 빗길 제, 버들꽃 날리는데 낙화암이란다.

모르는 아이들은 피리만 불건만, 맘 있는 나그네의 창자를 끊노라.

낙화암 낙화암 왜 말이 없느냐.”

세상의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3천명이나 되는 많은 여인들이 일시에 죽음으로 일편단심(一片丹心)을 보여준 사례가 있었겠는가! 눈앞 바위절벽에 새겨놓

은 꿏물의 전설이 내 눈자위를 붉게 물들였다.

다시 비틀거리는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서니 ‘고란사(阜蘭寺)’ 절이 6월의 낙조를 얹게 칠한 채, 애수의 숨결을 고르고 있었다. 스님의 염불소리는 벌써 고독한 침묵 안으로 찾아들고, 절벽 고란샘물가에는 웬 노인 내외만이 중얼중얼 물을 떠 마시고 계셨다. 임금님께 올리는 어수(御水)에 늘 띄워져 있었다던 절벽의 고란초는 어두운 산그림자에 묻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부부도 이 샘물로 갈증을 달래고는 한 청년에게 카메라 셔터를 부탁했다.

고란사에서 토닥토닥 물가로 내려서자 어느새 백마강유람선의 객실은 텅 비어 있고 미처 모자도 벗지 못한 선장이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갑판에 홀로 서 있었다. 내가 아내에게 약속했던 선상관광은 할 수 없이 후일로 미루고 겸연쩍게 ‘꿈꾸는 백마강’ 노래나 흥얼거렸다.

그림자 얼룩진 석양을 밟으며 부소산을 하산했을 때는 참았던 저녁 허기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웬일인지 부여의 토속음식이 먹고 싶었다. 여기저기, 이사람 저사람 물어 물어 마침내 조그만 보리밥집을 발견했는데 재미있게도 그 상호가 ‘추억속의 보리밥집’ 이었다.

밥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안내된 식탁에 앉기가 무섭게 떡 벌어진 밥상이 올라왔다. 각종 나물무침, 김치찌개, 장아찌, 계장, 풋고추에 된장, 그리고 삶은 계란에다 없는 반찬이 없었다. 게다가 예쁜 베트남 새택이 어찌나 친절하게 시중을 잘 드는지! 우리 부부는 마과람에 게 눈 감추듯 밥 한 그릇씩을 뚝딱했다. 계산대에서 식대(食代)를 물으니 겨우 1인분에 6천원, 잘못 들었나 해서 다시 한 번 물어어도 역시 6천원이었다. 아마도 보리밥값 속에는 부여의 자긍심이 상당부분 들어있는 듯 했다.

다음날 아침 모텔 2호실에서 눈을 뜨니 8시였다. 머리를 가다듬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연못, 무왕의 ‘궁남지’ 연못을 찾아 나섰다. 걸어서 갈까하다가 아내의 무릎관절을 아끼는 마음으로 택시를 잡았다. 부여가 고향이라는 택시기가 사가 정중히 건네준 명암에는 ‘개인모범택시 충남 59마 1037호, 기사 장재복’ 이라고 또박또박 쓰여 있었다.



연못은 시력이 모자랄 만큼 거대했다. 골짜기도 아닌 평지였다 순전히 사람의 힘만으로 이런 큰 연못을 꾸며놓은 우리 조상 백제사람들의 인내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대궐의 남쪽 연못 궁남지는 바로 여기건만 연못 북쪽에 있다던 대궐 ‘사비궁’은 흔적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는가? 연못 둘레길을 산책하던 무심한 여인들은 아침밥이 걱정인지 종종걸음을 치고 날렵한 물새 한 마리만 버드나무에서 울고 있었다. 우리부부가 손을 잡고 못 한가운데로 내달린 나무다리를 건너 작은 섬에 이르자 ‘포룡정(抱龍亭)’이라는 현관을 하늘 높이 매단 정자가 위풍당당했다. 안내책자를 안 봐도, 임금님들이 바쁜 정사를 잠시 미루고 이곳에서 음주가무(飲酒歌舞)로 마음을 달래던 곳이 아니던가! 그 현관 밑에 임금님 주연(酒宴)에 초대된 옛 귀족처럼 나를 세우고 아내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오전 10시 30분, 장재복씨의 택시를 다시 불러 타고 동북쪽 ‘농산리 고분군’에 도착했다. 좀 외진 곳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편이었다. 먼저 고분군 전면 오른쪽에 있는 ‘유적 모형전시관’을 찾았다. 벽에는 무덤 안 벽화들이 원래의 색으로 정교하게 재현되었고, 몇몇 장신구를 비롯하여 시신을 누웠던 관(棺)의 도금

한 못과 장식품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이것들은 도굴된 다음에 겨우 수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여자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기운이 쭉 빠졌다.

모형전시관 내부를 돌아 출입구로 나왔을 제, 그 담당 여자 해설사는 우리부부에게 친절하게도 커피를 권했다. 커피를 나눈 대화중에 우리부부가 강원도 ‘인제’에서 왔다고 하자, 공교롭게도 그분의 이름이 인제 군수님과 동명이인(同名異人)인 ‘이순선’ 이기에 지인들이 ‘이 군수님’으로 호칭하며 농을 한단다. 더욱이 그분이 인제의 ‘백담사’도 가보고 ‘한계령’도 넘었다면서 인제의 고산(高山)문화를 추켜세우심에 정말 그분과 우리부부는 서로 친구가 된 듯싶었다. 그분도 그렇게 느꼈는지 자청하여 전시관 입구를 배경으로 우리부부의 사진 한 장을 정성껏 찍어 주셨다.





능산리 고분들은 경주의 ‘천마총’ 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소박한 탓에 오히려 짙은 호감이 갔다. 고분은 모두 일곱 기였는데 ‘성왕’을 위시하여 여섯 분이 이 고분에 묻힌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여섯 왕을 제외한 한 기의 무덤은 누구의 능일까? 혹 의자왕의 가묘(假墓)를 만들었던 건 아닐까? 어느 왕의 세자가 옥좌에 오르기 전에 돌아가셔서 모신 무덤일까? 아니면 임금님에 견줄만한 엄청난 세력을 가진 분이 막무가내로 이 무덤들을 밀치고 들어오신 건 아닐까? 아직은 그 단서가 발견된 게 없다니까 궁금하기 그지없다. 나는 여기 무덤들 중에 가운데 무덤이 제일 크고 다른 무덤들이 마치 그 무덤을 호위하고 있는 형상인 점으로 보아 그 능이 이곳 부여로 도읍을 옮긴 명군 성왕이 묻힌 곳이 아닐까하는 상상을 하며 그 묘지에 대고 절을 올렸다.

고분들을 한 바퀴 돌아 서쪽으로 내려서니 능선 양쪽에 당나라로 끌려갔던 ‘의자왕’과 셋째아들 ‘융’의 묘지가 뗏장 사이로 붉은 진흙을 내 보이며 쓸쓸히 누워 있었다. 의자왕의 한 순간의 부귀와 영화가 지울 수 없는 회한을 남긴 채, 역사의 모퉁이로 사라져 간지 1,500년을 헤아리는 세월의 언덕에 이제 왕 자신

과 왕자, 두 분의 영혼만이 시신을 잃고 이곳에 오심은 이분들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자는 후손들의 안타까운 소망이겠지. 우리내외도 목례를 올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그 능선을 내려서니 꽤 넓은 토지에 불도저들이 터 다지기공사를 하고 있었다.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웠던 가칭 ‘능산리 절’을 지금 복원하는 중이라는 말에 얼른 그 유명한 국보 ‘백제 금동 대향로’를 떠올렸다. 이 향로는 이 절 근처에 아무렇게나 묻혀 있다가 최근에야 발견됨으로써 나당연합군의 침입 당시에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궁궐의 사정만큼이나 다급했던 절의 처지를 암시해 준다고 신문에서 읽은 기억이 났다. 주지 스님이 이 향로를 품에 안고 허겁지겁 달려 나가서 논바닥 후미진 곳에 묻어 놓고는 뒤 쫓아오는 당나라 군사의 칼에 피를 흘리는 모습이 어른 거렸다. 절의 완전 복원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것 같다는 지나던 어느 주민의 말에 다음 행선지인 ‘백제 문화단지’에서 재현된 ‘능산리 절’이라도 빨리 보고 싶어 장재복씨의 콜택시를 불렀다.



백제문화단지는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왕궁들 중, 궁전의 모습을 최초로 재현한 ‘사비궁’은 백제문화의 절정기의 왕궁으로 정전의 출입문을 지나 궁 안으로 들어서면 왕이 정치를 논하던 ‘천정전’이 나오고, 여기서 성왕의 사비성천도를 선포하는 음성을 들을 땐 나도 모르게 숙연해졌다.

왕궁의 왼쪽에는 바로 ‘능사’, 즉 능산리 절이 실제 크기로 버티고 서 있었다. 왕궁에 이어 웅장한 모습에 우린 또 한 번 압도당했다. 능사는 대통문, 5층목탑, 대웅전, 자효당을 일직선상에 차례로 배치시킴으로써 한껏 백제시대의 가람양식을 자랑하고 있었다. 넓은 가람에는 켜 걸음으로 오가던 옛 스님들의 모습은 오간데 없고 카메라를 든 관람객들만 북적이니 격세지감(隔世之感)을 감출 수 없었다.

다시 되돌아 문화단지의 대문 격인 ‘정양문’을 나오자 왼쪽 넓은 토지에는 ‘백제역사문화관’이 새색시처럼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백제 촌부들의 소박한 인생과 왕족의 화려한 삶이 세월의 때가 묻은 유물로 남아 지난날의 주종(主從)의 연(緣)을 버리고 다정하게 공존함을 볼 수 있었다.

이 단지를 떠나기 전에, 아래층에 있는 기념품가게에 들렀다. 처형에게 드릴 기념품을 고르기 위해서였다. 백제의 얼이 스며있는 기념품이면 될 것 같아 왕궁이 그려진 목걸이를 집었다. 값을 지불하고 가게 문을 여는 찰나 수원에서 오늘 김 전무와의 저녁 약속이 펴뜩 생각났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터미널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하겠다. 나는 휴대폰을 열고 장재복씨를 호출했다. 택시가 나는 듯이 달려와서 우리부부를 싣고 달릴 때 아내가 투정을 부렸다.

“여보,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점심은 먹고 갑시다.”

나는 이말 끝에 마다않고 맛장구를 쳐 주었다.

“그럼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러는데. 기사님, ‘추억속의 보리밥집’으로 갑시다.”

옛저녁 식사와 오늘 점심식사 이렇게 겨우 두 끼 식사만으로 이 식당을 떠나야 하는데도 주인마님은 남달리 돼지 족발을 상에 추가해 주셨다. 고맙기 그지없이 문을 나서면서 인사를 드리려했지만 그 동안에 벌써 외출하셨단다.

우리부부가 가방을 끌고 터미널로 막 걸어 들어갈 때, 갑자기 경적이 울려 바라 보니 장재복씨가 또 다른 손님들을 싣고 가다가 손을 흔들었다.

시내를 통과하는 수원행 버스 차창 밖으로 알 수 없는 반듯한 석탑(혹 정림사지 5층석탑?)하나를 지나놓고서야 신동엽 문학관, 무량사, 선사취락지 등등 여러 유적지를 미처 관람하지 못한 아쉬움이 솟구쳤다. 다음 기회에 다시 오겠다고 마음먹었지만 맘속은 여전히 허전했다.

백제의 꿈, 부여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제3장



Inje Culture

백일장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며 희망입니다'

제11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주최 : 내린천예술인회 · 강원일보사 | 후원 : 환경부 · 인제군



인사말

자연은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포기 한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땅, 우리 강산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왔는지 이미 뼈아프게 절감했습니다.



이제 환경만이 희망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이며 한반도의 허파인 내린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입니다.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은
지난 97년 내린천댐 반대 운동에서 보여 준
인제군민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높이 기리고
문예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예술, 그리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인
본 행사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은 하나이며
희망이라는 감동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11월

내린천예술인회 회장 문부자

감정 억제 또는 언어 절제

최병헌 (시인, 심사위원장)

예심을 거쳐 본심에 넘겨진 작품은 운문 25편에 산문이 20편 이었다. 예심에서 탈락한 작품까지 하면, 100여 편이 넘는다고 하니 환경백일장이 이제는 제대로 자리를 잡았나싶다. 참가자 모두에게 그동안의 깊은 관심과 수고로움에 찬사와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까지는 주제가 <우리 집 환경 이야기> <유년의 딸> 등이어서 딱딱하고 규격화된 느낌이었는데, 금년에는 <나의 살던 고향> <골목길> 등이라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먼저 들어 좋은 작품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몇몇 응모자는 많은 수련기간을 거쳤는지 언어 구사나, 문장의 짜임새가 예사롭지 않아 대상작을 내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나, 나머지 작품들은 가난하기는 해도 서로 정을 주고받던 유년 시절이 비슷해서인지, 작품내용 자체도 비슷하고, 수준도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대상작에 선정된 시 <나의 살던 고향>은 지체장애를 가진 자식과 홀어머니의 관계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리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던 고향이야기를 잘 그렸다. 시 <올해의 가을>과 <골목의 끝에서>는 늦가을의 정경과 골목의 특징을 잘 묘사 하였으나, 어딘가 무엇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움이 남는다.

산문 <산이 부른다> 와 <에움길에 들어서면>은 끝까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다. <산이 부른다>는 유년에 거대한 산자락에 묻혀 살다가, 성인이 되어 낮선 도회지 생활의 고단함을 접고 돌아왔을 때 따뜻이 맞아주는 산의 고마움을, 잔

잔하게 탄탄한 문장으로 표현하였으며, 〈에움길에 들어서면〉은 교통신호에 있어, 보통 ‘직진 차 우선’ 이지만, 회전차로 내에서만은 ‘회전 차 우선’ 이라는 것을 재미있게 잘 그렸다. 어려운 결정 끝에 〈산이 부른다〉를 장원 작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애면글면〉 〈우듬지〉 〈소금버캐〉라든가, 〈에움길〉 〈매지구름〉 따위의 순 우리말을 적시 적소에 사용한 것 등은 높이 살만 하다. 그러나 조언(助言)을 하자면, 감정 절제가 안 되어 마음이 앞서가고, 자아도취 경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운문에서 만큼은 시의 특징을 잘 살려,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 과감한 절제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입상자 명단

상 급	부 문	성 명	비 고
대상	전체	김진숙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장원	운문	유승희	경기도 수원시
	산문	김주은	강원도 속초시 금호동
차상	운문	김영순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산문	최보정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차하	운문	전혜순	강원도 강릉시 가작로
		이옥자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산문	박선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원영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장려	운문	전숙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배은선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산문	김경애	강원도 인제군 북면
		김순덕	강원도 강릉시 노암동

나의 살던 고향

김진숙

과부 시어미 염려 속에 바보아들 보문이와 바보색시가 어화등등 합치던 날,
기슴속 구들장 하나 내려놓으며 시어미 꽃 무릇 붉게 펼치더니 어화등등 보문
이 님은 아들, 보문이 색시 님은 딸도 얻는다.

제 몸 하나 간수 못하는 저것들 대신 새끼들 들쳐 업고 들로 산으로 치뛰고 내
뛰는 시어미, 산입에 거미줄 칠까봐 애면글면 모은 고단한 속주머니 여간해선 열
리는 일 없고 목숨보다 더 소중한 새끼들만이 들어앉아있다.

턱밑에 커다란 혹을 달고도 다음에 이다음에 미루고 미루더니 결국 눈도 못 감
고 시어미는 세상을 떴다.

두고 갈 수 없는 마음 어땁기에 온 몸으로 보이는 고통의 혹 덩어리들 검푸르
게 곰팡이 피듯 번졌을까.

가스 불 낼까봐 중간밸브도 잠그고 이집 저집 돌아가며 해 주던 끼니 뜸 할 때,
동네 회의 끝에 두 새끼를 남의 집 데려다 주고 오던 날.

짐승 울음 쏟아내던 보문이 색시.

월남치마 속에 묻은 얼굴, 질깃한 애증의 연모 견뎌낼 수 있을까.

밤마다 짐승의소리가 밤나무 우듬지에 서럽게 었힌다.

그렇게 나의 살던 고향에는 보문이와 보문이색시 모두 떠나보낸 집 기왓장엔
소금버캐만 그득하다.

도공(陶工)

유승희

삼십여 년 전 내 어릴 적에
나의 아버지는 옹기장이었다
달도 지쳐 갈 즈음
떨치지 못한 잠을 데리고 달려가면
아직도 장작개비를 던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노구리 가마 하나,
큰딸 읍내 학교까지 버스를 태워주기 위해
노구리 가마 둘,
둘째 놈 하얀 운동화를 위해
노구리 가마 셋,
막내딸 색동한복을 위해
노구리 가마 넷,
마누라 학수고대 박하분을 위해
노구리 가마 다섯,

다섯 식구 쌀자루를 위해

어머니는 구워진 옹기를 주워 담아
파리를 틀고 자라목이 되어
서울행 버스를 탈 것이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줄 김치는
떡 한 덩이를 사들고 행복해 할 것이다

그러나 그날 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의 바램은 위에서부터
차례로 무너져 버렸다
아버지는 밤새워 두 되가 넘는 막걸리를 비우셨다
어제 보았다던 구렁이늪을 원망하면서

산이 부른다

김 주 은

내가 하루 종일 근무하는 곳은 강원도 속초 설악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학교 도서관이다. 학교 앞으로는 쪽빛 동해가 펼쳐져 있고, 뒤로는 잎잎이 붉게 물들어 출렁이는 설악산이 장엄하게 솟아있다. 바라볼수록 아름다워 햇빛도 숨을 멎고 서 있는 듯하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동해의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생생히 살아나 가슴을 적신다. 아! 이 모두 속에 나를 놓으면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하다. 세상의 고단함을 떠올려 무엇 하겠는가. 나는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은가.

이 행복함에 감사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돌아 왔는지 가만히 돌이켜 본다. 강원도 양양 산골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나는 거대한 산 아래 우리 마을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어린 나에게 산은 까마득히 높았고 바다는 거대하기만 했다. 변함없이 거기 그대로 서서 지켜주는 산에서 안락함을 느꼈고, 바다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평화로운 안도를 느꼈다. 하지만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아홉 살이 되던 해, 집에 텔레비전이라는 요술 상자가 들어왔다. 그저 동화 속 거짓말처럼 여겼던 어른들의 이야기가 그림으로, 사실로 나타났으니 어린 내가 받은 혼란은 어마어마했으리라.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넓은 세상이 산 너머에

거대하게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산은 내가 반드시 넘어야 할 도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 사실은 어린 나를 치열해지게 했지만 안온했던 평화의 벽을 허물었지 싶다. 세상 저 편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선 듯 한 산을 원망했고 세상의 전부였던 우리 동네가 답답하게만 느껴졌으니까 말이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서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다. 새벽별 보며 시작한 부모님의 농사일은 늦은 저녁 쓰러지듯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계속 되었다. 그래도 가난했던 시절이었다. 그때 농사일은 신성한 노동과는 거리가 먼 고단하고 힘겨운 삶의 무게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일까. 저 산만 넘으면 가난도 넘어설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다 싶으면 우리 언니도, 길 건너 친구 형도 도회지라는 서울로 가던 시절이었으니. 그때 내게 산은 넓은 세상에서의 꿈과 성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했던 ‘산’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스무 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 산을 넘었다.

대관령 굽이굽이 너머 넓은 세상엔 낯선 사람들과 산처럼 까마득한 빌딩들과 사나운 자동차들로 넘쳐났다. 그때의 서울 바람은 얼마나 차가웠던지. 발붙일 곳 없는 시골뜨기인 나는 보호자 없는 아이처럼 넓은 세상에 허우적댔다. 그러면 그럴수록 살아남아야겠다는 어리석은 욕심으로 발버둥 쳤던 것 같다. 그러나 대학 졸업과 함께 찾아온 IMF 경제위기로 취업 실패라는 고배를 여러 번 마셔야 했고 결국 노량진 공무원 학원을 전전하는 취업 준비생이 되어버렸다.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괴로웠고 남들과 비교하며 낙담했고 시기심으로 내 빛깔을 잃어만 갔다. 그 시절 내 청춘은 창백했다.

고단한 삶의 무게가 어둠으로 내려앉은 봄 어느 날 밤, 마음속에서 휘잉 바람 소리가 났다. 하얀 아카시아 향이 지천으로 가득하던 오월 그 밤에, 어린 시절 닳은 바람이 그리움으로 불어오고 있었다. 간단히 짐을 꾸려 난 다시 그 산을 넘어 고향으로, 그리운 집으로 돌아왔다. 바라볼수록 푸른 하늘과 산이 흔들리며 달려왔다. 그토록 그리웠던가!

어렵사리 취업 한 후 희망 근무지를 속초로 지원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한 베이스캠프를 꾸렸

다. 오늘도 사랑스런 아이들이 나뭇잎처럼 팔랑대며 운동장에서 뛰어 놀고 있다. 어린 시절 나처럼 산 아래 마을에서 산과 벗하며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산에서 얻으며 자라고 있다. 거대한 산과 나무가 마음으로 보이며 생명으로 다가온 순간부터 자연은, 산은 내게 큰 스승이 되었다. 나무와 바위, 그 속에 살아가는 동물 하나하나가 저마다의 형태와 색깔로 이루는 조화는 세상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바탕이 되어 주었다. 한 시절 한 번 사는 인생으로 우왕좌왕하는 내게 산은 해마다 새롭게 생명의 흐름을 드러내며 삶의 본질과 원리를 깨닫게 한다. 내 고향 산과 함께하며 이렇게 나는 조금씩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 듯하다.

내 고향 설악은 요즘 내년의 더 큰 생명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버리는 아름다운 단풍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인다.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이유로 산을 찾은 것이다. 지친 삶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말이다. 삶의 시름을 내려놓고 산에 몸을 기대면 몸은 어느덧 자연으로 물들고 그 옛날 평화로움을 느끼게 된다. 작은 바람에 몸을 떠는 나뭇잎에도 감동했던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삶의 행복이 아니었을까.

설악산 높은 봉우리 즐기 마다 사연 많은 사람들 품어 안은 산. 고단한 삶에 지친 세상 사람들을 불러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의 숨을 불어넣는 산. 빛나는 제 빛깔을 잃지 않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온전한 평화로움을 느끼게 하는 산. 이 위대한 산 앞에 경건히 선다. 넓은 세상을 맛보고 어른이 되어 돌아온 내게 고향의 산은 어린 시절 그때처럼 다시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가을, 산이 부른다. 이제 산은 가장 붉게 타오르며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것이다.

나는, 목 놓아 우는 새가 되었다

김영순

배꼽 꽃잎 떨어지던 날
쏟아지는 빛 속을 헤엄쳐야 했다

첫 사랑의 하모니
찔레꽃 한 다발 머리에 쓴
연분홍 구름 같은 소녀의 꿈
초승달 닮은 여인
치자 꽃처럼 웃었다

값아먹다 눈물까지 삭혀버린
그녀는 내 魂(혼)을 닮은 거울이다
이승의 실타래
報恩(보은)의 덩어리 풀 수 없어
까마귀 떼 저승까지 놓은 오작교
인연의 줄

서러운 꽃수레
붉은 가슴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었다
요단강, 江허리 부여잡고

나는,
목 놓아 우는 새가 되었다

에움길에 들어서면

최보정

하늘이 매지구름으로 어두워진다. 바람이 황금벼이삭을 한껏 흔들고 있다.

늦가을 비가 떨어지며 음산하고 차갑다. 머지않아 숙살 기운의 바람들이 초목을 말려 소멸시키고 나면, 그 위를 다정한 흰 눈들이, 그들을 덮어주며 잠시 쉬게 여유를 주게 될 것이다.

멀리서 바라봐도 도로변에 걸린 현수막이 뚜렷하다. 시야視野 에 들어온 노란 글씨, ‘회전차로내 운행방법. 회전차 우선, 직진차 양보.’ 보는 순간 가슴이 상큼함을 느낀다. 설렘을 감지하며,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서서히 들어선다. 둥그런 동산 같은 둘레길이 보이면 바닥에 적힌, 회전차 우선, 그 글씨 위에서 즐거운 미소가 나도 모르게 양쪽 볼에 지어진다. 바로 양옆의 직진차량이 주춤 주춤 낮은 속도로 양보하고 있다. 썩곳 양쪽 볼이 미안한 듯 웃어야 된다. 양쪽에 직진차가 있으니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 고마운 표시도 할 수 없다. 그저 소리 없이 신나게 웃는 수밖에 없다.

미안스럽고 어색하다고 속도를 낼 처지도 아니다. 이 지점은 오차선이고, 또한 아름다운 꽃밭 같은 또 하나의 회전차로가 연결된, 두 개의 동산이 나란히 이어진 곳이다. 나는 이곳을 갈 때 왜 그리도 거북선 두 개를 에워싸고 지나는 것 같

은, 착각에 흐뭇해지는 것일까. 어려서부터 이 나라 역사의 최고의 애국자는 이 순신장군이라고. 확신하더니, 이곳에서 말 탄 병사도 아니건만, 난데없이 차가 말 같고, 내가 절실하게, 애국자 이순신 장군의 백의종군의 기상을 생각하며 숭배하고, ‘그에게 애민심이 없었다면 과연 거북선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옛스런 상념으로 즐거움을 몸으로 즐기게 된다. 아무튼 걸어나니던 옛날로 돌아간 듯 유쾌하기까지 하다.

여기 이 자리에서는 교통법규의 ‘직진차 우선’이 역눌러지니 통쾌하다. 인생길로 대입해보자면 좌절이 없는 잘나간 지름길 인생들, 황당함을 모르는 성공한 인생들, 부모를 잘 만난 선택된 인생들, 절망이나 억울함을 모르는 인생들(그래서 그 반대의 이순신장군이 떠오르는지 모른다) - 물론 그들은 겹눈을 만들지 않고 오직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누려야 할 화려함과 당당함은 속력을 낼 권리도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선 그들은 겸손하기 그지없다. 마치 그들의 성공은 게으르고 무딘자들이 주춤 주춤 양보한 덕택인 것을 인정해주는 양, 여기 이 새로 생긴 회전차로에 와서는 정지하다시피 속도를 줄이고 양보한다. 두 개의 낮은 동산을 회전차가 무사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멈춰주고 유감없다는 듯 얼굴들이 환하다. 인간이 꽃등이 되어, 서로 마주보는 시선들이 등불처럼 웃는다. 동산에서 온갖 꽃들이 최대치의 눈웃음을 뿌려주는 듯싶다. 알게 모르게 시간이 흐를수록, 따뜻한 마음들이 애움길을 에워싸고 휘돌며, 저만치 서있는 단풍 길처럼 풍성해지고 있다.

이 오거리는 원래 신호등이 6개나 서 있는 복잡한 거리였다.

저 옆길에서 나타나는 차보다 먼저통과하려고 내달리다가 대형사고도 많았고, 급정거로 발생하는 매연도 심했다. 신호등이 워낙 많아서 한 시계(視界)에 띄뚝 들어오지도 않아서 사고가 잘 발생했었다.

그러던 것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회전차로가 두 군데가 연이어 졌으니 눈의 피로도 가서졌지만, 경제적 이득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인간 내면의 어두운

저 밑바닥을, 어눌한 소시민을 이처럼 암암리에 즐겁게 한 단계 끌어올려주고 있지 않는가.

옛 책에 보면 공자는 어느 날, 물지게 장치를 쓰지 않고, 물통으로 한통한통 물을 퍼나르는 촌부에게서 진정한 환경보호의 가치를 깨닫고 감탄하여 긍정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러한 심성을 심어주고 경계를 살려준 행정가에게 진심으로 존경심을 보내야한다. 우리는 소박한 그리고 진정한 마음 받이 가는 대로 회전차로를 돌며 천천히 빠져 나가면 된다. 웃음이 저절로 돌고 돌듯이, 동그랗게 생긴 두 무더기를 그대로 따라 나가면 된다. 고맙다고 손짓 할 필요도, 경적을 울릴 필요도 없다.

오늘도 나는 창밖을 보며 느릿느릿 진입하며, 양 옆의 사람들을 본다. 회전차로는 에움길이다. 이팝나무와 자귀나무와 꽃들이 심어진 동산 둘이 약간의 간격으로 연이어 있다. 그곳을 무난히 통과하고 나면, 큰 건물 담장을 따라 생긴 살피꽃밭에 노란 해바라기가 늘어서 있는데. 한결같이 회전차로를 향하여 몸통을 틀고 있다. 아주 애간장타는 근심스런 얼굴로 새까맣게 타고 있다. 혹시나 현대인이 적응 못 할까봐서, 사고라도 날까봐서, 꽃잎하나 떨구지 않고 또렷한 눈망울로 까만씨를 새까맣게 매달고 있다. 그러나 어떤 염려도 붙들어 매도 될 성실다. 4.1 만세운동을 일으킨 충절의 고장답게 서로를 배려하며 회전차로 진행방법을 지키고 있다.

해바라기 익어가는 이 가을, 억눌린 심정이 회전차량 우선이라는 지원을 받으며 에움길을 에돌아 직진으로 나간다.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호탕한 웃음이 ‘하하’ 터진다.

골목길

전혜순

술이 걸어 온다
술을 흘리며 꼬부라진 혀가
대문을 걷어찬다

화들짝 제비처럼 튀어 나오다
연탄 화덕을 안아 버렸다

알코올에 절여진 지린내
코와 발바닥을 지퍼로 채우고
방문 앞에 귀를 세운다
계속 쏟아내는 고달픈 언어들
이 십 오 퍼센트가 허공으로
날아 갈 때까지 떠든다

술 푸게 하던 가난
베이비부머 장남의 어깨는

미친 가을비가 그렇게
설악의 품으로 데려 갔다

술이 걸어 오던길
술에 절여진 골목길에 비친
알코올램프 속, 아련히 스치우는
오빠의 미소...

계곡의 가을

이옥자

무엇이
저러게도 바쁠까
낙엽 한 잎
물길을
쏟살같이 가르는 수상스키어
바윗돌
겹내지 않고 이리저리 치며가네

물가에
가랑잎들
제멋 되로 떨어져
편치한 번
못 날리고 부서지는 신음소리,
그 소리
박수갈채인양, 가랑잎선수 잘 달린다.

제 2의 고향

박선애

올해도 민족 대이동 명절 중 하나인 한가위 추석이 돌아왔다.

이번엔 추석연휴가 짧았지만 중간에 개천절이 있어서 일명 샌드위치 데이라 몇일은 더 쉴 수 있게 되었다. 명절을 가족, 친척과 보내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평균 6시간 이상의 기다림을 갖으며 수고를 하는 귀성객들도 많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가족의 귀성길은 여느 사람들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터라 정체없이 수월하게 다니고 있는 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명절을 기다리며, 이야기 보따리와 선물꾸러미를 들고 고향을 찾아 부모님과 형제를 뵈러 간다. 또 만나면 시간가는 줄 모르며 한없이 편 이야기 꽃은 새벽을 맞는다. 이렇듯 우리 삶의 빠질수 없는 큰 잔치날이다.

우리도 여러 가지 선물세트며 인제에서 나는 특산물이며 바리바리 자동차 트렁크가 미여져라 가득 채우고는 해가 지는 서쪽 인천으로 내 달린다. 출발 전 부터 신이난 아이들과 남편은 콧노래까지 한층 더 들떠서 흥에겁다. 하긴 나도 어렸을적에 설날이나 추석은 손꼽아 기다렸었다.

명절때나 엄마가 새옷을 사주셔서 입어볼수 있었고, 한껏 단장한 우리가 큰집에 가면 할머니가 우리를 반겨 주셨고,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의 만담이 어우러져 너무 좋았었다. 더욱 명절이 기다려진 이유는 차례 지낸 후 맛볼수 있는 음식

들이 있어 나의 식탐을 충족 시켰기 때문이다.

지방마다 명절음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난 우리 할머니가 끓여주신 토란탕의 맛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요즘에 먹어본 토란탕은 그맛이 안나고 사뭇 그때와 달라 좀 아쉽다. 게다가 알록달록 반짝거리는 분홍빛 동그란 옥춘사탕은 어린 내눈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뻐서 더 많이 탐을 내다가 친척 또래아이와 다투었던 기억도 있다.

그때만 해도 물건들이 지금처럼 풍족했던 시절이 아니었기에 부족함이 있어 더욱 귀함을 알고 소중히 하며 감사했었다. 창밖을 보며 회상에 젖어 있을 즈음 어느덧 인천 시택에 도착했고 어머님과 삼촌내외와 반가움을 나누며 도란도란 명절을 지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다들 주부라면 느끼겠지만 시택에서 몇 일을 보내고 나니 나또한 내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그게 머느리 입장에 있으면 모두 공감아가는 명절 중 후근에 의한 불편함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전처럼 몸에 익숙하지 않음이 더 크게 작용한거 같다.

나도 이제 촌사람이 다 되었나 보다. 휘영청 요란 뻑뻑한 건물들 사이로 기듯 바빠 돌아가는 세련되고 멋진 도시에서는 잠깐의 쇼핑이나 눈요기라면 몰라도 그 속에서 생활을 하라 하면 웬지 모를 답답함과 딱딱함이 밀려와 견딜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남편의 일 때문에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남은 이들과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차는 다시 해가 뜨는 동쪽으로 향해서 떠난다.

집으로 향하는 길이 가까울수록 차 창문 넘어 밖의 경치는 너무 멋지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아래 끊임없이 이어진 산이 겹쳐져선 띄고 있는 초록색의 짙고 열음의 명암으로 인해 마치 입체 3D를 보는 듯 하고, 그 속에 펼쳐있는 나무는 옛 조선시대에 산수화 속 처럼 한폭의 그림이 따로 없다.

몇일 동안의 각박한 도시에서 심신이 지친 터에 무공해 청정골 나의 안식처에서 다시 활력을 되찾게 되었다.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전부라 생각하며 살았던 호적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그곳이 나의 제 1의 고향이라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사방이 온통 푸른산으로 둘러 쌓여있고 마을 앞으론 맑고 고은 하천이 흐르

며 내 삶의 터전이 되어 버린 이곳이 나의 제 2의 고향이 되어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심신을 안정시키며 그림같은 추억을 다져가며 살고 있다.

작은 생명에 도사린 업

원영애

냉이 꽃이 슬프게 웃으며 말을 한다.

냉이 꽃은 마치 어린아이의 얼굴로 변해 나에게 자기가 며칠 지나면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다고 묵언의 말을 예언처럼 내 머리에 심어 주는 듯 내 머리에 잠식되어 있는 듯, 나는 냉이 꽃의 웃음을 보며 안타까워하며 쳐다 보았다.

냉이 꽃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다 정신을 차려보니 한 밤중, 나는 꿈속에서 깨어남을 알았다. 이상타 왜 이런 꿈을, 나는 잠자리를 떨치고 일어났다

삼년 전 일어났던 냉이 꽃으로 다가온 지난일, 젊은 나이로 저 세상 사람이 된 나의 어린 조카들 셋과 작은 집의 큰아들, 사촌 남동생인 것이다.

그들은 모두 31 나이를 못 넘기고 저 세상으로 떠난 것이다. 그들이 생각 속에서 살아지지 않는다.

친정아버지의 기일 날 친정집 거실에서 늦은 잠을 자고 있는데 동생의 큰 아들은 아직 들어오지 않고 12시를 넘은 시간 큰아들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가 누워 있는 거실을 거쳐야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큰아들 방이다, 큰 아이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날 때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친다. 올려다보

는 순간 저 불상한 것 같은 예감이 머리를 스친다. 저것을 어찌해야 이 난국을 피해 갈 것인가 뇌리를 스치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따라 왜 그런 일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나도 모를 일이다. 형제들의 집집이 생각나고 그 형제들의 큰 아들들이 젊어서 죽었다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왜 우리 집안은 큰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집도 큰아들이 30을 넘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갔다.

무서운 생각이다. 섬뜩한 생각 말로는 차마 입밖으로 내 놓을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른 것이다. 왜 그날따라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혼자 눈을 껌벅이며 천장을 쳐다보며 생각을 해도 모를 일이다.

31의 숫자가 무서운 것은 31세를 못 넘기고 친정 집안의 장손들이 다 죽는다는 무서운 사실이다. 그렇다 작은 아버지의 큰아들, 큰오빠의 큰아들, 호주 사시는 작은오빠의 큰아들, 그리고 남은 것은 동생의 큰아들, 동생의 큰 아들만 현재 남아 있으니 불행은 물 보듯 뻔한 일 아닌가. 비켜 갈수 없는 우리집안의 큰아들의 수난, 31을 넘기지 못하는, 이 일을 어찌 해야만 할까.

내게 떠오르는 이 예감을 어찌나, 이 예길 입 밖으로 내면 나는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이고 입 방정 떨지 말라고 할 것은 뻔한 일이다. 너무나 무서운 암시다. 아침밥을 먹으면서도 그 아이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았다. 아무데도 그 무서운 그늘은 보이지 않고 사랑스런 가족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아침상머리의 대화는 그야말로 평화로운 그 자제였다.

설날 아침 차례 상을 물리고 상을 물리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이상타 식구들은 다 이곳에 모여 있고 전화할 사람은 없는데 이상한 예감이 머리를 스친다. 전화를 받아드니 동생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짧게, 어제 밤 집 앞에서 귀가도중 연봉 강변으로 추락하여 큰아들이 죽었다 한다.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전화는 끊어졌다.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이다. 동생네의 그 하나 남은 큰아들이 31의 종지부를 찍힌 것이다. 부랴부랴 설날 아침상을 물리고 신랑과 세 아들을 데리고 흥천 친정

으로 갔다. 집은 텅 비어있고 아산병원 영안실엔 낯선 사람들과 더러는 알고 지 내던 옛날 분들이 미리와 인사를 나뉘고 그의 부모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말도 할 기운도 없고 무엇으로 위로해야 하나 도저히 아무 생각이 떠오르질 않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울어 기진맥진하다 쓸어져 닝겔을 맞고 있으니 무슨 예길 하라, 기가 막힐 뿐이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보름 전 아버지 기일에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31살의 나이를 넘기기가 이리도 힘든 일인가. 설 차례상 준비하느라 바빠 움직이는데 밖에서 웅성이는 소리가 나 나가보니 어젯밤 들어 오지 않은 큰아들이 강변으로 낙성한 것이다. 모든 강변 위를 다 막아놓고 집 앞 큰 냇떠러지기인 그곳만 막아놓지 않았다.

이럴수가, 설 잘세라 회사의 팀장이 보너스 받아 술 한턱 낸 것이 이런 끔찍한 일이, 술이 너무 취해 회사 직원이 문앞까지 데려다 주고 갔다는데 취한 상태에서 강변쪽으로 가 소변을 보다 휘청하여 떨어 졌다는, 그런 추측이다. 가끔 친구 네 집에서 자고 오기도 하여 아들을 찾지 않은것이 불찰이다.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인가 상상을 했으랴. 도대체 우리 집안의 첫아들이 무슨 업이 있어 저렇게 가야만 하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자라며 들은 예기는 아버지의 고기잡는 일이다. 작살로 물속의 고기를 낚아채 올리는 일을 많이 했다는 일 말고는 남에게 해한 일이 없었다 들었는데 그 일이 이리도 업이 쌓인 일이었나, 모를 일이로다. 진정 모를 일이로다. 생업도 아닌 일로 무고한 생명을 죽인일이 얼마나 큰 죄인가. 먹고사는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취미삼아 남의 생명을 빼앗는 다는 것은 분명 죄라고 생각이 드는 일이다.

생명 하나가 태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오는 축복이다.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재미 인 취미를 채우기 위해 남의 생을 죽이고 자연의 조화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 성스러운 일을 사람들은 아니, 울 아버지는 재미삼아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는가, 너무도 큰 죄라면 큰 죄인 것이다.

염할 때 그의 얼굴을 보니 낭떠러지에서 부딪힌 멍이 파르라니 보일 뿐 잠자는 듯 감은 눈, 왜 저 아이가 저렇게 일찍 가야 하는 지, 부모의 가슴에 멍 자국을 남기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 집안의 업보가 얼마나 크기에, 그 많은 큰 아들들을 다 데리고 가는지 하늘이 무심할 뿐이다.

나는 도시 농부

전숙자

풀 한포기 없을 것 같은 시멘트 보도블럭
아스팔트길 따라 걸다보면 골목어귀 돌아
시선이 멈추는 길 끝에 자리한 조그만 집
다섯 식구 오순도순 십여 년 넘게 살았다

아무도 찾아줄 것 같지 않은 골목 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람 어김없이 찾아들고
바람이 불어줄 때마다 비닐봉투 종이조각
어김없이 대문 앞에 모여들어 수군거리며
보잘 것 없는 우리집 들어오겠다고 한다

그나마 찾아준 그들이 반가워 빗자루 들고
맞이할 때면 세상이야기 전해나 주려는지
이름도 생소한 광고물들이 반갑다는 인사
그래 찾아주어 고맙다 너도 나의 손님이다
골목에 심어놓은 마딩쿨도 덩달아 신나고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는 곳
시멘트 포장 된 사이에도 초록이 인사 한다

토란 심은 화분은 잎사귀 가득 골목길 메우고
고추 익어가는 화분에는 가을향기 나는 소식
겨우내 모아둔 음식물 푹 썩혀 만든 밑거름
호박순 반찬 되고 미순 나물되어 밥상 오르면
도시농부 틀림없는 풍년의 노래 아름다워라

시멘트 기와 처마 밑 쏟아져 내리는 빗물
좁은 화분에 생명수 틀림없어 게으른 농부
비오는 날은 공휴일이라며 다리 펴고 눕는다
버릴 것 하나 없는 세상의 손님들 찾아드는데
사계절 바람소리 내고 지나가며 문을 두드릴 때
넓은 대문사이 어김없이 어린자식 커가는 소리
주방은 요란 떨며 호박잎 된장찌개 보글보글

그와 나

배은선

내가 살던 바다가 보이는 그곳
그가 살고 있는 설악산 언저리 그곳
만리길을 가야 만날 수 있는
멀고 먼 거리

그와 나에 인연은 천리를 걷고
또 걸어야가 닿을 수 있는
멀고 먼 거리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를 찾아 내린천 강물 따라
내가 살던 바다가 보이는 그곳을
향해 걸었고
나는 그를 찾아 바닷길 따라

내린천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는 만났네

바다가 흘러 강물과 인연이 되듯
바닷길 따라 내린천 따라
인연으로 만나게 된
그와 나

골목길

김 경 애

지금은 사방 팔방으로 큰 길이 쪽 쪽 뻗어 있고 웬만한 골목은 소방 도로가 나 있어 골목길을 쉽게 아 볼수 없지만 옛날에는 골목길이 참 많았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술래잡기를 하고 미로 같은 골목길을 다람쥐 같이 빠져 다니며 잘도 놀던 놀이터가 골목 길이다.

그러다 때로는 돌맹이에 걸려 넘어져 이마도 다치고 코피도 터지는 불상사가 났다. 그래도 아이들은 골목 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엄마에게 혼이 나도 골목길로 쓴살 같이 달아 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골목길 후미진 곳에 혼자 앉아 분을 삭였다. 그래서 골목길은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다.

나도 골목길을 참 많이 다녔다. 골목길의 매력은 우선 먼 거리를 질러 갈수 있어서 좋고 남이 모르는 길을 혼자 살짝살짝 빠져 나가는 재미가 있다. 남들이 시장에 갈때 나는 집에 있다가 그들보다 먼저 시장에서 돌아 다녔다. 올 때는 어느새 돌아와 우리 가게에 앉아 있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축지법을 쓰느냐고 물었다.

골목길을 이용하는 것도 나의 비법이니까 축지법일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축지법을 나보다 더 잘 이용하는 어린 도둑을 골목길에서 놓친 적이 있다. 가게를 별로 비우는 일이 없는데 짧은 순간에 금고의 돈이 자꾸만 없어졌다. 하루 날을 잡아 계단 옆에 숨어서 가게를 주시했다. 초등 학생 같은 약하게 생긴 아이가 간

도 크게 가게에 들어오더니 우리가 파는 컷터를 들고 금고 걸고리를 자르려고 했다. 순간 나는 "야! 너 거기서!" 하고 소리를 질렀다. 깜짝 놀란 아이가 당황해서 어쩔줄을 모르다가 문을 박차고 쏜살 같이 달아났다.

아이를 잡으려고 남편과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분명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 갔는데 아이는 바람처럼 없어졌다. 나중에 찬찬히 살펴보니 골목끝에 이어져 있는 낮은 지붕을 타고 티미널 쪽으로 빠져 달아난 것이다. 아이는 그 쪽 골목길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때로는 골목에서 난처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무거운 시장 보따리를 양손에 들고 바삐 걸어 가는데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비키느라 곤욕스럽다. 가끔은 무서운 일도 있다. 어느때가 급히 시장에 갈일이 있어 질러 가는 골목길에 들어섰는데

앞에서 형색이 이상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동냥을 하러 다니는 거지 나병환자였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자 덜컥 겁이 났다. 뒤돌아 설까 망설이는데 그 거지가 갑자기 손을 번쩍들어 나를 잡으려고 했다. 순간 획 돌아서서 내 생전 그렇게 빨리 뛰어 본 적은 처음이었다.

그 뒤로 한 동안 골목길을 다니지 않다가 바쁜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골목길로 들어서면 나를 보며 피식 웃는다. 지금도 나는 큰길 보다는 골목길에 새로운 소방 도로를 자주 이용한다.

별난 인연

김순덕

영구와 처음 만난 것은 16년 전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시장통로 굴다리 밑에 누워서 잠자는 영구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다. 그날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을씨년스러운 늦가을 밤이었다. 시장 통로를 빠져 나오는 입구 굴다리 밑에서 박스를 깔고 누워 잠들어있던 영구는 행려자의 한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무관심 하듯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별도로 없이 집으로 와버렸다. 그런데 그날 밤 마음이 편하지 못해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었다. 축축하게 젖고 있는 박스위에 몸을 맡고 누웠던 모습이 아른거렸기 때문이다.

그 무렵 나는 직장에 다니느라 매일 시장통로를 거쳐 다닐 때다. 그 다음날도 영구는 길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떨고 있었다. ‘잘 만났다. 그렇지 않아도 너를 그냥 지나친 죄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는데’ 전날 밤 무심히 지나친 미안함 때문에 영구한테 따뜻한 오텡국을 사서 추운 몸을 녹이게 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 인연이 시작되었다.

영구는 언어장애가 있는 저능아이였다. 나이는 20대 전같이 보여서 몇 살쯤 될 것이라고 짐작으로 알뿐이지 영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어느 누구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다. 영구라는 이름도 누가 처음부터 불러준 이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애를 보고 영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나는 매일 영구를 만나게 되었고 영구는 나를 기다리는 듯 내가 다니는 길목을 서성이다가 나와 마주치게 되면 빙그레 웃으며 내 곁으로 다가온다.

코가 나와 입까지 덮어도 제 손으로 닦는 것조차 모르는 아이, 코를 잡고 “코 풀어 흥”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걸 보면 지능지수가 서너 살쯤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런 영구를 보면 친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일명 천사 소년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보살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관계냐고 궁금해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다.

다행이 잠수고 인근으로 포장마차가 줄줄이 생겨서 생존경쟁을 벌리고 있을 때였다. 그래도 착한영구를 위해 포장마차 주인들이 영구가 눈에 띄게 되면 저녁은 먹여준다고 하니 다행이었다. 아침 겸 점심은 내가 매일 사 먹이고 있으니 굶지는 않는 편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면서 2년째 영구와의 인연이 이어져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며칠째 그 아이를 본 사람이 없다고 한다.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생겼다.

그 무렵 시에서는 포장마차 강제 철거령이 내려져 있었다. 서민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시미관이 안 좋다는 이유도 있었고 고수부지를 주차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려고 부득히 철거를 해야 될 입장에 처해있었다.

난투극까지 벌이며 맞섰지만 결국 시에서 주는 약간의 보상 합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철거를 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영구의 아지트가 없어서 버렸고 영구는 보이질 않았다. 중장비 몇 대가 매일 정신없이 가건물을 부수고 잔여물을 실어 나르느라고 어수선했다. 그날은 시장을 본 물건이 무거워서 잠시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포장마차를 철거하는 잔해 더미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옆에서는 포크레인 바가지가 움직이는 물체를 덮치려고 하는 찰나였다. 허겁지겁 소리쳐서 중장비를 세우고 달려가 보았다. 며칠째 보이지 않던 영구가 그 잔해더미 속에 누워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심하게 앓아누워 있지 뭔가, 놀란 가슴으로 정신없이 잔해더미 속에서 영구를 구출해냈다. 하마터면 그 아이는 장비에 치어 변을 당할 뻔 했다는 생각을 하니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영구를 간신히 끄집어내다 놓고 남산교 다리 밑에다가 스티로폼 조각들을 주워 모아 임시 거처를 만들고 있었다. 어쨌거나 그 아이를 살려놓고 보아야 될 목적이니까. 그때 멀리서보고 있던 감독한사람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아줌마! 지금 거기서 무얼 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다. “이 아이 임시거처를 만드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더니 “아니! 이 아줌마가 무슨 친척쫓 되는 모양인데 보살피려면 집에 데리고 가지 거기다가 거적을 치면 어떡해요! 저렇게 다들 철거를 하는 중인데 안 보여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있나 없나”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고 소리부터 지르고 있으니 나도 화가 났다. 하지만 말대꾸를 해보았자 승부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정을 해보기로 했다. “저애가 많이 아픈 모양인데 병이 나을 때까지 며칠만 좀 봐주세요” 라며 사정을 했다. “웬 이상한 아줌마네” 라며 나를 별래 보듯 보는 그 아저씨가 야속했다. 그렇게 겨우 반 강제적으로 양해를 얻어 거적을 치고 영구를 눕히고 약국으로 달려갔다. 대충 열이 많다는 설명을 해서 약을 짓고 밥과 국을 끓여서 영구한테 달려가서 먹이려 하자 고개를 돌렸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동안 굶었는지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영구를 껴안고 음식을 반 강제로 먹였다. 처음에는 안 먹으려고 내 눈만 바라보며 계속 고개를 저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살고 싶은 욕망으로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듣거나 말거나 이 밥을 먹고 약을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는다고 권하며 반강제로 입에다가 밥을 떠 넣었다. 겨우 몇 숟가락 받아먹었다. 그렇게 일주일동안 음식을 해 날라다가 안고 떠먹이며 약을 먹였더니 살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곳에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 그 애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힘써보자고 남편과 의논을 하고 다음날 찾아갔더니 영구가 감쪽같이 없어 졌다. 물론 내가 만들어준 거적도 철거해서 없어지고, 영구가 없어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디 철거하는 숲에 들어가 있다가 변을 당하지는 않았는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그렇게 애태우며 그 아이의 흔적이 내 기억 속에 혼란을 주며 몇 달이가고 몇 년이 흘러갔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던 어느 날 시장 통에서 영구와 영구 비슷하게 생긴 아이 대여섯 명을 스님이 인

솔하고 나타났다. 나는 너무 반가워서 그만 “영구야! 라고 소리치며 영구를 덥석 안아주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난 것처럼,

인술자 되는 분한테 물어 보았다. 자기들이 데리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영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을 데리고 사라졌다. 저렇게 무뚝뚝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살갑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염려 아닌 염려가 되었지만 그렇게라도 다행이다 싶었다.

행려자가 되어서 길거리를 헤매며 사는 것보다 낫겠지 생각하니 그때부터 마음이 놓였다. 영구와의 짧은 재회 그것으로 마지막 본 그 후로는 다시 만날 수가 없었다. 아마 어디선가 배굶지 않고 잘 살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 후로는 영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보았고 건강해 보인 이상 영구에 대한 미련 두지 않기로 했다.

사람이 살다보면 우연히 맺어진 인연도 어느 먼 훗날 그리움으로 남는 것 같다. 영구는 지금쯤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어디에서 살고 있든 건강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 아이의 안녕을 빌어본다.

“영구야! 사는 날까지 건강해라.

제18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주최 : 내린천예술인회

후원 : 강원도 · 강원일보사



입상자 명단 (초등부)

내역	부별	이름	소속	비고
장원	운문	권한일	기린초등학교 6-2	강원일보사장
	산문	이진하	인제초등학교 3-난초	
차상	운문	김세연	기린초등학교 6-1	인제문화원장
		최하령	기린초등학교 4-2	
	산문	송무연	인제초등학교 5-난초	
		민예지	인제남초등학교 5-한빛	
차하	운문	천다현	기린초등학교 5-2	
		이진경	인제초등학교 6-난초	
	산문	이수빈	인제초등학교 4-매화	
		허루빈	인제초등학교4-매화	
장려	운문	이효은	기린초등학교 5-2	내린천 예술인회장
		전은빈	인제남초등학교5-별	
		최윤서	인제남초등학교5-한솔	
		장선영	인제초등학교9-매화	
	산문	김재영	인제남초등학교5-한빛	
		선예림	인제남초등학교5-한솔	
		최유림	인제남초등학교5-빛	
		전예정	인제남초등학교5-한별	

입상자 명단 (중·고등부)

내역	부별	이름	소속	비고
대상	운문	유미경	원통고등학교 2-1	강원일보사장
장원	운문	정세용	인제고등학교2-1	
	산문	최보성	인제중학교3-3	
차상	운문	신지은	인제고등학교2-2	인제문화원장
		손모아	인제고등학교2-1	
	산문	김지영	인제고등학교1-2	
		허유경	인제고등학교1-2	
차하	운문	임세정	인제고등학교1-2	
		서준범	인제고등학교2-1	
		이주형	원통고등학교 1-1	
	산문	홍미선	인제중학교3-1	
		김나인	인제고등학교1-2	
장려	장려	박지원	인제고등학교1-2	내린천 예술인회장
		이수미	인제고등학교1-1	
		이태용	인제고등학교1-2	
		이소연	인제중학교3-3	
	장려	이소람	인제중학교2-1	
		양근영	인제중학교3-3	
		천송이	인제중학교3-3	
		조재중	원통고등학교1-1	

입상자 명단 (일반부)

내역	부별	이름	소속	비고
장원	운문	한영진	12사단 37연대 2대대	강원일보사장
	산문	한용현	12사단 37연대 2대대	
차상	운문	박기민	12사단 37연대 2대대	인제문화원장
		이상우	12사단 37연대 2대대	
	산문	장원	12사단 37연대 2대대	
		한승봉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차하	운문	김태환	12사단 37연대 1대대	인제문화원장
		김동혁	12사단 37연대 1대대	
		이승옥	12사단 37연대 1대대	
	산문	장덕윤	12사단 37연대 2대대	
		황문환	12사단 37연대 2대대	

우리 집

권한일

기린초등학교 6-2

아빠는

삼푸 린스 아껴 쓰시고

나는

양치할 땐 칫솔 쓰고

엄마는

그릇 씻으실 때 세제조금 쓰시고

동생은

안 쓰는 전기플러그 빼두고

우리 집의 자연생각

우리 집은 환경지킴이

자연과의 약속

김세연

기린초등학교6-1

전 나무를 사랑할 거예요
사락사락 나뭇잎 스치는 소릴
내주는 아빠 같거든요

전 강을 사랑할 거예요
졸졸졸 물 흐르는 소릴 내주는
제 엄마 같거든요

전 공기를 사랑할 거예요
휘이익 바람 가르는 소릴
내주는 제 형제 같거든요

전 자연을 사랑할 거예요
나무와 강과 공기가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릴 내주는 저희 가족 같거든요

자연과의 약속

최하령

기린초등학교 4-2

나무가 울고 있어요.
우리 모두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끼지 말아요.

강물이 울고 있어요.
우리 함께 물을 오염시키지 않을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아요.

공기가 울고 있어요.
다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걸어보아요

우리가 실천하면 자연도 웃는 날이
올 거예요

자연과의 약속

천다현

기린초등학교5-2

자연과 약속을 합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로

자연과 약속을 합니다.
동물들을 해치지 않기로

자연과 약속을 합니다.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지 않기로

자연과 약속을 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자연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기로

자연과의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제 산

이진경

인제초등학교 6-난초

하늘이 내린 인제 산
정말 하늘이 내렸는지 참 아름답다

봄이 되면 눈 녹은 산
여름이 되면 푸르고 높은 산
가을이 되면 차갑게 눈 쌓인 눈

인제 산은 넓고 크다
넓고 크기 때문에 엄마 품 같다
엄마 품 같아서 산을 보면 편해진다.

아름다운 인제 산이
천년이 지나도 지금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자연과의 약속

이효은

기린초등학교5-2

자연과의 약속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우리들
자연이 우리에게 배 푸길 원한다.

사람과의 약속

자연은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사랑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자연이 배풀어 주길 원한다.

자연은 그런 사람들을 원망한다.

자연은 약속을 지키는 대신

사람들이 도와주기를 원한다.

자연은 힘이 들어서 죽어 가는데

사람들은 죽어가는 자연이 밋기 마련
많이 베풀지도 않고 죽어만 간다.

자연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이 밋다
열심히 베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죽이기만 하는데

자연은 사람이 밋고
사람들은 자연이 밋고
그 둘 중엔 누가 잘못된 것일까?

두 가지 내 인생

전은빈

인제남초등학교5-한별

내 인생은 두 가지 이다
첫 번째 인생은
나는 나의 집 종이류에 버려졌다
이번에도 종이류에 버려졌다
착한 날 시간 착한 주인님
버리더라도 나의 집에 버려주네
착한 우리 주인님
저를 다시 써 주세요.

두 번째 내 인생
길바닥에 가엾게 버려지네.
치량하게 버려지네.
나쁜 우리 주인님 때문에
치량하게 버려지네.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다가

가엾게 씩어가네
한구석에 박혀서 조용히 없어져 가네.

아 두 가지 내 인생
여러분 저를 살려주세요.
당신들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재활용해주세요
저의 착한 주인님이 되어 주세요.
자연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연아!

최윤서

인제남초등학교5-한솔

자연아! 미안해 자연아!

함부로 꺾어서

자연아 자연아! 미안해 자연아!

우리에게 많은걸 주어서

자연아! 미안해 자연아!

이젠 내가 돌려줄게

네가 줬던 희망

네가 줬던 행복

이젠 내가 돌려줄게

자연과의 약속

장선영

인제초등6-매화

자연과의 약속

자연아 약속 몇 개 하자

내가 먼저 약속 정할게

하나 쓰레기통에 쓰레기 꼭 버릴게

두울, 꽃과 나무는 꺾지 않을게

자 이제 내가 약속하렴.

하나, 없어지지 말아줘

네가 없어지면 어떻게 살라고

두울, 맑은 공기 만들어 주렴

점점 공기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맑은 공기가 필요해

이모든 약속을 지킬게 너도 지켜주길 바래

자연과의 약속

이진하

인제초등학교 3-년초

우리는 자연과의 약속할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산촌인 인제가 맑은 공기가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인제는 나무를 많이 베지 않았습
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산을 깎아서 터널을 만들거나 가까운 거리도 자동
차를 이용해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음식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굶는 사람이 100만 명 1년에 나무가 만 오천그루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혹시 물놀이를 하다가 쓰레기를 버린 적이 있습니까? 그 쓰레기는 썩고 썩어도
다 썩지 않고 물에 들어가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버리지 않고 산을 깎아 터널을 만들지 맙시다. 물놀이를 갔다가 쓰레
기는 다시 가져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합니다. 또 부
탁을 합니다. 나무가 꽃들이 물놀이 공기들이 아프니 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
요. 자연이 아파요!

지구가 아파요! 자신이 버린 쓰레기는 돌고 돌아 공기가 되어 자신에 몸속에 들
어갑니다. 쓰레기가 아무리 다 썩어도 하여도 공기만은 을 수 없으니 까요 쓰
레기를 버리지 말고 주우세요. 나무와 꽃들이 몇 그루라도 생명을 살릴 수 있으
니까요 환경을 사랑하세요!

하루 안에 세상이 달라 보이니까요!

자연과의 약속

송무연

인제초등학교 5-난초

나는 자연과의 약속이 있다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만큼 자연을 사랑하자” 이다
나는 자연과 지키는 약속을 지키며 자연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행복하게 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칭찬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등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는 특이하단 이유로 예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꺾고 뜯고 자연에 해
를 입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을 파괴 해질 때 자연은 우리에게 좋은 향기 맑은 공기를
맡고 들이쉬고 있는데 우리는 자연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으로 우리 모두 하지 못할 짓 꺾지도 말고 뜯지도 말고 우리
가 이렇게 약속을 지켜나간다면 천연기념물도 다사 살아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식물에게 말해준다면 뭐든 기운이 납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우리와 같은 생명이란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앗, 뜨거! 지구 온난화

민예지

인제남초등학교 5-한솔

요즘 들어 뉴스에도 신문에도 지구온난화 관련 기사들이 많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한 행동들이 지구 온난화를 빠른 속도로 데려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지구온난화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남극이나 북극의 얼음이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 말이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작은 실수로 북극곰 같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구 온난화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행동들에는 에어컨이나 전기제품의 활성화 석유의 활약(중동 아프리카 사람이 석유를 많이 씀) 담배나 공장의 연기 쓰레기를 소각시키면서 나는 연기 등이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생긴 현상들 중에는 투발루 키리바시 등의 작은 섬나라들이 물에 잠기는 것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식물이 잘 못자라는 것 북극곰의 서식지가 없어지면서 북극곰의 멸종위기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에어컨 선풍기 대신 부채쓰기 양치컵 사용하기 잔반 남기지 않기 린스사용 줄이기 이런 간단한 방법들로 큰 재앙을 막거나 줄일 수 있으니 차근차근 실천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 한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 이런 것을 실천해보자

지구온난화에게 작별인사를 할 수 있을 때 까지…….

자연과의 약속

이수빈

인제초등학교4-매화반

요즈음 아름다운자연이 파괴당하고 있다 자연이 파괴되어 식물과 동물이 살지 않으면 우리 사람도 살 수 없다.

우리는 식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자연과 몇 가지 약속을 할 것이다.

첫째, 나는 박물관이나 공원의 잔디밭 또는 꽃밭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나는 자연을 파괴 하지 않게 하기 위해 꽃이나 동물 풀을 보호하고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셋째, 산불예방을 할 것이다.

넷째,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의를 줄 것이다.

다섯째, 법으로 정해져 있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할 것이다.

여섯째, 나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땅에 버려진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다시 버릴 것이다.

일곱째, 분리수거를 잘할 것이다.

여덟째, 재활용을 할 것이다.

아홉째, 일회용품을 많이 쓰지 않을 것이다.

열 번째, 물건을 아껴쓸 것이다.

나는 위의 약속을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자연과의 약속

허루빈

인제초등학교 4-매화반

자연을 위해 자연과약속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이자연은 평화롭고 따스로우 보이겠지만 우리 모두가 한걸음 한걸음 자연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 산속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 우리에게 아주 조그마한 일이겠지만 자연에겐 큰 피해가 된답니다. 그 피해가산사태와 같은 것으로 도 사람들에게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한다면 자연도 우릴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그럼 이제부터 자연과의 약속십계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자연을 지키자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거나 나무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

둘째, 천연기념물을 보호하자 예를 들자면 장수하늘소를 잡거나 죽이지 않는 것

셋째 열매를 함부로 몇 자루를 들고 오는 것

넷째, 식물들을 밟아 죽이지 않는 것

다섯째. 쓰레기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는 것

여섯째, 공원이나 산에서 담배 술을 먹지 않는 것

일곱째, 밥을 적당한 만큼만 먹기

여덟째,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로 다니기

아홉째, 쓸 자리에만 에너지 사용하기

열 번째, 일회용품 잘 사용하지 않기

.....

초등부 - 산문부 장려

지구 온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김재영

인제남초등학교 5-한빛

현재 지구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상승하여 따듯해지는 현상인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구 온난화의 문제 원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이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심각하지만 몇몇 지구온난화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지구 온난화가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멍청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2도만 올라가도 지구

에 엄청난 피해가 생긴다고 UN은 경고를 했었다 일단 다른 문제들은 해수면이 상승한다. 이 경우에는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면서 투발루 등의 화산섬들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된다. 그리고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곰 같은 얼음위에 사는 생물도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이다 그래서 햇빛이 그대로 전해져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의 피부도 약해진다. 도 물 부족 현상이 심해진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자연재해의 강도와 현상이다 이 경우에는 먼저 우리나라는 겨울이 사라지고 세계적으로는 사막이 늘어난다. 그리고 태풍과 폭우 가뭄 등이 증가한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먼지이산화탄소이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이때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주변을 덮으면서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리고 적외선도 문제가 된다. 적외선이 이산화탄소들도 잡아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의 해결방안은 가장 큰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그 방법은 화력발전소보다는 자연을 이용한 발전을 이용하고 폐기물재활용 환경친화적상품사용 신에너지 개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미래에는 모든 나라가 인제처럼 좋은 환경을 가질 것이다

독도사랑

선예림

인제남초등학교 5-한솔

대다수의 사람들은 말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요. 하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독도는 우리 한국 땅 이었죠.

하지만 일본인들은 또 말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요.

또 독도 중 한 지역에는 한반도 모형의 지형이 있죠.

그래도 일본인들은 말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요

일본인들의 적은 학자들도 말을 했죠.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그래도 일본인들은 말해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요.

오래전 독도에는 한국 사람이 살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밖에 안 살아요.

독도에 한국인이 살아도 일본인들은 말해요.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도 질수는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독도를 사랑해야 되요.

100년 후의 지구를 위해

최유림

인제남초등학교 5-빛반

얼마 전 티비에서 홍수나 가뭄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바다에서는 쓰레기들로 넘쳐나 많은 바다생물들도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날 지구는 온난화와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미래를 위협받고 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 저서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열대우림은 점점 사라지고 사막은 늘어나고 있다 도 전 세계가 기상 이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갑자기 엄청난 비나 눈이 쏟아지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홍수가 일어나기도 한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게 된다. 그렇게 되면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게 되어 낮은 섬들은 아마 잠길지도 모른다. 또 바닷물이 모래사장까지 올라와서 100년 후에는 모래사장에서도 모래성을 쌓으며 놀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기후도 변하게 된다. 서늘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이 계속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기도 하고 태풍이 불기도 한다. 지구가 더워지면 서늘한 곳에서 살던 나무는 살기 힘들고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숲이 없어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이 100년 후면 사막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버리는 많은 쓰레기 때문에 지구는 병들어 가고 있다 지구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줄이려면 물건을 아껴 쓰고 다시 쓰고 적게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은 자동차에서 내뿜는 가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 때문에 공기가 더러워지고 있다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독성물질도 공기를 더럽게 한다.

집에서는 합성세제는 물에 잘 녹지 않고 물에 들어가면 거품이 생겨서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 들이 있을까? 전기를 아껴 쓰고 쓰레기를 줄이고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으면 안 된다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쓰레기를 분리해서내다 놓고 고장 난 물건은 고쳐 쓰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고 겨울에는 높은 난방대신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등 생활 속에서의 아끼는 습관이 소중한 지구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모두가 깨닫고 온난화 없는 지구를 위해 다 같이 동참해야겠다.

다케시마 아니고 독도

전예정

인제남초등학교 5-한별

다케시마 잘못된 말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독도랑 울릉도 우리나라인 곳 진술서를 받아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지고 왔다.

논리적으로 우리나라 국경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로 더 많이 되어있고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인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는 것일까? 우리나라 인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에는 독도가 황금어장이고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가 너네 땅이라고 우기지만 말고 정확한 증거를 대 보아라. 일제 강점기가 지난 지금 정확히 우리대한민국 땅 이라고 되어 있자 않느냐. 그리고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 둘 다 우리 땅이라고 문서를 받아왔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독도에 대해 역사적으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약속

유미경

원통고 2-1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다
높고 흔들리지 않는 푸른 그에게
작은 몸짓으로 살아숨쉬는 그들에게 말한다
해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늘 푸른 그들에게 약속을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한다
높고 푸른 것을 해치려는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을 해치려는 우리가 말한다
해치지 않겠다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늘 푸른 그들에게 약속을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말이 없다
온갖 거짓으로 둘러 쌓인 우리에게
상처받아 아스러진 몸으로 그들은
말없이 고요한 눈물만 흘린다

자연과의 약속

정세용

인제고 2-1

어둡다

풀빛 녹색의 그 내음

밤하늘엔 별이 없이

춤고 떨리 운다

하늘 새벽엔

파란 꿈들이 지상에 내려와

푸르스름하게 쏟아 지던 곳

한낮에도

샤르르 바람아

산뜻한 나무들의 그늘아

아! 풀빛 녹색의 그

하지만 이제

화려한 아침은 갔다

아침이 지난 이 순간

지금은 지금은 자연이 너무 싫어

지금의 자연은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왜일까

자연과 약속하면

우리는 서로 같은 것인데도

반딧불이와의 비밀

신지은

인제고 2

어릴적

동네 친구들과 함께한

숨바꼭질

내작은 몸 뽕뽕 숨기고자

깊숙이 깊숙이 숲속을 파고들다

처음 마주한 반딧불이

책에서만 보았던 너는

나에게 생애 첫 비밀이 되었다

사람들이 너를 찾아오면

더 숨을까봐 다시는 이런

자연에서 너를 마주할수 없다는

생각에 슬퍼져서

그날

너는 내 비밀이 되었다

자연과의 약속

손모아

인제고 2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사는 곳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내가 마시는 공기가
늘 깨끗할 수 있도록
내가 놀러오는 내 물가의 물을
내가 마실수 있도록
내가 밟는 내 땅을
내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대신 이번엔 내가 널 지켜줘
도로에서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산에 사는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산에 사는 내 친구들이
잘려 나가지 않도록
별에 사는 내 친구들이
사는 곳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가 지켜줘

아직 넌

임세정

인제고 1

아직넌 여기에 있다
그래서 널 빼앗길수는 없다
내 지금널 위해 할수 있는것은
비록 네 이름을 외치는 것 뿐이지만
내 지금 널 위해 목 놓아 울 수는 없지만

그에게 너를 빼앗기는 날
내 얼마나 후회할지를 알기에
내 오늘도 너를 외친다

지금은 우연의 외침이지만
내 언젠가 그의 앞에 서서 외치겠노라

아직 넌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땅 우리의 독도라고
내가 널 지키겠노라고

살구미 반딧불이

서준범

인제고2-1

내가 어릴적
우리집앞 마당에 누워
하늘을 바라볼때

반짝이는 별들사이로
날아다니던 작은별들

깨끗한 이슬을 먹고
아름다운 별빛을 하늘에 수놓은 작은별들

내가 커버린지금
어릴적 보던 작은별들은 사라지고
외로워진 캄캄한 하늘
다시 작은별들이 어두운 밤을 밝힐수 있게

하늘을 아름다운 별빛으로 수 놓을수 있게...

나는

이주형

원통고 1-2

나는

낙엽이고 싶다
가을날 반짝이는
내린천 강물에
둥둥 떠다니고 싶다

난

영롱한 가을빛 익어가는
그런 내린천에 비친
나는 그런 구름이고 싶다

햇볕이고 싶다

말없이 우는 내린천 물살에
산산히 부서지는
햇볕이고 싶다

흘러가는 내린천

언뜻 내린천 하늘에 그저 잠기고 싶은
나는 낙엽

독도

박지원

인제고 1-2

빼앗길 듯 말 듯하며
한반도의 아침을 기다려준 독도
어찌다 이러한 아픈 설움을 겪었는가

한 민족의 성장이 뜨겁게 뛰는 독도
소중한 우리 땅
피흘려 지킨역사인데
쉬이 넘길수가 있으랴

한번을 다뜻이 안아주디 못해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건들지 마라

한반도의 피붙이 이거늘

인제의 그는

이수미

인제고 1-1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설악산 눈이 녹으면
천렵가던 시절도
이젠 추억이 됐다던 그는

전란으로 폐허가 된
인제를 생각하며
울며 시를 쓰던 그는

나와그의 고장
인제의봄을 기다리던 그는

그는
박인환입니다
집 바로 앞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시대를 몸소 느끼고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인제의 봄은
지금 오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연과의 약속

이태용

인제고1-2

자연은 준다
삶을 주고 행복을 준다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
자연은 준다
먹을것과 마실것을
인간은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준다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하지만 자연은 받는다

인간은 준다
벌목과 파괴를
그래도 자연은 받는다
내몸이 상할지언정

인간은 알고있다

자신이 욕심부린다는 것을
인간은 알고있다
자연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프다는것을

자연은 원한다
조금의 배려와 욕심부리지 않는것을
인간은 보답한다

근검절약과 배려로 자연은 원한다
사랑과 관심을
인간은 보답한다
관심과 사랑으로

약속할게요

이소연

인제중 3-3

그대와 약속 할게요.
푸른 생명이 피어나는 봄
그 아름다움을 꺾지 않겠노라고

그대와 약속할게요.
황금빛 바다가 일렁이는 여름
그 빛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그대와 약속할게요.
붉게 물든 낙엽이 쌓이는 가을
그 낙엽을 함부로 쓸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그대와 약속할게요.
난방이 필요한 차디찬 겨울
그 따뜻함에 취해
그댈 아프게 하지 않겠노라고...

고양이에 관한 진실

최보성

인제중학교 3학년 3반

환경은 점점 변하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는 항상 무언의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 왔을 때, 집 마당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언제나 알미운 얼굴을 하고 다녔던 그녀석의 주특기는 음식물쓰레기통 헤집어놓기였다. 어머니는 녀석을 눈엣가시로 여기셨고 그녀석이 나타났다면 쫓아버리기 일쑤였다. 처음 이사 왔을 때 슬그머니 도망가 버렸으면 좋으련만, 녀석은 발코니 밑에 굴을 파놓고 제집인양 드나들곤 했다

소란스러운걸. 싫어하는 나 또한 그 녀석을 싫어했고 내 앞에 나타났다면 소리를 질러 쫓아버리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분리수거 하러 뒷문으로 나갔을 때 그 녀석을 보았다.

혹시라도 위험이 닥쳐오진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새끼들을 토굴 안으로 옮기는 녀석……. 녀석은 엄마였다. 그 후에도 발코니 창문 밖을 바라보다 녀석과 마주치곤 했다. 그때마다 생기는 몇 초간의 응시…….

그때만큼 조용했던 때는 별로 없었다. 입술을 앙다물고 눈을 부릅뜬 녀석의 얼굴은 마치 독립투사를 보는듯했다.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가라 마라 하는 거야! 여긴 내가 먼저 살았어!’
라고 외치는 듯하다 녀석의 표정을 볼 때마다 마음이 뜨끔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언제부터인가 녀석을 볼 수 없게 되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제 살길을 찾아 갔을까? 그 짧은 시간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익히긴 어려울 텐데…….

그 녀석을 생각하면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생각에 빠지곤 한다.

‘우리가 그 녀석 집에 사는 걸까, 그녀석이 우리 집에서 살던 걸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합당한 금액을 지불했으므로 집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 하지만 녀석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살던 곳에
시끄러운 불청객이 쳐들어와 자신을 쫓아냈을 뿐이다.

아버지가 마당의 잡초를 뽑는 것과 녀석이 쫓겨난 건 어찌 보면 똑같다.
눈에 거치적대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과연 옳은 일일까? 녀석도 생명을 가진 자연의 일부이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처럼 그녀석의 생존권도 마땅히 존중되었어야 했는데 우리는
잔디밭을 성가신 잡초를 뽑듯이 그 녀석을 우리 집의 마당에서 뽑아냈다.
그저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언젠가 길에서 그 녀석과 마주치면 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나 ‘잘사
쇼?’ 하는 녀석의 비아냥거림을 들을 것 같아 속마음이 저러온다.

푸른 마귀

김지영

인제고등학교 1학년 2반

사람들은 주장해
환경을 살리자! 지구를 되돌리자!
하지만 그들은 푸른색의 말들뿐.

이미 내 몸에는 상처가 많이 나있어. 몸이 조금씩 건조해지고, 몸 곳곳에 아물지 못한 상처가 너무 많아.

너희들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밉지 않아. 내 몸에서 사는 나의 친구들이 비록 푸른색 마귀일지라도. 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조금만 더 아끼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약속해 줄 수 있지? -지구가-

지구야 너의 편지 잘 읽었어.
너에게 못된 짓 많이 해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너의 품에 살면서
푸른 것들을 실천하도록 약속할게!
미안하고, 고마워! -너의 친구들이-

자연과의 약속

허유경

인제고등학교 1학년 2반

먼 옛날, 우리가 가늠하지 못 할 시간부터 인류는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함께 살아왔다. 자연과 동화되어 자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살았던 인류는 점차 그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비로소 인류의 문화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뛰어난 발명품과 아이디어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얻은 것들이다.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자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우리지만 과연 우리가 자연에게 해 준 일은 무엇인가.

언젠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마지막 남은 나무 밑동까지도 이제는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소년에게 내어주는 나무의 헌신에서 나는 자연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보았다. 나무는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결국 소년에게 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모습을 보며 나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 무분별한 개발로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하고 물자를 얻어가면서 그 기술로 사라져 가는 자연을 지키는 일은 개발 다음이라며 미뤄버리기 일수이다. 정말 이 시점에서 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일까

내가 어릴 적 나는 도덕 시험을 봤다 하면 100점을 맞아오는 아이였다. 그 도덕 시험에서는 항상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 자연을 지키는 방법을 물어 보았었다. 지금은 생각도 나질 않는 그 답안들을 내가 과연 지켜본 적이 있는가. 실천으로 옮겨본 적이 몇 번이나 있는가. 어쩌면 지금도 실천 가능한 거들을 미뤄버리고 있

는 것은 아닐까. 나는 이 글을 쓰며 자연과 약속하고 싶다. 너희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겠다고.

비록 너희는 나와 얘기 할 수 없어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처럼 이 약속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나는 지금 너희들과 약속한다.

.....

중등부 - 산문부 차하

자연과의 약속

홍미선

인제중학교 3학년 1반

아침부터 내리 쏘아대는 햇빛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절로 눈이 떠졌다. 눈을 비비적대며 거실로 나가자 아빠께서 어느 때보다 반가운 목소리로

“딸! 잘 잤나? 얼른 발 가게 준비해”

“네? 네.”

가기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요즘 들어 일손이 부족하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아빠께서는 비 때문에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셨다. 나는 일명 ‘농땡이’ 를 치고 그늘로 갔다. 고랑 끝마다 피망의 줄기만 외로이 남아있었다.

“아빠! 왜 끝에는 피망이 안 달려 있어요?”

“야생동물들이 내려와서 뜯어먹은 거. 동물들도 불쌍하지.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숲이 동물들 집이잖아요. 불쌍하다.”

“요즘 자연의 중요성도 모르고 나무들도 다 벌목해가고. 그러다 천벌 받지 쫓쫓”

아빠의 눈빛은 웬지 씩씩해 보였다. 벌레가 자꾸 모여들어 뒤로 돌아보니 오래된 듯하다. 동물의 시체가 보였다. 섬뜩 했다. 안타까웠다.

동물들이 보호받고 안전해야 할 곳이 이곳인데 정작 동물들은 이곳에서 위협받고 있다. 왜 사람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만큼 돌려줄 줄 모르는 걸까. 오늘따라 살살 불고 있는 바람이 황량하게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았다.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언제쯤 자연이 마음을 풀어줄까.

“아빠, 동물들에게 도움 될 것 없을까요?”

“내일 먹이라도 놓아주러 갈까?”

“네! 좋아요~”

이제 조금이라도 용서를 구해보려 한다. 이 황량한 바람도 오늘이 끝이기를 바란다. 동물들과의 약속이며 자연과의 약속을 위해 나부터 몸소 실천해야겠다. 보여줄 것이다.

단풍

김나인

인제고등학교 1학년 2반

지금 내 앞엔 작은 불에 익혀지는 듯 한 붉어진 잎들이 있다. 더 올려다보면 나무도 그렇고 산 또한 그렇다. 이것은 약속이다. 가을이 되면 타오르되 겨울이 되면 이별하고 봄이 되면 더 아름다워져서 만나겠다는 약속 말이다. 당연한 이치겠지만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자연은 우리와 다르다. 은행나무 밑에서 놀던 일 내 경험이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에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 노랗다. 함박눈 내리듯이 은행잎이 내려진다. 그 잎들을 친구들에게 밟지 않게 던지며 까르르 한다. 새록새록 하다. 매년마다 지켜진 약속이다. 언젠는 또 그랬다. 어머니와 여행을 간다. 미시령을 넘어 아직 이름 모르는 바위산을 본다. 언제 봐도 크다.

“크지?”

어머니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다.

“멋있지?”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다. 그 바위산은 항상 크고 멋있었다. 변함없다. 항상 지켜져 온 약속이다. 그 약속. 내가 가장 좋아라. 하는 자연의 약속이다. 평생 변함없이 아름답겠다는 약속이다. 그 약속. 우리에게도 있는 약속. 평생 아름답도록

지켜줄게.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다. 슬프다. 심지어 우리는 자연을 시시하게 보고 있다. 멋진 빌딩과 고급 승용차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어버렸다 그 빌딩과 승용차는 내 앞에 크게 서서 자연을 가린다. 나 또한 어쩔 수 없다. 약속을 어긴다. 지켜주기엔 내 앞에 크게 서 있는 그들을 외면할 자신이 없다. 그래서 또는 그러나 나는 자연에게 감히 약속한다. 내 비록 널 지키지 못하지만 잊지 않을 거라고, 나도 변함없이 평생 너를 보며 생각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거라고. 이 글의 제목을 고민하다 지금 내 앞에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아직은 파릇한 저 잎을 보며 제목을 단풍이라 짓고 약속한다.

자연과 나는 하나

이소람

인제중학교 2학년 1반

오늘 환경백일장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부터 고민을 했다. 그리고 조금 전 까지도 자연이 무엇인지 고민을 했다. 정자에 앉아 생각을 하다가 문득 하늘을 보았다. 하늘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다. 마음속에 무언가가 사르르 녹았다.

‘이것이 자연이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 나의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하늘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논길을 걷는 것을 좋아했다. 하루는 논길을 걸으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때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에 빠져 바라보다가 중심을 잃고 눈에 빠지고 말았다. 울면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나는 그만 입이 짝 벌어졌다. 하늘과 산, 그리고 땅이 그림처럼 내 눈앞에 펼쳐졌다. 내가 걱정이 된 친구는 엄마를 불러와 나를 꺼내주었다. 그때 집으로 가면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엄마, 나는 자연이 될 거 예요.”

엄마는 요즘도 가끔씩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웃으신다. 눈에 빠지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나의 그 말은 진심이었다.

누구나 나처럼 자연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꼭 자연이 아니라 꽃, 나무등과 같은가 말이다.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는 것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준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자연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주고 있을까? 무엇하나 주고 있긴 한 것일까? 우리가 지금 자연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가지 이다. 자연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이다. 저 맑고 높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소리쳐본다.

“너와 난 항상 함께야. 우리도 자연이니까. 세상이 변해도 자연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그리고 이러한 나의 소원,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내일도 간절히 바랄 것이다.

사랑을 담은 꽃

양근영

원통중학교 3학년 3반

학교가 끝나고 우리 집에 오면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나를 반겨주는 우리 강아지 똥이는 항상 우리가 흔히 부르기로 하트꽃, 금낭화꽃 옆에서 나를 향해 반가움을 표현하곤 했다. 늦은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올 때 즈음 우리 강아지와 함께 우리 집 앞에 있는 일명 정글을 탐험하기로 하고선 늦은 채비를 갖추고선 모험에 올랐다. 마냥 신이 났던지 똥이는 내걸음을 한참 앞서서 뛰기 시작했고, 나는 그 뒤를 숨을 헐떡이며 쫓았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 소리, 우리 집만의 특유의 흙내음, 모든 것이 내 귀와 눈등 모든 감각을 자극했다. 나는 공상에 잠겨 낮을 놓고 초점 없이 먼발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 경!”

나를 부르는 똥이의 목소리가 들린다.

“곧 갈 거야, 기다려!”

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똥이는 이내 나를 뒤로하고선 다시 뛰어가기 시작했다. 정글 속으로 사라져 가는 똥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금 정글의 경관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한참을 정글에 현혹되어 있을 때 즈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리 와버렸고 길을 잃었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 때 즈음, 똥이의 뒷모습이

보였다. 똥이는 무엇인가를 향해 머리를 처박고 있었다.

"부스럭 부스럭"

문득 내 귓가를 의심가게 하는 소리가 들렸다. 똥이를 향해 한 발자국씩 천천히 다가갔다. 슬며시, 조금씩, 그 순간 이었다. 똥이가 나를 향해 고개를 획 하고 돌렸다. 나는 그 순간 놀랐지만 이내 숨을 돌리고선 다시금 다가갔다. 손으로 똥이가 고개를 처박고 있었던 곳을 들추어내며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랑이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정형화된 사랑 금낭화였다. 우리 집 화단에서만 피는 줄 알았던 그 꽃이 나와 똥이의 마음의 공간이 된 정글 속에서도 피어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고 똥이와 함께 넋을 놓고선 금낭화를 바라보았다. 순수한 어린 나이였던 나에게 금낭화는 내가 느끼는 사랑, 그 자체였다. 내가 똥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

“금낭화처럼 평생 같이 살자!”

하고선 똥이에게 속삭였다. 똥이도 내말을 알아듣는 듯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두 개의 꽃잎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 금낭화엔 일면 나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지 못할 눈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 집의 귀염둥이 똥이 어린 시절 나에게 있어선 반쪽 같은 친구와도 같았던 똥이는 불시에 찾아온 사고로 인해 눈을 감고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길을 걷다 금낭화를 보면 문득 그 시절의 내 모습이 생각나서 가던 길을 멈추고선 추억에 잠기곤 한다.

나에게 있어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사랑을, 길을 걷다 종종 눈에 띄는 흔한 꽃을 나는 그 시절을 추억하며 아직도 그 꽃을 사이에 두고선 한걸음 두 걸음 내딛어 푸르른 여름으로 향하고 있다. 어린 시절 순수한 사랑을 품은 채 말이다.

자연과의 약속

천송이

인제중학교 2학년 1반

나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자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산을 오르면 내게 보여지는 자연이 예쁘다고만 생각했다. 바다에 가면 ‘바다는 정말 넓고 재미있네. 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과 관련 있는 캠프를 자주 가게 되었고 걸스카우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자연에 한걸음, 한걸음씩 다가가게 되었고, 자연과 한 계단씩 오르며 친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만의 특유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2009년 환경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천연재료로 손수건을 염색하는 등 다양하게 자연과 활동을 하며 자연만이 줄 수 있는 선물과 자연의 소중함, 자연의 실태 등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자연과 관련된 행동을 할 때면, 내가 편한 것보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항상 자연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 이제는 주위사람들도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다. 또한 내가 버린 것이니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자연과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어느 순간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내 점퍼주머니에는 항상 쓰레기가 가득치 있다. 사실 지금도 내 주변에는 김밥, 나무젓가락, 페트병들이 바람을 타고 굴러다니고 있다.

오늘도 역시 내 주머니에는 쓰레기들로 넘쳐날 것 같다. 오늘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한 자연과의 약속이 환경보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을 만들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쓰레기 줍기! 나는 오늘 내가 만든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중등부 - 산문부 장려

그대와 약속

조재중

원통고등학교 1학년 1반

“그대가 슬피 울면, 나 역시 슬피하리라.”

배가 내렸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는 모든 대지를 집어삼키려고 했다. 움직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곳은 어느새 오직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만이 남아 있었다.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바람이 그것의 허리를 스쳤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그것의 머리를 쥐어 잡고 마구 흔들어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을 화나게 만든 남자에게 여인이 화풀이 하는 것과 같이 보였다.

“난 네게 내 모든 걸 바쳤어. 널 위해서 네 안식처도 만들어 줬고, 네가 굶주리지 않게 하려고 먹을 것도 주었어.”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을 향해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막아내며 얼굴만 찌푸렸다.

“그런대도 넌, 날 고통스럽게 하기만 했지! 내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어.” 그는 혼자 힘만으론 버티기 어려웠는지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다 이내 자신의 등 뒤에 있던 커다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는 얼른 그 뒤로 숨어들었다. 그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그녀의 품속으로 것이다.

이내 얼마 지나지 않아 비바람이 잦아들었다. 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햇볕까지 내리 쬐었다. 그녀가 다시 한 번 그를 용서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느꼈다. 그의 몸을 감싸는 햇볕에 탁함이 스며들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탓이라는 것을, 그는 깊은 한 숨을 내쉬었다. 또 다시, 그녀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녀의 용서를 받았다.

그는 이 햇살의 따사로움을 받으며, 이 따스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다. 그리 생각하며 자리를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지켜주었던 나무의 허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다. 지켜주겠노라고.

자연과의 약속

한영진

(12시단 37연대 2세대)

계절이 무르익을때
자연아 약속해다오
빠알간 표정으로
기교를 뽐낼때에
꽃봉오리 머금은
아이들의 흠장난을
아파하지 말아다오
두 팔 가득 태양 같은
아가들을 품었을 때
저 어딘가 달려온
가슴 같은 내 눈물에
흘러가지 말아다오
노을 지는 불꽃아래

한껏 타오를 때도

외로운 검은 한숨에
날아가지 말아다오
양상한 손목으로
힘겹게 서있을 때도
쏟아지는 두려움에
다시 한 번 버터다오
나의 자연아
약속해다오

앞이지며 말하기를

박기민

(12사단 37연대 2대대)

가을이 겨울을
마중나간 사이
길을 걷던
나의 어깨에
적갈 빛 낙엽이
내려앉아 말하기를

잠깐 어깨를
빌려주오.
내 길을 잃었소.
바람이 몸을
할퀴어 대는 까닭에
벗들을 만나
바람이나 피하며
지난여름을
조잘거리려는데

이거 원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가 없소
예컨대
언젠가 왔었던
당신과 비슷한
모양새의 것들이
벗들의 집을
모조리 베어간
까닭인가 싶소.
오랜 벗이었던
솔잎은
이곳에 있을 거라
일러주었는데
여긴 당신뿐이로군
내 기운이 없어
이곳에 누워
벗들을 기다려 보려고 하니
혹 내 처지의 것들을 보시거든
나 여기 있노라고 일러 주시오
낙엽은 어깨를 떠나
땅으로 내려앉으며
조용히 바스러져 갔다.

백두대간 향로봉

이상우

(12시단 37연대 2세대)

미지의 세계 펼쳐지는 봉우리
계절이 나누어지지 않는
그 곳은 나의 집
봉우리 중간쯤엔 안개 끼면
집에선 모두 다 신선이 된 기분
세상을 다 가진 듯 산뜻한 느낌을 맞이한다.
동·식물들이 차원을 넘어
볼 수 없던 풍경을 볼 수 있는 향로봉
겨울은 나에겐 지옥을 안겨준다
제설하다보면 옆에는 커다란 빙산을 보여주고
눈삽을 타고 썰매를 타면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움을 보답해주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 집인 향로봉
백두대간 일만 이천 봉
민간인 통제구역에 근무하는
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이로다.

독도사랑

김태환

(12사단 37연대1대대)

언제나 그 자리에 홀로 서 있는 망부석처럼
누구를 기다리는 것인가 등대여
아침의 찬바람과 따가운 햇볕에도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가.
언제나 그 자리에 서있는 천하대장군처럼
무엇을 지키는 것인가 등대여
외세의 침략과 사람들의 무관심에도
무엇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우리는 척박한 세상의 이기 심속에
우리 모두의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이 미련한 등대처럼 독도를 지키려는 소수의 미련한 마음이 조금만 더 커진다면
우리의 땅 아니 나의나라 한국의 땅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계절의 약속

김동혁

(12사단 37연대 1대대)

청아한 하늘과 찬란한 햇살 화려한 단풍으로
사랑을 표현하던 너는 다가오는
매서운 추위에 이별을 직감했는지
그렇게 새벽부터 이슬을 흘렸나 보다
나는 알지 못했다
그토록 찬란한 슬픔으로
내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는 미련하게도 알지 못했다
항상 맑은 하늘과 맑은 단풍으로
화려함을 뽐내던 네가
모두가 잠든 새벽이슬을 흘리고 있음을
그런데도 나는 네가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갔을 때
그제 서야 너를 그리워하겠다.
그러다 문득 네가 너무나도 그리웠던 순간

너도 내가 그리운 것처럼 하얀 눈물을 흘리던 순간
그리고 처음부터 네가 내게 돌아오려 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순간
나는 너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무관심을 쓸고 안이함을 담고 이기심을 닦아
네가 돌아올 곳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다시 한 번 내게 찾아올 너의
초록빛 미소와 시원한 살결
그리고 뜨거운 입맞춤
그 모든 눈부신 사랑을 그리며

흐르는 약속

이승옥

저 강의 물과 약속했지
이곳에 함께 하자고
내 맘은 마르지 않는다고
그는 흘러가겠지 나와의…….
약속을 잊은 채 그의 길로 계속 내려가겠지
그를 잡으려 해도 그는 돌아서지 못하겠지
이곳에서 있겠지, 계속 그가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익숙한 그를 기다리며 혼 자한 약속을 지키겠지
등 뒤에서 비취는 등대를 무시하면서

자연과의 약속

한용현

(12사단37연대2대대)

지난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아마도 군대에서 맞는 첫 여름이어서 더욱 그랬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향로봉에 올랐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은 그야말로 땀으로 흠뻑 젖었다 들고 있던 소총이 천근만근으로 느껴질 무렵, 정상에 진지가 저 멀리 보였다

‘와!’ 그곳에 서면 탄성이 절로 나온다. 먼저 정상에서 펼쳐지는 금강산 굽이 굽이 봉우리들의 모습과 저 멀리 보이는 동해바다는 나를 아무 말 없이 넋을 잃고 바라보게 한다. “이렇게 멋진 산에서 저렇게 예쁜 금강초롱을 볼 수 있는 곳이 높은 산에서 저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여기뿐이야” 마침 백두대간 종주의 마무리를 장식한 한비야 선생님이 동행하면서 한말이었다.

백두대간의 장관과는 별도로 놀란 것이 있다. 바로 정상에 있는 커다란 신행막사였다. 해발 1292미터 고지에 구름이 눈앞에서 넘실대며 지나가는 이곳에 상상도 못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 곳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인터넷에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의 힘이란 정말 놀랍구나. 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다 커다란 군용트럭도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을 이

산에 낸다는 것 정상의 나무들을 베어 그 자리에 이렇게 편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에 자연도 얼마나 큰 고통과 수고를 감수해야 했을까? 향로봉 깊은 산속에 핀 이름모를 야생화들과 고라니 노루 그리고 들짐승들은 얼마나 놀라서 다 사라졌을까?

모든 생각의 근원적인 해답은 결국 남북분단의 현실에 있다. 향로봉 너머 저 북쪽으로 총을 겨누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이 아름다운 백두대간도 단지 경치로만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연으로서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가을 단풍이 한창일 무렵 향로봉에 다시 올랐다 유난히 무더운 여름을 보낸 까닭인지 단풍이 무척 붉었다 향로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도 향로봉인 민통선 북쪽의 이 땅과 자연에 약속을 하고 싶다.

내린천 사랑

장원

(37연대 2세대)

내설악에서 흘러내리는 청량한 물과 천혜의 주변 경관이 어우러져있는 인제 내린천은 우리나라 최고의 래프팅 명소이다.

대학시절 체대생인 나에게 선배들이 여름 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했다 마침 친한 동기들도 같이 하자고 꼬드겼고 대학생 때 무언가 추억도 만들 겸 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내가 하기로 한 아르바이트는 바로 내린천 래프팅 강사 이었다.

워낙에 물을 좋아하는 내게 정말로 딱 맞는 아르바이트 이었다 특히 태어나 처음 본 내린천의 모습은 하늘이 인위적으로 빛은 듯한 천혜의 경관이라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 뛰어난 경관을 바라보던 중 문득 무언가 네게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었다. 그렇게 강사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마치고 첫 손님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다. 첫 래프팅은 무난하게 끝났고 처음이었기에 그 성취감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일했을까? 손님을 기다리던 어느 날, 멀리서 후광을 비추며 걸어오는 여자를 발견했다. ‘제발 내배에 타라’ 고 두 손 모아기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내 배에 탔다, 첫눈에 반하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겼

던 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러한 생각이 모두 사라졌다. 어쨌든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난 결국 그녀를 잡았고 그녀는 내 첫사랑이 되었다. 이렇게 좋은 추억을 내게 선물해준 내린 천을 5년이 지나서야 다시 찾게 되었다. 예나지금이나 변치 않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내린 천을 보니 그때 만났던 내 첫사랑 그녀가 생각이 났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녀는 내린 천이 내게 준 선물이 아닐까 싶다. 언제나 내리 사랑만 주시는 어머니처럼 내린 천도 내게 한번의 화도 없이 언제나 사랑만 베풀었다. 이제는 관광객, 지역주민 그리고 팬으로서 내리 천을 응원할 때가 아닌가 싶다. '내린 천 사랑해! 고맙다!'

자연과의 약속

한 승 봉

(인제읍 남북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비아냥거리는 말 중에 코리 안타임이라는 말이 있다.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빗대어하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비단 시간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다. 간단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키거나 가연성과 불연성쓰레기를 요일별로 나누어서 내어놓는 사소한 약속까지도 쉽사리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 해에 여의도만한 땅덩어리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분리수거는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인 것이다.

오래전 어느 가수가 앨범을 내어 놓았던 기억이 난다. 남자가수가 아름다운 미성을 내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더욱 인상 깊었던 것은 그 앨범에 담겨있던 노래가사가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고 당연한 그이였음에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상기시켜 주어 유독 기억에 깊은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것이라는 가사내용이 너무나 뇌리에 깊숙이 남아있어, 오늘 기억을 되살려 보게 되었다.

후손들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연을 제대로 그대로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스스로가 약속을 잘지키는 사람이 되어야할 것이다. 기름 묻은 식기는 종이에 닦아서 1차 세척을 하는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누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약속하고 다짐한대로 실천한다면, 소중한 자연을 잠시 빌려 쓰고 원상태로 돌려주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최근 부쩍 생겨나고 있는 많은 재해들이 자연을 제대로 지켜주려는 약속을 깨뜨린 것에 대한 자연의 경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무분별한 탄소발생량 증가요인을 촉발한 인간들에게 자연은 태풍과 토네이도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가로 다른 어느 해보다 더 크고 강력한 태풍을 만들어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다. 앞으로 더욱더 큰 재앙으로 인간에게 자연을 훼손한 양갓음이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후손으로부터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한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생각이다. 이제 뒤늦게나마 사회각계 각층의 노력들로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존하려는 일련의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는 어린이들의 모습에서 미래가 결코 어둡지 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동안 제대로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에 대하여서도 스스로 반성을 해본다.

면면이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의 걸을 지켜주는 설악산과 수려한 내린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자라나는 아이들과 후손들이 온전히 물려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해 본다. 아직도 컷가에 맴도는 노래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은, 후손으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것이니 깨끗이 사용하고 돌려주어야한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전도사가 환경운동가가 실천가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적응하는 환경

장덕윤

(37연대2대대)

환경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자연환경 또는 인간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란 것이 있다. 나는 후자에 대한 환경을 말해 보려한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바뀌는 환경에 적응하려면 누구들 힘이 들고 부적응시 삶의 의욕까지 잃어버리는 큰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 사람이 자라면서 환경은 계속 바뀌게 된다. 가정환경 사는 곳의 환경 또한 교육환경까지 많은 것이 변화되며 특히 어릴 때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느냐에 그 사랑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크게 영향을 주는가. 그것이 환경이다.

좋은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배우고 자라난 사람은 그것이 익숙해지며 나쁘거나 부당한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은 그러한 것이 당연한 거라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나의 삶의 환경을 예시로 말해보면 나는 도시에서 자라고 형제 없이 외동으로 자랐으며 조금만 추위도 감기에 걸리는 약한 사람이었다. 이로 인해 혼자 있는 것이 좋았고 핸드폰이나 전자기기가 없으면 살 수 없었으며 가을인데도 두껍게 입고 다녔다. 하지만 현 군 입대를 하여 집이란 환경에서 바뀐 후나 역시 달라졌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자살생각까지 들었지만 몸과 정신이 적응되며 생활하기에 아무 불편함이 없다.

이렇듯 사람은 환경에 적응하고 변화한다. 요즘사회는 점점 삭막해지는 환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적응되지 않고 좀 더 밝게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고 사람간의 정이 넘치는 환경으로 변하여 그것이 적응되며 인류전체가 바뀌었으면 한다.

자연과의 약속

황문환

(12사단 37연대 2대대)

가을! 단풍도 붉게 물들고 산도 옷을 갈아입을 때면 산만 바라봐도 기분이 좋고 마음도 맑아진다. 최고의 풍경을 자랑하는 강원도는 매년 가을 단풍놀이를 즐기 위한 줄이 끝없이 이어진다. 나 역시 얼마 전 외박을 신청하고 가을 을 즐겼다. 부대를 나서면 경치 좋은 곳에 숙소를 정하려고 생각했지만 부대 밖 모든 풍경이 그림 같은 곳이라 멀 리갈 필요를 못 느꼈다. 백담사인근에서 경치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사진 찍고 노느라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맑은 계곡물은 보기만 해도 답답한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을 느꼈다. 게다가 몇 개월 만에 보는 가족얼굴에 한결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적어도 숙소 주변의 풍경을 알 기전까지 말이다. 저녁식사 준비를 위하여 음식을 나르고 있을 때였다. 낚시꾼들이 있어 물고기 구경을 해 볼까 하고 근처로 가 보았다. 낚시꾼들은 사람이 오는 것을 느낀 것인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계곡물로 던졌다. 계곡물을 보니 이미 수많은 담배꽂초가 내려져있었다. 혹시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맥주 캔, 먹다버린 과일, 휴지등 많은 쓰레기가 눈에 보였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모습에 기분이 매우 나빴다. 즐거운 여가시간이 한순간에 변하였다. 사실 생각해 보면 나 역시 욕할 처지가

아니었다. 입대 전 여행을 갔다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땅에 침을 뱉는 행동을 수없이 했던 나 옆기에 낚시꾼들의 모습에 내심 나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저녁 식사 후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빠졌다. 반만년 이어온 아름다운 우리 땅의 자연을 지켜주신 선조들처럼 현재 우리들도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을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까? 나 자신은 환경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가? 수많은 생각을 하며 결심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소한 것부터 자연환경을 지키자고, 오늘 백일장을 쓰는 것을 시작으로 자연과의 소중한 약속을 해본다. 후손을 위해 더 나은 자연환경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나의 살던 고향에는 보문이와 보문이색시 모두 떠나보낸 집 기왓장엔 소금버캐만 그득하다.

제4장



Inje Culture

향토문예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풍경

한용운

마른 향내 나는 / 갈색 연필을 깎아 / 글을 씁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끝씨를 / 몇 번이고
지우며 /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을 깎아도 / 단정하고 깨끗한 한 자루 연필
처럼 /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살아 있는 연필 / 어둠속에서도 빛나는 말로 / 당신
이 원하는 글을 쓰겠습니다
진정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 당신을 위하여 소멸 하겠
니다

..... 살아 있는 날은 내가

* 인제 내설악 아파트 쓰레기장에 찢겨 버려진 어느 여인의 일기장입니다.

필자는 오늘도 내가 살아 있는 날에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풍경을 아름답게 그리며, 당신의 살아 있는 그 마음에 내 사랑의 글을 씁니다.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요,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인 동시에 또한 그 가치의 전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의무는 올바르게 생각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 생각하는 범위는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와 자기 인생의 사는 목적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가치는 그가 마음속에 존재 의식으로 품고 있는 이상(理想)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먼 곳을 바라보며, 그 미래 속에 감추어진 꿈의 이상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옳은 것입니다.

좀 더 새로운 세계의 아름다운 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향해 더욱 보람 있는 현실을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풍경으로 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들 삶에 맑고 고운 꿈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때 묻은 현실의 어려움이며, 두려움 같은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겠는가? 더구나 죄가 관영한 풍진 세월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그 많은 재해, 재난, 사고, 사건들과 마치 채찍처럼 가해오는 병고, 질병들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을 것 인가요?

사랑하는 나의 이웃들이여! 언제나 늘 한결같은 아름다운 이상과 꿈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의 때 묻은 온갖 고난, 고초 등, 역경을 현실에서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의 꿈으로 순화 시킬 수 있어야 정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그 마음속에 마치 아주 작은 먼지 같은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善)보다는 악(惡)으로 물드는 것들을 씻어나가는 것이 곧 생활이요,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가장 큰 자신과의 싸움이며, 극복하고 정복할 때에만 비로써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의 의지력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재능이나 이해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아무리 재능이 월등하고 이해력이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실천력이 없으면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

직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이 세상을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움이 함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옛말에도 흔히들 “있는 거지 없는 거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넉넉해도 “늘 없는 마음이면” 늘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속에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언제나 이웃에게는 항상 자기(내)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 나눔의 장(章)을 새롭게 넓혀가면서 자기 만족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혹 당장에 돈과 물건은 없더라도 “있는 마음” 이면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 그 마음 따라 돈과 물질이 풍족해 지는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없는 살림에도 넉넉한 있는 마음이면, 이웃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 세상사는 이치요, 법도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남에게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칭찬이란 것은 남에게 값없이 내가 줄 수 있는 “최소의 비용” 인 것이요, 또한 남에게 값없이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 이란 것을 마음의 뼈 속에 깊이 새겼다면, 단돈 한 푼의 밀천도 없이 천량만큼의 그의 마음을 사고 선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 세상에는 “있는 거지” 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옛말로는 “놀부” 인 것이요, 요즈음 말로 “졸부” 라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네 것도 내 것, 내 것은 내 것” 이라는 그 심통 때문에 괜히 처해 있는 분위기만 구겨 놓기 일쑤이지요.

그 있는 거지는 어쩌나 인색한지(?) 항상 넉넉한 있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의 거울인 인상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흘러가는 세월에 청춘이 다 가는데도 꼭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연민의 정을 넘어 불쌍하고 가련하고 처량하기가 다를 데 없는 것을 봅니다. 정말 많이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아가는 좁팽이 부자, 그 졸부들의 행진은 사랑과 그리움의 풍경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내뿜 생활로 부자가 되었다는 자랑을 하는 듯한 행동을 노골적으로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불품없는 몸뚱어리를 가리는 낡은 옷가지, 낡은 신발, 등을 걸치는 그런 인색함이 결코 남에게 넉넉함의 나눔의 정을 정성껏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마저 철저하고 냉혹하게 학대하는 거지가 말입니다. 그런 불쌍한 모습은 정말 곱게 보아줄 수 없는 가련함 그 자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직한 자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삶을 보장하시며, 임재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정직한 자가 그 어디에, 그 어떤 곳에 거하여 있든지 서 있든지 그의 발등상이 상(傷)치 않도록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는 정직해지는 법입니다. 혼자 있을 동안에는 자기 자신에게 매우 충실하며, 또 자신을 속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대할 때에는 자기 자신은 체면과 위선으로 감추고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에게 항상 관대하였으면, 관대하였던 만큼은 자기 마음이 넉넉해 지지만, 만일에 인색하였다면, 그 만큼 그의 마음은 졸렬하게 좁아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늘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관용한 것이 곧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의복을 사 입히고, 맛있는 먹거리를 사주며, 그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친히 보는 것은 부모된 자의 큰 보람이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형제간, 친구 간, 이웃 간, 나아가서는 낯선 사람 사이에도 공통된 이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언어와 행실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며, 남에게 행복하게 해 주는 여건을 마련해 주려 했었다면, 그 만큼은 그 자기 자신에게도 행복감이 물밀듯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들을 육체적인 일에 집중해 허비해서

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탐한다든지, 오락과 유희에 몰두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람의 인격의 품격을 현저하게 낮추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사람은 그의 많은 시간과 행동들을 정신적인 세계를 위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감정은 신체 내에 조화된 따사로운 빛을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맥박이 아주 고르게 흐르므로, 어느 때 보다는 힘찬 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넉넉한 마음은 그의 위장 활동을 잘 순화시키므로 소화기능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삶의 올바른 리듬을 아름답게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마음, 사랑의 넉넉한 감정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건강에 매우 좋은 것입니다.

인생은 물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릇 마음이란 늘 언제 어디서나,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랑과 그리움을 줄 수 있는 풍경이라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슨 덕(德)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고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덕과 기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덕은 남에게 본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요, 기림은 이웃으로부터 인격적인 사람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덕과 기림은 일종의 건강이며, 미(美)이며, 영혼의 좋은 존재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유순해서 덕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는 아름다운 삶의 진풍경이 되는 것이리라.

내가 살아 있는 날에

밝은 사회 선구자

한용운

봄이 오면 추위를 견디기 위해 껴입었던 무겁고 두꺼운 겨울옷을 벗어 버리는 것만 해도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세월 흐름에 따른 주름살 잡힌 얼굴에도 따뜻한 햇살 속으로 미소를 띠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봄은 다만 기다림 속에 살며시 찾아오는 것이다. 얼음이 푹푹 얼었던 시냇가에서 귀를 기울이면, 얼음장을 뚫고 흘러내리는 맑은 물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젖빛 같은 안개가 하늘과 산, 들을 얽게 덮고도 따뜻한 별이 간질거리는 그런 희망의 봄날을 기다리는 날이었다.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요즈음, 이러한 농한기에 동시(童詩)을 100편 정도를 쓰기 위해 골몰히 시 습작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2012년 2월 18일 오후, 간간히 휴식을 하는 시간에 텔레비전의 대마기획 세계여행 편을 보고 있는데, “뉴스 특보”에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 별세”라는 자막 보도가 나왔었다. 그리고 다음날 조선일보 뉴스에는 조영식 박사 사망에 따른 그의 약력 소개와 업적, 그리고 장례절차의 내용들이 자세하게 보도 되었다.

그 동안 30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나 갔지만, 단 한번 고 조영식 박사님과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 때의 일이며, 그리고 경희대학교 학내 곳곳을 마치 관광을 하듯이 둘러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밝은 사회 운동은 조영식 박사가 제정한 것으로 선의, 협동, 봉사, 기여 정신아래 건전사회 운동, 잘 살기 운동, 자연 애호 운동, 인간 복권 운동, 등 세계 평화 운동을 전개하여 정신적으로 아름답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인간적으로 보람 있는 인류문화 복지 사회인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운동인 것이다.



선행 모범 가족 표창

금상 한 용 운

위의 사람은 품성이 아름답고 성실하며, 또 그의 가족은 서로 아끼며, 사랑하고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간 정신으로 자활의 길을 개척하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남의 일을 제일과 같이 소중히 돌봄으로서, 본대학교가 전개하는 밝은 사회 운동에 모범이 되었기, 그 소행을 높이 평가하여 여기에 국민의 이름으로 높은 존경과 함께 표창 하나이다

1982년 10월 28일

경희대학교 교황재단
이사장 조 영 식



지난 1982년도 10월 말경에 우연찮게 서울 회기동에 있는 경희대학교의 부설 밝은 사회 문제연구소가 주최한 <제6회 밝은 사회 모범 가족 금상> 이라는 큰 상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왔었다.

경희대학교 설립자이며, 그 유명한 세계 평화의 날을 제정하신 조영식 박사께서 일찍이 밝은 사회 구현에 크게 헌신 노력한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발굴하여 상을 주고 격려하며, 이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그 상을 제정하시고는 매년마다 수상해 왔었다. 1982년도 그 해가 여섯 번째가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큰 상을 필자더러 받으러 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도 한편 어설프고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전에도 지금에도 늘 같은 생각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생각뿐이었다. 필자가 그 무슨 일을 잘하였다고

하기는 필자는 나름대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일선 행정기관의 말단 공직자로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불우 이웃들의 형편 사정을 깊이 이해하며 아주 가까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다 보니, 불우 노인, 불우 어린이 돕기, 인명구조 등으로 인해서 자주 신문지상과 방송의 마스크에 오르고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런 연유로 인해서인지 그런 큰 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밝은 사회 모범 가족 금상 수상자에게는 수상자 자녀 중 중학교 이상자에게는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 당시에 필자의 장녀인 한은진(韓恩珍)이가 서울 사대부속중학교 2학년 재학생이어서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또 수상자 직계 전 가족에게는 경희대학병원의 무료 진료의 수혜를 주는 무료 진료증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수상자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2년 동안 “구급약품대”를 설치할 수 있는 약관에 따른 구급약품대를 부상으로 받아 그 당시 많은 영세민들에게 의료 시혜를 베풀기도 했었다.

평소 이 땅에 인류 공존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던 고 조영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동 대학원과 경희고등학교를 설립하신 분이다. 1921년 평안북도 운산군에서 태어나 1947년도에 월남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경희대학교 전신인 신홍초급대학교를 인수하였다.

그 후 1982년도 일천만 이산가족재회 추진을 위해 위원장을 맡아 남북한 이산

가족재회 운동을 주도 하기도 했다. 특히 고 조영식 박사는 제 36차 유엔총회에서 세계 평화의 날 제정을 제안, 1986년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 평화의 날로 만들었다.

또한 세계 대학총장회의의 창설을 주도하고, 1975년 미국 보스턴에서 제4차 세계대학총장회의의 총회에서 인류사회의 올바른 방향 설정을 위한 보스턴 선언문을 채택하고 밝은 사회 운동 (GCS 운동)을 제창하였다.

경희학원장으로 치리진 고 조영식 박사 영결식은 6일장으로 23일 오전 9시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되었다.

국내외의 수많은 조문객들과 그가 생전에 하신 업적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 같이 우리나라 교육과 세계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하며, 교육계의 큰 별이 지셨다고... 그렇게 기억하면서 애도의 추모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한낱 이름도 없는 필부(匹夫)로서나마 빛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작은 한 장의 지면위에다가 조사(弔辭)를 쓰고 싶은 것이다.

필자가 30년 전에 조영식 박사가 직접 시상하는 선행모범가족 금상을 받은 후 오찬 자리에서 전라북도 무주의 모 밝은 사회 클럽에서 조영식 박사께 감사패를 전달했었다. 그때에 조 박사님은 작은 사진기를 들고 자기의 아들에게 사진 찍는 각도와 위치 등을 설명하는 것을 얼핏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감사패를 받은 것을 매우 흡족해 하셨다.

그 날 그 오찬 자리에서 필자가 직접 조영식 박사님께 박사님은 국민훈장모란장, 무궁화장, 유엔 특별상, 간디 평화상 등등, 굴지의 유명한 상을 수도 없이 받으셨을 텐데도 국내의 작은 클럽에서 드리는 감사패를 받으시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아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 박사님 대답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뭐가 그리도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수여하는지, 몸 둘 바가 없노라고 매우 겸손해 하시던 모습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다.

필자는 1982년도 그 당시 밝은 사회 문제 연구소 소장님의 특별하신 안내를 받

으며, 대학교 교내를 두루 돌아보는 과정에서 조영식 박사님은 생전에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다.

또 언제나 어디서나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적도 있었다.

경희대학교 교정은 그 당시에도 너무 아름다웠다. 예나 지금이나 경희대학교 회기동 캠퍼스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 같이 보고 느끼고 갖는 마음의 아름다움인 것이다. 너무나 신기하게도 꽃과 나무와 바위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특히 가을날 단풍나무들이 천지간의 가장 화려한 색깔들로 치장을 하는 그 즈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시인 같은 감성을 드러낸다. 아! 너무 아름답구나! 이것은 분명 신의 조화가 아니고서야, 창조적 그 어떤 천재의 작품이 아니고서야!

필자는 밝은 사회 모범 가족 표창을 받은 후에도 여러 차례 경희대학교와 대학 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 대학교 교정의 내부 설계자가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 설계자 고 조영식 박사는 캠퍼스 구석구석에 무슨 나무들을 심고 꽃과 바위와 돌들을 어디에 어떻게 놓아야만 하는지를 직접 섬세하게 배려하고 설계를 했단다. 정말 그 어느 것도 함부로 마구 내던져져 있지 않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하는 곳에도 그는 손수 드릴로 큰 바위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의 측근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키우듯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해 온 사람인 것이요, 선구적인 아이디어를 심고 키운 사람이며, 또한 교정을 아름답게 설계를 하고 가꾸듯이 평화로운 문명의 세계 평화의 정원으로 만들고자 온갖 심혈을 아낌없이 쏟았던 선구자였다.

한 시대를 앞서간 그 사람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그가 가꾼 그 나무에게 화내는 일 없이 오직 때를 따라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듯 무한히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의 인자하고 자비스러운 인품과 그 같은 인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며, 또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생전에는 그를 도운 일도 없거니와, 그를 돕기는커녕, 다만, 시골 한 구석에서 때로 생각이 나면,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상패를 볼 때가 있을 적에나 겨우 한두 번 그분의 평안의 삶과 하시는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를 했었던 일이 전부인 것이다. 그 같은 필부에 지나지 않는 이름도 없는 필자가 그의 영전에 이 처럼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추모의 글을 쓰면서 명복을 빕니다.

밝은 사회 운동과 세계평화 추구는 평생 그를 지배해온 열정이요, 꿈이요, 인간 본연의 목표였던 것을...

* 본 작품은 실제 상황을 원문 그대로 실명으로 기록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허벅지치기

나영희

원통서울약국 약사

〈설악산배움터〉 운영위원장

제24회 박인환추모백일장 산문 장려 수상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못 배울 것은 수영하고 운전인 줄 알았다. 왜냐하면 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속도감은 새가슴인 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돌이 지나고 일주일 만에 아버지가 낚시하고 나오시다 그만 강에서 돌아가셨기에 어머니는 자식들을 절대 물가에 보내지 않으셨다. 그래서인지 물이 무서운 나는 물에서 헤엄칠 일이 없었다. 그러다가 약국 일을 도와주던 명숙이가 “약사님, 수영장이 새로 문을 연다는데 우리 수영 배워요” 라는 말에 한번 배워 볼까 하며 수영 입문이 시작되었다. 내 나이 사십에.

사실 초보강습반에 들어가긴 했어도 뒤에 처져 강사의 눈을 슬금슬금 피해 다녔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명숙이 너는 왜 하필 고개 쳐 박고 하는 운동을 하자고 했냐?” 고 괜한 타박을 하였다. 고개를 물속에 넣기만 하면 꼭 죽을 것 같아 수영장 벽에 붙어서는 벽을 확인하고 여차하면 벽을 붙들고 일어서곤 하였다. 시멘트벽을 얼마나 부여잡았던지 손톱이 닳아져 각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그래도 ‘배우기로 작정했으니 배워봐야지’ 하는 생각에 초보 반 열두 명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몇 명만 남아도 끈질기게 다녔다. 내 생각에 일 년은 다녀 봐야 뭐 좀 배우지 않겠나 싶었다. 그렇게 삼년을 다녔다.

점영을 배울 때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쉬워서 점심때 또 수영장에 가서 해본 적도 있었다. 그 뒤 인제군 원통으로 약국을 옮기며 수영을 못하게 되었다.

약국을 옮긴 뒤 나는 뜻하지 않은 결핵으로 몹시 앓게 되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과로가 겹친 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다. 힘겨운 투병생활이 시작되었다. 감사하게도 삼 년의 긴 투병 끝에 완쾌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급격히 줄어든 폐활량으로 생활의 고통이 많았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힘이 들었다. 노래도 고음은 부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운동을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에 5년 만에 인제읍에 있는 수영장을 찾았다. 새벽시간을 이용해야겠기에 장롱면허증을 꺼내 자동차 운전연수를 받았다. 조심스레 운전을 하며 수영장 나들이를 시작하였다.

그렇게 시작한 새벽수영으로 나는 예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노래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 결핵을 앓으며 고생한 것이 오히려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수영장을 다니며 줄어든 심폐기능을 되찾았고 이제는 수영을 즐기게 되었다. 운전도 베테랑 기사 수준이다.

그뿐인가? 도지사배 수영대회에 군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물속에서 수영은 어느 정도 한다 해도 스타트가 문제였다. 가슴이 큰 이 여사는 가슴치기를 하고, 배가 나온 유 여사는 배치기를 하는 식이었다. 끝박지 나는 허벅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철버덕 철버덕 수영장은 삼시간에 떡방앗간이 되었다. 내 허벅지는 물매를 맞고 빨갛게 부어올랐다. 퍼렇게 멍이 들더니 보라색으로, 연두색으로, 연노란색으로 변해갔다.

수영장 출발대에 올라서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 춘천의 호반수영장 50미터 수영장의 출발대는 왜 그리 높으며 물은 왜 그리 깊던지.

스타트를 하여 죽었다 생각하고 치고 나갔는데 오! 나의 수영의 한 눈은 벗겨지고, 때론 코에 걸리고, 입에도 걸리고 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코에 걸려도 숨만 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경기였다. 오십대 시골 아낙네들이 국제규모의 수영장에 의기양양하게 출전하여 대회를 치르게 되었으니 얼마나 출세했는가!

군 대표 수영선수는 온갖 고난 끝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호!!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은 큰 행복감을 주었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다.

요즈음도 새벽 6시면 수영동호인 네 사람을 태우고 수영장을 향한다. 누구든 “허리 아파요”, “다리 아파요” 하면 “우리 수영 갑시다. 제가 모시고 갈게요” 라고 말하는 수영 홍보대사가 됐다. 우울해 하는 사람 있으면 “수영 갑시다. 운동하며 웃고 떠들어야 우울증을 이길 수 있어요” 라며 적극 권한다. 수영복 옆 가판대장만 보이면 수영복을 고르는 나에게 “엄마는 또 남 주려고 그러지?”라고 딸들은 편잔을 준다. 수영복을 선물하고, 물을 두려워하는 초보자들에게 “나도 그랬노라” 며 수영을 가르칠 때면 참 행복하다.

“약사님, 그러다간 봉고차를 몰아야겠어요.”

호호호! 수영장 봉고차나 운전해 볼까?

이야 이야 내 이야!

나영희

나이가 들면 어디라도 아프게 마련인가?

내 나이 환갑을 바라보며 특별히 어디가 아파 고생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 이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였다. 벌써 8년이나 되었다. 둘째를 가지면서 상한 어금니를 빼내고 부분틀니를 만들어 걸었다.

'아! 틀니라니……!'

처음 틀니를 빼내어 칫솔질을 하고 다시 끼워야 했던 때의 황망함이란……. ‘인생 다 살았구나. 틀니까지 하고 살아야 되다니’ 하고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습관은 무서운 것이어서 틀니는 오래 입은 옷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아무렇지도 않게 빼내고 닦고 또 끼우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건이 터졌다. 약국의 좁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틀니가 손에서 미끄러지더니 툭툭 튀어 하수구 구멍으로 쏙 들어가고 말았다. 몇 번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적이 있어 ‘위험하구나’ 하고 생각하던 일이다. 아무리 하수구 구멍을 쭈셔보아도, 물을 세게 틀어 도로로 나가는 하수구 끝에서 물을 받아 보아도 틀니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내 입속에서 8년이나 동거 동락하던 틀니를 잃어버린 것이다. 하수구 구멍을 막아야지 하던 생각을 왜 실천하지 못했나 후회한들 소용없었다.

그 때부터 내 입속에선 대공사가 벌어졌다. 임플란트 시추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잇몸을 뚫고 기둥을 심고 뼈가 형성되기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 했다. 잇몸은 통통 부어오르고 통증으로 머리까지 육신육신 쑤셨다. 다른 이들도 치석을 제거하라 신경을 치료하라 난리가 벌어졌다. 상한 오른쪽 어금니도 치료하고 씌우고 입 전체가 공사판이었다. 치과 의사는 완전히 막노동꾼 같았다. 의사 선생도 환자만큼이나 힘들 것 같았다. 의자에 누워 들리는 소음은 공사판 굉음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공사 중이라도 먹을 것은 먹어야 했다. 음식은 딱딱 깨물어서 신나게 먹어야 맛도 있음을 이때에야 알게 되었다. 김치는 아예 집지도 못하고 부드러운 달걀찜이나 먹어야 했다. 아파서 눈물을 삼키며 조금씩 먹었다. 이가 튼튼한 것이 오복 중의 하나라더니 그 말이 맞았다. 인생의 살맛은 먹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이가 튼튼해서 음식을 딱딱 깨물어야 맛도 있고 배도 부르고 살도 오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심조심 살살 먹으면 맛도 안 날뿐더러 배도 부르지 않았다. 깍두기를 우적우적 깨물어 먹는 식감이 얼마나 그리운지….

먹는 고역 그리고 먹는 즐거움을 이때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다. 인생의 살맛이 먹는 것으로 생기며, 그 시작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이를 아파본 뒤에야 깨달았다.

복동이와 고집동이

나영희

우리 오빠의 아명은 ‘복동이’ 였다. 태어나고 한 달여 만에 해방이 되었기에 외할아버지는 ‘니가 복덩이다. 복덩이’ 라고 하시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집과 우리 어머니를 복동이네 집, 복동이 어머니로 부르곤 했다.

오빠는 나와 여덟 살이나 차이가 난다. 내가 철이 들고 초등학교 다닐 때 오빠는 광주 외갓집으로 유학을 갔다. 방학 때 집에 온 오빠는 언니와 내가 뒤따라 다니는 것을 싫어하여 “따라오지 마. 저기 가서 놀아!” 라고 통명스럽게 내뱉곤 했다. 그때 오빠는 다리를 떨며 ‘씨스 마이 베이베’ 부르는 노래를 언니와 나는 뜻도 모르고 흥내를 내곤했다.

어머니는 오빠에게 국어, 영어, 수학은 기초가 중요하니 처음부터 착실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누누이 타이르셨다. 늘 어머니는 애가 타서 오빠에게 타일렸지만 오빠는 건성으로 듣는 모습이 어린 나에게도 안타깝게 생각되었다.

여름이면 어머니는 익모초즙을 만드셨다. 오랍도리에 지천으로 자라는 익모초 잎을 따서 확독에 갈아 꼭 짜서 시퍼런 즙을 만드셨다. 그 익모초즙이 얼마나 쓰고 시퍼렇던지 마시는 즉시 내 몸도 퍼렇게 변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이것을 마시면 더위 먹지 않는단다” 하시며 아들을 꼭 먹이려 하셨다. 그러나 오빠는 안마시려고 도리질을 하다 입만 대보고는 기어이 도망치고 만다. 사탕까지 준비하여 들고 계시던 우리 어머니는 끝내 아들은 못 먹이시고 할 수 없이 딸들에게 나누어 먹이셨다. 어린 나는 ‘어머니가 몸에 좋으니까 마시라 하실 텐데, 눈 딱 감

고 마시지 왜 저러나. 고집도 세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오빠의 고집은 이후로도 우리 식구들을 참 힘들게 하였다.

교육열이 높으신 우리 어머니는 아마 논밭을 팔아서라도 아들을 가르치실 텐데 오빠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반대하는 장사를 해 보겠다고 하다가 투자금만 날렸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에 가장노릇을 해야 할 오빠는 번번이 자기 고집대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다 거덜만 내고 말았다. 성과도 없이 자기고집만 내세우는 오빠를 보며 나의 남성관은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뒤 결혼을 하고 내 삶을 사느라 오빠와는 명절에나 잠깐 만나는 시간들이 지나갔다.

그러다 그 고우시던 우리 어머니가 여든을 넘기시면서 치매를 앓게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형제들은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

오빠와 언니의 도움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된 나는 이제 빚을 갚아야 했다. 어머니를 이곳 강원도에 모시게 되었고 언니도 내려오게 되었다. 언니의 정성어린 간호로 어머니는 5년 가까이 자식들 곁에 더 계시었다. 희미해져가는 당신의 기억 속에서도 아들과 딸을 어루만지시던 그 손길을 어찌 잊겠는가?

어머니가 가시고 나서 우리 형제들은 이곳 원통에서 자주 만났다. 언니가 한계리에 자리 잡게 되었고, 오빠도 자주 내려오셨다. 인제군청 홈페이지에 우리보다 더 자주 들어가 보고 인제군 소식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우리오빠다. 지난 9월 오빠는 여기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취직을 했다. “힘들지 않아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니 “아니다. 일하니까 기분이 좋고 몸도 가벼워서 좋다” 며 정말 좋아하는 눈치다. 자기 고집대로 평생 살던 오빠가 고생 깨나 할 것 같다.

인정대왕 부경이 아빠

나영희

"속상해서 전화했어요."

이른 아침 7시 부경이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부싸움을 했나? 애들이 일 저질렀나?

"고양이가 새를 물어 죽였어요. 한 마리는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어떡하죠?"

부경이 아빠는 병원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은 심정 같았다.

한 달 전, 장날에 샀다고 잉꼬새와 카나리아 두 쌍을 거실에 텃 들여 놓았다. 20 만원을 쫓대나. 나는 기가 막혔다. 그렇잖아도 좁은 거실에 새까지 들여 놓고, 새 털은 어떡할 것이며, 알레르기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심란하였다. 더구나 세 아이의 가장이며 사글셋방 살이 아닌가?

그 다음날에 불일이 있어 부경이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고양이 한마리가 쏠살 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 순간, 언니네 새를 물어 죽인 고양이 생각이 나서 새장으로 달려가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새장문이 열렸고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거실 바닥에 새털이 흩어져 있는 것이 고양이 녀석이 해치운 것 같았다. 그 고양이가 또 일을 저지른 것이다.

부경이 아빠는 이른 새벽에 동네의 병원 응급실에 전화해서 '새가 피를 흘리는데 어떡하느냐?' 고 물었단다. 그러고 보니 새 병원은 없나?

평소에 부경이 엄마가 고생하며 애들 치닥거리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가장의 책임을 들먹이던 나였다.

"부경이 아빠, 곧 주연이 등록금 내야 할 텐데..."

"별어야죠."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당당하게 말한다.

‘이런 단순한 사람에게 세상은 너무나 힘든 책임을 지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물을 좋아하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기를 즐기는 부경이 아빠! 인정대왕이라는 별명이 말해주듯, 사람들 대접하기 좋아하고, 속없이 남에게 퍼주기 좋아하는 부경이 아빠! 인정으로 말하면 둘째가라면 서운할 부경이 아빠가 또 어떤 일을 저지를지 걱정도 되지만 메마른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많아 우리네 삶이 조금 덜 팍팍했으면 좋겠다.

메아리

나영희

남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하는 일은 나에게 꼭 죽을 일만 같다. 원래 좀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나는 남 앞에 서는 일은 되도록 도망치고 싶은 일이다.

초등학교 시절, 구연동화 시간에 어머니는 그림을 그려주시며 나를 연습시켰지만 나는 결국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잘했노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다.

말주변이 없는 나에게 말하기란 캄캄한 밤에 나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느낌이다. 남 앞에 서야 될 때 나는 ‘죽었구나’ 생각한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살아서 또 서야 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그리고는 ‘아! 이렇게 말할 걸’ 하고 꼭 후회하곤 한다. 사람 앞에 서면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라 꼭 죄진 사람 같다. ‘내 명대로 못살겠구나’ 생각하며 나중 혼자 웃곤 한다.

말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자국을 남긴다. 그런가하면 글은 실크천에 염색물이 서서히 번지듯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준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다.

말도 글도 다 어렵다. 나에게서 나가는 모든 것이 설악산의 메아리처럼 반향이 되어 울린다. 어디론가 울려 퍼질 때 그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오늘도 나에게서 나간 말과 글들이 어떤 자국과 색깔로 남겨질지 조심스런 마음으로 나를 열어 보인다.

님은 먼 곳에

김경애

원통부강철물 대표

제24회 박인환추모백일장 산문 차하 수상

남편은 과수원에서 늘 가축을 많이 키웠다. 큰 진돗개 두 마리에 닭, 거위, 염소까지.

나는 개와 닭은 물과 사료를 조금씩 주면 되고 염소는 지천인 풀을 베어다 주면 되는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가축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인 줄을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으로 밭에 오르내리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지쳐서 "당신은 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일이 좋으면 밭에다가 오두막을 짓고 밤낮 일만 하고 살라"고 잔소리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일이 갑자기 나에게 넘어오자 비로소 나는 남편이 아침과 저녁에 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알았다. '곡식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던가. 밭에는 어제 가고 오늘 가도 할 일이 많다. 쉴 세 없이 올라오는 김도 매야하고, 뒤돌아서면 쑥쑥 자라는 풀도 매야하고. 심으면 심은 만큼 손이 가는 것이 농사였다.

전후 사정을 잘 몰랐던 나는 내 마음이 내킬 때, 그것도 남편 생각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이 치밀어 오를 때 한 번씩 밭에 올라가 어디에선가 꼭 일을 하고 있을 것만 같은 남편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때야야 기진맥진해 있는 짐승들을 보고 먹이를 한 번씩 주곤 했다.

그렇잖아도 제 수명을 넘어 살아서 늙었는데도 건강하고 충실하다고 늘 칭찬하며 등을 쓰다듬어주던 진돗개도 제 주인이 없음을 알았는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염소도 기름기 반질반질하던 털이 부스스하고 힘없이 나를 쳐다보는 모습이 불쌍해서 나는 그 날로 농사짓는 목사님 댁으로 보냈다. 닭과 거위는 크게 힘들지 않아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 참으로 희한한 일은, 지금껏 산짐승이 내려와 닭을 물어가거나 농작물을 훼손한 일이 없었다. 그런데 개가 없어진 뒤로부터 내가 애써 가꾼 채소밭이 엉망이 됐고, 더덕도 산돼지가 서리를 해갔다. 그리고 닭은 밭에 갈 때마다 한 마리 두 마리 없어지더니 이제는 닭 한 마리와 거위 한 쌍이 남아서 밭을 지키며 나를 반긴다.

남편은 당노에 좋다고 이른 봄에 울금을 사다 심었는데 싹이 나오지 않는다며 심은 곳을 열두 번도 더 들여다보며 애를 태웠다. 끝내 남편이 돌아가시고 여름 장마가 지난 뒤 무심코 울금을 심은 곳을 지나다 보니 풀 속에 뽕죽뽕죽한 싹이 올라온 게 분명히 울금이었다. 나는 그 순간에 너무 기뻐서 "어머나, 울금이 올라왔네! 남편에게 얼른 알려야지" 하면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생각하니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얼마나 마음이 황량하고 슬픈지! 마음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오열과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서 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나는 오늘도 남편이 그렇게 아끼며 무농약농사를 짓느라 애쓰고 온갖 것 다 심어놓은 밭을 팔지도 못하고 남을 주지도 못하고 앓으나 서나 당신 생각을 하며 농사를 짓고 있다.

친구

김경애

어린 시절 나에게 단짝친구가 하나 있었다. 서울에서 전학 온 그 아이는 가난했던 우리와는 달리 언제나 분홍색 물들인 예쁜 저고리에 검정치마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하얀 얼굴에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아이였다.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이 부러웠다. '공부라도 잘해야 그 아이와 친구가 되겠지' 싶어 죽도록 공부했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여봐란듯이 일등을 도맡아 놓고 했다.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도 그 아이에게 넘어간 것 같아서 나는 혼자 속을 끓였다.

그래도 나는 그 아이보다 잘 하는 게 한 가지 있었다. 달리기다. 나는 키는 작았지만 몸이 날렵하고 잽싸서 체육시간이나 운동회 때에 늘 일등을 했고, 계주선수로 나가면 선두주자에 나서곤 했다. 나는 그때가 가장 신나서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흘깃흘깃 쳐다보면 두 손을 들고 열심히 응원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어깨가 으쓱해졌다.

때로는 벌레를 무서워하는 그 아이에게 나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벽이삭 사이에 숨은 메뚜기를 손으로 순식간에 낚아채서 강아지풀 긴 목에 하나 가득 매달아 슬쩍 주었다. 그 아이는 그것조차도 무서워서 벌벌 떨며 고맙다며 받아가곤 했다.

우리는 선의의 경쟁자로 서로를 알아갔고 죽고 못 살 것 같은 친한 친구로 우정을 키웠다.

그 시절에도 왕따가 있었다. 나는 이유도 없이 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어린 마음에 죽고 싶도록 외로워서 학교에 가는 것조차 싫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무도 몰래 작은 쪽지에 웃는 내 얼굴을 그리고는 '경애야 힘내! 다음 차례가 정해졌어' 하며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은밀히 알려주며 격려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외로움이 가슴을 떨리게 하며 눈물이 떨어질 것만 같다.

그런저런 온갖 사연을 간직하고 우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연락처 하나 주고받지 못한 채 나는 중학교에 진학했고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건지 소식이 묘연했다. 그때 당시 수리조합장으로 우리 동네에 온 그 애 아버지가 다시 서울로 갔다느니, 병이 위중해서 요양을 갔다느니, 온갖 무성한 소문만 나돌 뿐 끝내 친구의 소식을 모른 채로 세월이 갔다.

그 뒤에 이상한 일은, 친구들 혼인식에 가 봐도, 동창 모임에 가 봐도 그 친구 소식만은 아무도 몰랐다. 나는 그 친구가 죽었나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낯선 전화를 받았다. 정확하지 않은 발음에 약간 목이 메인 듯 황설수설 하는 것 같아 "누구신지 말씀을 하세요!" 재촉을 하자 내 귀에 떨리는 목소리로 "경애야, 나 옥지다!"하는 말이 들렸다. "뭘! 누구?" 평생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던 내 친구 김옥지!. 우리는 오랜 말이 필요 없었다.

50년 만에 우리는 반가운 해후를 했다. 한 동안 말을 못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주보니 우리는 둘 다 잔주름이 곱게 피져 있고, 귀밑머리가 희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른 만큼 늙어 있었다.

그 동안 친구는 독일에 간호사로 취업을 나갔다고 했다. 그곳에서 스웨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 친구의 남편은 대사가 되어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기를 소원해서 한국대사로 와 옛 친구인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우리 친정집을 찾아갔다고 한다. 친정 올케에게 내 소식을 들었고 전화번호를 받고는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한동안 전화를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혹시 내가 아니면 어찌나 해서.

나는 장사꾼의 아내가 되어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소설 같은 이야기를 밤새는 줄 모르고 했다. 내 친구는 내가 시골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모르고 서울 쪽에서만

나를 찾았다고 한다. 그때 당시 고시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갔다는 소문만 듣고 관감사 부인이 된 줄 알았나보다.

나는 대사부인인 옥지를 한 없이 부러워하는데 옥지는 도리어 내가 부럽다고 했다. 고국에서 이렇게 기반을 잡고 아이들 제 때 출가시키고 가까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몇 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삶이 화려해 보이고 부러워할 만한 삶인 것 같아도 내면에 스며드는 외로움과 그리움에 지금도 몸부림을 친다고 했다. 고향이 그리고 친구가 보고 싶을 땐 혼자 나가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울었다. 김치가 먹고 싶을 땐 무작정 한국교포의 집을 찾았다고 한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는 비로소 내 삶이 행복인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너무 멀리 시집을 와서 늘 외로움이 뼈에 사무친 것 같았는데 다정한 친구를 통해 멀리서만 바라보던 행복이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도 스웨덴으로 온갖 사연을 담은 편지를 띄운다. '김옥지! 세월이 흘러도 너는 역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나의 친구야!'

하루 일과

권명진

인제초등학교 5학년

나는 월수금요일이면 아빠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다. 그래서 아빠와 같이 우유배달을 한다. 내가 우유를 배달하는 이유는 안 고쳐지는 내 습관을 고치려는 거다. 나는 덜렁대는 습관이랑 늦게 일어나는 습관이 있다. 이 습관을 고치려고 우유배달을 한다.

우유배달을 하는 대가가 있다. 내 용돈은 일주일에 3천원이었는데 만 원으로 올랐다. 그래서 오늘도 4시 30분에 일어나서 6시까지 우유배달을 했다. 6시부터 7시까지 조금 잔 뒤에 학교에 갈 준비를 한다. 대신에 아침은 꼭 먹고 간다. 안 그러면 엄마에게 혼난다.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내 친구들과 같이 학교에 간다. 오늘 아침에 등교할 때 손이 시려웠다. 장갑을 끼고 다녀야겠다.

1교시는 영어다. 영어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솔라솔라 거러서 지루하다. 2교시에는 학예회 때 발표할 카드섹션을 한다. 2교시가 끝나고 나는 백일장에 갔다. 애들과 같이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1시에 돌아왔다. 우리 반 애들은 다 공부하는데 나는 백일장에 가서 글을 쓰고 남은 시간에 놀 수 있어서 좋았다. 5교시에는 체육을 했다. 종목은 추크볼이라는 게임이었다. 우리 반과 옆 반랑 시합을 하였다. 그래서 우리 반이 이겼다. 6교시에는 학급회의를 했다. 학급회의는 하기 싫은데 공부하는 것보다 좋았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같이 학원에 온다. 학교보다 학원이 더 좋다. 왜냐하면 학교는 학원이랑 똑같은 분량을 하는데 학원이 더 시간이 더 아껴진다. 학원이

끝나면 편의점에서 밥 먹고 인문학원에 온다. 여기에서 글쓰기를 배우다가 6시 30분에 집으로 온다.

고기잡이

김수현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추석 때 할머니 집에 갔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추석 바로 전날에 갔었다. 가서 하룻밤을 자기로 하였다. 밤에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계획을 세웠다. 고기를 잡기로 한 이유는 우리가 고기잡이를 체험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일어나자마자 씻고 아침밥을 먹은 다음에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내려갔다. 내려가 보니 할아버지께서 미리 돌담을 쌓아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 놓으셨다.

처음에는 돌땅이란 방법을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 망치를 동원하여 바위를 쳐 물고기를 잡았더니 효과가 좋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 돌을 칠 때 가까이 있으면 파편이 튀겨 따가운 것이었다. 그래서 돌을 두드릴 때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고기를 잡던 중 신기한 것을 보았다. 고기가 고기를 반쯤 삼키며 기절한 것이었다. 흔치 않은 일이라 내게는 정말 신기하였다.

고기를 다 잡고 나서 결과물을 보았는데, 빨래통에 가득 찰 정도였다. 많이 잡아서 기분이 좋았다. 매기 두 마리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살려주었다. 물에 놓아주자 다시 헤엄치는 것이 신기하였다. 처음 접해 본 이 방법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다.

흔들리는 이빨

박가은

원통초등학교 1학년

오늘 아침에 학교에 갔다. 그런데 급식시간에 갑자기 원래 흔들리던 이빨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 어! 어! 탁! 앞니와 흔들리는 이빨이 부딪쳤다. 갑자기 얼굴이 찡그려졌다. 아야 또 부딪쳤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만 먹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밥을 그만 었었다. 근데 엄마가 혼낼까봐 걱정이 됐다. 하지만 다행히 혼내지는 않았다. 휴 다행이다. 빨리 이빨이 빠져서 급식을 잘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고통

미술학원에서 손을 베었다. 으 너무너무 찌릿찌릿, 두근두근, 너무 무서웠다. 나는 그 고통을 참고만 있어야 했다. 속으로는 ‘미술선생님! 미술선생님!’ 하고 애타게 소리치고 있었다. 내가 다쳤는데 운이 좋지 않게도 선생님이 차량운행을 가셨다. 그래도 다행히 내 옆에 꽃반 박신형이란 남자 아이가 있었다. 신형이 덕분에 무서움은 조금씩 달아났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미술선생님이었다. 미술쌤이 다가오자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미술쌤은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미술쌤한테 다 말했다. 미술쌤이 손을 보자 “많이 비었네” 하고 말했다.

아빠가 미술학원에 데리러 오자 나는 아빠랑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그때에는 피가 많이 났는데 이제는 많이 아물었다. 나는 이제 칼을 쓰는 게 무섭다. 앞으로 선생님이 없을 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동전 하나

오늘 나에게 어떤 언니가 동전 하나를 주었다. 별로 내키지 않아서 다시 줄려고 했지만 그 언니가 그냥 가지라고 했다. 그래서 설악산배움터 오는 길에 그 동전을 멀리 던져 주었다. 동전아, 가난하고 착한 사람에게 가거라!

뉴질랜드 영어연수

선예림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나는 이번 방학 때 4번째 해외여행을 했어. 첫 번째는 태국이고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캄보디아 네 번째는 아주 특별한 뉴질랜드 여행이야 왜 특별한지 알아? 그곳에서 내 키가 약 5센티미터 컸고 영어도 늘고 다른 새운은 세계를 경험하며 방학을 알차게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야.

나는 7월24일 뉴질랜드로 가는 전날 밤, 뉴질랜드를 갈 생각을 하니 밤부터 설레오며 마음이 졸여서 잠도 못자고 잠을 설치게 되었지! 근대 사실대로 말하자면 힘은 있어야 하나까 조금은 잠을 청했어. 그리고 새벽 3시 드디어 그날이 왔어.

새벽 5시, 우리는 가족과 작별인사를 하며 떠나게 됐어. “두둥” 나는 뉴질랜드 갈 준비를 하고 은빈이와 정중양 휴게소를 떠나게 됐어. 약 1시간 30분쯤 뒤에 “콜록콜록, 우웁” 어디서 기침소리와 함께 토를 했는데 바로 은빈이 옆에 앉은 예림이(나)였어. 그때는 사실 출발 전부터 속이 안 좋았지만 친구들에게만 말하고 넘어갔어. 가족한테 말하면 가족이 걱정할 거 아니야! 근대 1시간 30분 뒤 그런 일은 일어나고 부모님은 걱정이 돼서 나한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했어. 그리고 약 2시간 후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 그 순간 드는 생각은, 아 이제 자유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6시간 뒤 말레이시아 공항에 도착하였지! 너무너무

후덥지근 하더라~. 거기서 시내투어를 좀 했지, 그곳에서 입에 맞지 않는 말레이시아만의 독특한 음식을 먹었어. 그러면서 1시간을 기다린 뒤 비행기를 타고 국내식을 먹고 15시간을 답답한 비행기에서 자고 먹고 기다리면서 어느새 뉴질랜드에 도착하게 되었지! 뉴질랜드의 도착하니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 야~상쾌한 공기 이 맛이 자유의 맛이야!

그뒤 비록 겨울이지만 우리를 맞아줄 수 있도록 날씨는 따뜻하게 바뀌어서 ‘뉴질랜드는 우리를 사랑하구나’ 라고 생각했어. 그 다음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로트르와로 가게 됐어. 그곳에서 파라다이스로 가서 호랑이를 만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신비한 생물을 많이 봤어. 그리고 로트르와에서 이틀 밤을 잤어. 우리 호텔은 화산지대에 가까워서 유황냄새가 많이 나. 근데 나는 그때 감기가 걸려서 유황냄새를 못 만났어, 그리고 마오리족 마을에 갔더니 향기로운 유황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좋았어! 그 유황냄새는 빵튀기 냄새, 계란 삶은 냄새야~.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우리는 JP에듀케이션에 갔고 그곳에서 멋진 가족을 만나고 멋진 집에서 한 달을 지내게 되었어. 다음날 나는 한복을 입고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인기짱이었어. 그리고 홀에 가니 우리를 축하해 줄려고 축하공연이라는 마오리족의 하카파카를 봤지. 우리는 보답으로 아리랑을 불렀어.

그곳은 쉬는 시간이 한국과 달리 두 개 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합쳐서 하지! 그래서 쉬는 시간이 더 길어. 그중 한 개는 모닝시간(아침 간식 같은 것)이고 또 한 개는 점심시간이야. 모닝시간에는 띠리링 하는 벨이 울리면 아이들이 아침으로 싸온 간식을 먹어. 아이들이 많이 싸오는 간식은 과자, 젤리, 빵, 음료수를 먹어. 그러다가 띠리링 하는 벨이 울리면 우리는 각자 반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지. 점심시간에 띠리링 하는 벨이 울리면 아이들은 각자 싸온 점심을 먹어. 한국은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데 뉴질랜드는 바닥에 앉아서 점심과 간식을 먹더라. 또 금요일은 학교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시킬 수 있어, 우리 한국 친구들은 대부분 라면이나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그리고 벨이 두 번 울리면 우리는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 이처럼 뉴질랜드는 벨로 소통 하나봐! 놀다보면 벨이 또 한 번 울려. 그러면 슬프지만 우리는 다시 공부하러 학급에 들어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집으로 갈 수 있는 기쁨의 벨이 울려.

그래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만 우리는 한국 친구들끼리 또 수업을 두 시간을 해. 그러면 우리 멋진 엄마가 데리러 와.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보고 와락 껴안지. 그리고 집을 가면서 멋진 이야기를 하고 쇼핑도 해. 그런데 내 생일은 정말 멋졌어. 내 침대에 선물이 있고 방은 예쁘게 꾸며져 있었어. 평소에 그랬듯이 밥을 먹고 영화보고 쇼핑하고 잤지. 내 생일은 정말 보람 찼어. 그리고 어느 날은 언니들이 뉴질랜드 놀이공원에 데리고 갔지. 그래서 우리는 재밌게 놀았어. 이 행복한 시간들이 지나니까 벌써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야.

우리는 한국으로 떠나야 되지! 나는 생각했어. 아! 이제 막 정이 들었는데 헤어지는구나 하고. 그래서 우리를 받아준 학교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케이팝을 보여주고 아리랑을 불렀지. 그 반응은 상상을 뛰어넘었어. 그 마지막 시간을 즐기기 위해 우리 가족은 회식도 하고 쇼핑도하고 놀러도 갔지! 나는 평평 울었어. 우느냐고 잠도 못자고.

다음날 진짜로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지! 그러니 내 마음은 어땠겠어. 그래서 밥 먹다가 으앙, 옷 입다가 으앙!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하고 또 울었어. 가족들과 떠나면서도 울었지. 우리는 그대로 JP에듀케이션에 가는 줄 알았더니 엄마는 학교로 데려다 주더라. 같이 생활한 친구들을 또 보게 되니 더 눈물이 차오르더라! 그래서 더 울었지. 이런 슬픈 시간이 끝나고 우리는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갔지! 여행은 참 알차고 즐거운 것 같아.

보고 싶은 아빠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나는 오늘 학교에 걸어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면서 천천히,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든다. ‘오늘따라 학교가 어색하네. 내가 전학 온 것 같은데?’ 매일 같은 학교지만 매일 다른 느낌이 드는 학교에 대한 의문을 갖고 나는 계단을 올랐다. 내가 한 걸음 발을 떼려고 하니 갑자기 오토바이가 횡~ 하고 지나갔다. 그 오토바이는 노란색이고 어떤 오빠를 태우고 지나갔다.

나는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했다. 눈을 감으면 바로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아빠가 보고 싶었나보다. 2학년 때 아빠께서 학교에 갈 때 태워주신 오토바이가 생각났다. 그 오토바이도 노란색이었다. 지나간 오토바이와 정말 똑같다. 아빠도 썩~하고 빠르게 달리셨다. 그때는 무서워서 눈물을 흘렸지만 지금은 아빠와 오토바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났다.

내 동생은 한 달에 다섯 번쯤 아빠가 오시면 언제나 반가워했다. 하지만 나는 달랐다. 아빠께 인사도 안 하고 아빠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다. 갑자기 아빠께 미안했다. 그리고 아빠가 정말 정말 보고 싶었다. 아빠를 만나면 꼭 말할 것이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께서 이 글을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 글은 내가 지금까지 아빠께 쓴 글 중에서 가장 마음을 담아서 쓴 글이기 때문이다.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거짓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 물론 나도 그렇다. 내 가족도, 친구도, 친척도 모두 거짓말쟁이다.

아빠께서 책은 많이 읽으면 좋다고 하셨다. 그래서 책을 보다보니 책 보는 게 습관이 돼서 요즘은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도 책을 보면서 먹게 되었다. 그런데 엄마께서 나를 막 혼내셨다.

“밥을 먹을 시간에 왜 책만 보고 있어? 어서 밥 먹어.

‘피 아빠는 거짓말쟁이.’

내 동생도 거짓말쟁이다.

“누나! 누나! 있잖아, 이 사진 봐봐! 히히! 나 전에 이것처럼 뽀글머리 된 적 있다!”

‘흥! 니가 어릴 때부터 쪽 지켜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거든. 피, 너도 거짓말쟁이야.’

내 친구도 거짓말쟁이다. 느끼한 초코빵에 피자빵이랑 생크림 조금 섞은 걸 먹고 맛있단다. 물론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맛이 다르겠지만 그건 정말 아니었다. 모양부터 맛까지 좋은 게 하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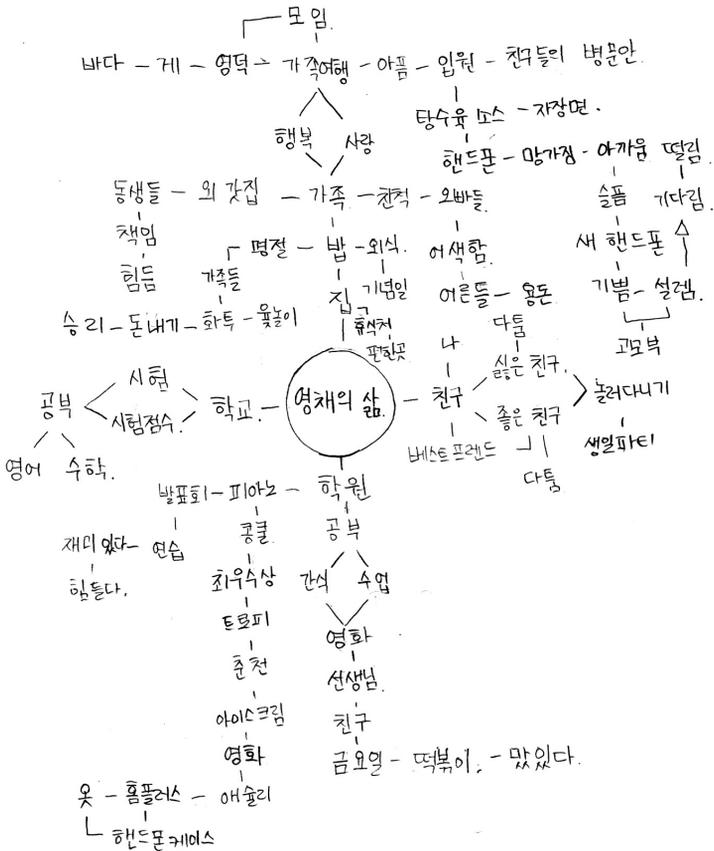
‘피, 그게 맛있다니! 너도 거짓말쟁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 아무리 정직하고 착하다 해도 한 번씩은 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추울트라수퍼거짓말대마왕일 것이다. 우리들은 지금 추울트라수퍼거짓말대마왕 지구에 살고 있다.

영채의 마인드맵 설명서

윤영채

인제남초등학교 5학년



내 삶의 마인드맵은 집, 학교, 학원, 친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단 ‘집’ 하면 떠오르는 것은 ‘가족’이다. 물론 ‘가족’ 하면 행복이나 사랑이 떠오르지만, 막상 집에 가면 ‘밥’ 밖에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다. ‘집’ 하면 명절이 떠오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친할머니 댁에서는 큰아빠들이랑 화투 치는 것이 생각난다. 외할머니 댁에서는 사촌동생들과 놀아주는 것이 생각난다.

사촌동생들과 놀아주다가 피곤해지는 것도 기억에 남는다. 너무 힘들어서 ‘가족여행’도 생각이 나는데 바다를 보러 간 것도 생각난다. 모임에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는 것도 생각난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다보면 재미도 있고 편안해지는 것 같다. 나는 집을 휴식처나 안식처로 생각한다. 쉴 수도 있고, 놀 수도 있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학교’와 ‘학원’이다. ‘학원’ 하면 공부가 떠오른다. 학원은 학교공부를 예습이나 복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부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또 학원하면 간식이 떠오른다. 선생님들은 우리가 공부할 때 배가 고프거나 더 열심히 하라고 간식을 사주시거나 만들어 주신다. 간식은 만들어 주시는 게 훨씬 맛있다.

학원은 피아도도 있는데 피아노는 발표회나 콩쿨이 생각의 중심이다. 발표회나 콩쿨을 할 때 첫 시작은 물론 힘들다. 하지만 거의 끝나갈 때는 재미있다. 연습을 많이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기분이 정말 좋다.

‘학교’ 하면 생각나는 것도 물론 공부다. 공부는 좋은 과목과 싫은 과목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공부는 공부니까 좋아할 수는 있는 것 같다.

학교는 친구도 떠오른다. 친구도 ‘싫은 친구’와 ‘좋은 친구’로 나누어진다. 친구니까 다툼도 있지만 우정과 사랑도 있는 것 같다. 우정은 다툼과 화해를 하면서 더욱 친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놀러 다니는 것도 친구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다. 편하고, 친구랑 다니면 더 재미있어서다.

이렇게 나의 삶은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래도 내 삶의 가장 큰 생각은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영채의 삶에 대한 마인드맵 설명서 끝!

엄마의 임신

최예린

원통초등학교 1학년

우리 엄마는 몇 달 전에 임신을 하셨다. 어느 날 엄마는 입덧을 했다. 엄마가 힘이 든 모습이 너무 슬펐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에게 태명이 생겼다. 그 태명은 짱가다. 그 다음에 동생은 8개월이 됐다. 동생이 8개월이 된 뒤로 엄마는 힘들어졌다. 그 이유는 동생이 엄마의 방광을 눌렀기 때문이다. 그 후로 동생은 계속 엄마를 힘들게 했다. 그래서 나는 슬펐다.

엄마

엄마가 나의 동생을 낳으러 갔다. 내 동생이 태어났던 시각은 11시다. 엄마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원해계셨다. 화요일부터 나는 할머니집에 있었다. 그 전에는 엄마와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집이 허전하다. 엄마가 빨리 퇴원했으면 좋겠다.

동생

나는 정말 좋은 소식이 생겼다. 바로 그 소식은 내 동생이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내 동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사랑할 것이다.

하지만 슬픈 소식이 있다. 그건 내 동생이 아픈 것이다. 그래서 어제 강릉아산 병원에 갔다 왔다. 다른 병원도 가봤는데 동생이 신생아라고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 강릉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봐주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다. 동생이 아파서 새벽에 들어왔지만 나는 괜찮다. 동생은 나에게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늦게 들어 올 수 있다.

자전거

나는 자전거를 빨리 타고 싶다. 내 자전거는 망가졌다. 아빠가 내 자전거를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안 고쳐주신다. 하지만 아빠가 언젠가는 고쳐 주실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안 고쳐주시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빠는 직업이 군인이니까 훈련을 하시고 근무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시니까 아빠가 피곤하셔서 자전거를 못 고쳐주시는 것 같다.

가끔씩 나는 아빠에게 자전거를 빨리 고쳐달라고 하고 싶다. 하지만 아빠가 힘들시니까 고쳐달라고 하고 싶진 않다. 내가 아빠에게 자전거를 어떻게 고치는 건

지 물어 보았다. 아빠가 자전거가게로 가지고 나가서 고쳐야 된다고 하셨다. 나는 아빠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 자전거를 빨리 고쳐서 주시면 좋겠다. 친구들과 놀 때 자전거를 못 끌고 나오기 때문이다.

무제2

오정진

지금
당장
속절없이 떠난다 해도
억울할 것 없어라

내 뜻으로
오지 않았으니
가는 것 또한 마음대로라

오고
가는 것이
모두
대자연(大自然)의 순환(純環)인 것을
어찌
쓰잘 데 없는 집착으로
아등바등하라

머물다 떠난 자리
추하지 않길 바랄 뿐
오면, 가는 것이 순리(順理)

지금 당장
떠난다 해도
억울할 것 없어라

여생

오정진

종종걸음 치던
시절은 가고
나 이제
허덕일 일 무엇이라

느긋한 마음
호흡이 기인 일상(日常)

맑은 가을 날

빨랫줄에 휘날리는
흙청 같은 마음으로
빈손 휘저으며 걷는 여생

순하고 맑은 눈매로
바라보는 세상
하냥 아름답구나

노을진
저 산 넘어
신앙의 꿈은 영글어가고

이 생 끝나는 날
사슴처럼 눈을 감으리



- 황해도 곡산 출생
- 1994년 시집 <혼자 불러본 노래> 출판
- 1997년 한맥문학 시부문 등단
- 2006년 환경부장관 표창
- 2007년 시집 <요산요수> <짐승처럼 살고 싶어> 출판
- 전 문화원장 역임
- 인제군농업협동조합장 역임
- (사) 사슴생태운동복원본부 회장

황태의 꿈

흰외 박돈구

강원도 인제군
한계 산성이 지켜주는 작은 용대부락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에 맨 몸뚱이로
떨고 있는 생선을 본적이 있는가
눈 내리는 덕목에 매달려
비린 생선 냄새 지우려
기도하듯 탈피를 시작하는
그의 눈을 본적이 있는가
한없이 슬프게만 보이는 눈
눈물 속에 고인 바다
그 바다의 굴레를 벗어나
가느다란 줄에 매달린 명태들
바람의 차가운 하늘을 삼키며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이겨내고
마지막 뼈까지 처참히 부서지는
그 아픈 구도의 시간을 건너야
비로서 화려한 변신이 완성되는
황금빛 살점으로 황홀해지는
바다의 기억마저 물어버려야
그들이 꿈 꾸었던 모습으로 환생하는 거지

명품 “ 황태 ” 라는
하지만
황태가 될 수가 없는 황태는
술꾼의 속을 달래 줄 해장국이 되는거야
슬픔으로 펄 펄 끓는 부스리기 같은 꿈



- 2003년, 2005년 전국장애인근로자문학제 문학부문 입상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사무국장
-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부 회원

산사의 가을

허계홍

그녀의 책갈피엔
붉은 가을이 산다
햇살 만발한 하얀 속살 드러낸
산사의 가을
몽실한 젓가슴 신열같은 붉은 살점이 도져오면
마지막 힘들게 버티고 선 자리
갈빛 한점 산사의 가을에 벗어 놓는다

낮달 삼킨 가을의 숨결
풀잎하나 낙엽하나 하루의 삶마저도
그녀의
책갈피에서 세월을 보낸다
노오란 장삼자락과
낮은 바람의 숨소리 마저도 담는다

가을 뚝뚝 떨어지는 산사 한 모퉁이 돌아
고달픔과 외로운 육신
부처님전에 합장하고 엮드려
백팔배 그 마음의 짐
그녀의 책갈피에 내려 놓는다
산사에서...

가을의 무늬

허계홍

해질 무렵 작은발
들길 걸으면
이마에 와 닿는 상쾌한 바람
맑은 시냇물 철병거리며
고운 꿈도 함께 키웠지

삶의 고단 할때면 생각나는
풍요로운 가을 들판
붉그레 타오르는 사랑 한자락
들국화 꽃잎에 걸려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겨울밤 아늑한 안방같은
어머니 젓가슴처럼
그리움만 출렁이는
내고향 언덕배기
오색 단풍드는 가을의 무늬들

.....

허계홍

- 강원도 횡성 출생
- 2007년 한국문인 시등단
- 인제 하늘내린 미술인회 초대회장 역임
- 인제도서관 주부독서회 회장 역임
- 서울 성균관 여성유도회 인제군지부 회장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 부지부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2009년 시집 〈그리운 얼굴은 눈물로 남는다〉 출판
- 2010년 시집 〈바람의 무늬〉 출판

황태해장국

화담 정순덕

오늘도 내가 너를 살린다

심해를 뚫고, 온 몸에 수분을 날려보내고
칼바람에 얼었다 왔다 담금질을 이겨내고
황금빛 날개를 달고
마침내 하늘로 날아올랐다

노가리 명태 생태 복어
시시풍성한 시절을 지나

밤새 알코올에 풀어진 마음
혼미한 생각과 어릿어릿 쓰리고 아픈 가슴
불을 확~ 당겨 일순에 날려 보내고
말긋하고 산뜻한 기운
당신의 하루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살린다
무 감자 콩나물과 손잡고
미나리 대파를 만나
뼈속까지 후련해지는 황태해장국으로

모 기

華曇 정순덕

쳐서 지나면 주둥이가 닫힌다던가
침이 휘어져 못쓰게 된다던가

'산바'가 쳐 들어오던 날
비바람치고 마당에 배롱나무가지 부서지는 소리
아랫녘 비상사태 뉴스가 실시간으로 뜨는데
왜 그렇게 잠이 쏟아지던지

자다깨다 자다깨다 긴급 자막을 읽는 중
등짝이다 어깨죽지다
사정없이 후려치는 때

오랍뜰 농작물, 허술한 비닐하우스
이웃사촌들 걱정도 안 되냐고
따끔하게 힐난 하는 모기
독한 가르침에 잠 못드는 밤

-
- 강원도 인제 출생
 - 인제주부독서회 회장 역임
 - 박인환시문학상 운영위원장 역임
 - 인제고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장 역임
 - 인제문화재단 이사
 - 저서 <갈대 그 흔들림의 미학> 출판

양구 대교로 간 잉어

박영식

잉어 낚시는.....

민물에서 제일 큰 힘을 맛볼 수 있다는 점과 개체수가 많지 않아 잘 잡히지 않고 걸었다 해도 끌어 내기가 쉽지 않으며

한 번 투척 후 맘 내키는 대로 갈아 쥐도 되는 비교적 게으른 낚시이고 밥해먹고 고기굽고 한잔씩 나누면서 끈들과의

약간은 뺨이 가미된 대물 무용담을 들어 가며 캠핑을 겸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매력이 있다.

메뚜기도 한철이러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잉어낚시 현주소가 이제절 초여름 아니면 마릿수 조황은 힘들다.아님..장마철

오름 수위나 노적가리 서리내릴 썸 아니면 없다고 본다.

약간의 화가 치밀고 있었다.옆집 카센타 김사장이 벌써 잉어 손맛을 다고 자랑하는 터라.신조 모노라인 카본7호줄과

코리아 베이스아Q.D 릴몽치를 아내 몰래 뺏쳐서 트렁크에 고이 잠재우고 있던 터였다.

드디어 양구대교 낚시가게 형님이 한 자리 비었다 다는 전화가 날라 오고 나는 출사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진공 청소기 돌려주고 안하던 걸레질도 하고 빨래도 옥상에 널어 주고 시장 보러가는데 장바구니 옆에끼고 알아서 박박기었다

늦은 밤 10년넘은 애마를 다그쳐 쌍코피 터져 가며 노력에 노력한 끝에 드디어

양구대교 출사표를 4막5일 끊었다.

초여름 동트는 이른 새벽5시조금 넘긴시각.....

(코리아 베이스Q.D3)릴 멍치 끝에 달린 스테인레스 차임벨 소리가 건너편 산 자락에 메아리로 울려 퍼진다. 릴대의 휘어짐과

차임벨의 긴 여운으로 대충의 사이즈를 가늠하는데 꽤나 긴 시간을 수면 가까이 쳐박힌(수퍼케스터)의 카본대 초릿대 끝이

요동을 친다.제빨리 릴대를 뽑아 들고 트렉을 감아주는 신공을 구사.. 멈출 기미가 없던 트렉을 살짝 조이는 순간.묵직하다

아니.... 나무 등걸같은데 걸린 듯한 느낌이다. 순간적으로 등줄기를 타고 전율이 느껴진다. 소름이 돋으며 온 몸의 솜털까지도

곤두서는 상황 다시 트렉을 살짝 푼다.

순간 지난해 양구 대교 미터짜리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연유를 난 아직 모르겠다. 놓치면 안돼.....라는 생각 뿐.

이제껏 잉어 낚시를 하며 석자를 넘겨 본것은 단 한 마리. 그때도 이렇게 긴장되지 않았다.그냥 최선을 다해 꺼내 보면 석자를

살짝 넘긴정도.

힘껏 매치다가 지치면 버티기.... 그말로만 듣던 씨름 버티기가 아닌 잉어 버티기를 한다.고기가 노는대로 줄의 긴장을

최대한 유지 한채 줄달리기를 한다.이곳 양구 대교 40여 미터 앞 물속엔 바위섬이 하나 있다.너석이 그리로 간다면 쉽게 잡아

낼 수 없다.상대는 오래 살면서 산전 수전 다 겪었을 대물.(고기가 산전은 경험치 못하였을 듯)

그러기를 십여분..... 드디어 양자 택일의 순간이 왔다. 강제 집행이나? 줄의 긴장을 푸느냐? 연륜에 의지하기로 하고 황노인에게

묻는다.

풀어주라우!

줄의 긴장을 풀고 기다린다.한 이삼분이 지났다 싶을때 트랙을 감아 쥐고 릴링을 한다.

크~아~~~.늘어진 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떠오르는 쾌감이란..... 이것이 잉어 낚시의 인센티브다.

이 십여분을 씨름 끝에 발아래 누런 적장의 모습이 펼쳐 지고 곁에 낚시 하던 붕어 낚시꾼들의 탄성이 쏟아진다.

축구와 운전 그리고 잉어 낚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전반5분 후반 남은 시간5분 출발5분 도착5분..혹킹순간 랜딩순간 이것이

잉어 낚시다.아차 하는 순간 뜰채가 부러지고 때 맞추어 옆 조사님의 흰타올이 날라 왔지만 누런 적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담배를 문 입술과 라이터를 쥐 손에 파르르르..... 경련이 멈추질 않았다.

(잊어 버리라우)

일면식없는 황노인이 다가와 어깨를 툭! 친다. 초여름 아침의 햇살이 모든것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

- 제23회 박인환추모백일장 일반부 차상
- 한국문인협회 인재군지부 회원
-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부 회원

기호

한명숙

아랍어 같은 수식어가 팔자 걸음으로 간다
걸어가다 멈춘자리 쇠시슬뜨게처럼
고리마다 연결되어 긴호흡으로 버틴다
촘촘히 잘 짜여진 고리들은 쉽사리 곁을
내어주지 않겠지
끝내 풀리지 않는 열쇠를 움켜쥔 손이
허망하다 문득 돌아보는 길목마다
자위로 채워질 희망, 그 어떤 몸부림보다
더한 서러움으로 다가서는 오기
혼자만의 아집들은 별집을 만들고
한 칸 두 칸 조용히 자리넓힘을 시도한다
그 어떤것도 위안은 아니겠지
한 줌 희망을 놓는일은
또 다시 허망함을 한 줌 줍는 일
그것도한 양식이 되어
뱃속으로 들어가 오장육부를 거쳐
헤집어놓은 길따라 가는동안
또 하나의 아픔은 내것이라 우기며
공생하는 핑계로 비웃음을 흘릴것이다
울고 웃고 아파하며 똑 똑 내어건는 걸음걸이

자국마다 수놓아진 골곡진 인생살이
풀리지 않는 기호다

길

한명숙

안개자욱한 운두령 고개
맑은 영혼 때문지 않는 체온 그리워
가늠하지 못한 마음길 따라
구비구비 산길 돌아 가는 길
오랜 추억들이 반기듯 익숙한 길은
다시 설레임으로 다가선다

때론 무시로 떨어지는 추억들이 보고파
무작정 나서는 길
예기치 않는 기쁨으로 다시 와 줄
풍경 한편을 고스란히 가슴속에 담아본다
그래, 그런날 있었지
가슴벽참으로 다가와 잘 살았구나

용기줄 수 있었던 살아있는 이야기

힘들어도 꼭 가야할 길이라며
환하게 미소지어주던 소박한 희망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더욱 행복하고
다시, 찾아가고픈 길
옛 추억 어디맨가 늘 그자리에 있는
어머니 가슴같은 길



- 월간 모던포엠 편집위원
- 인제도서관 어린이독서회 지도교사
-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 한국문인협회 인제군지부장
-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인제군지회장
- 사회복지사, 한부모가정지도사, 교육아동전문강사(반편견이해교육)
- 인제지역자활센터장

방학

김수현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드디어 방학이다.
고단한 산맥을 등반하는 것처럼
고단한 학교생활을 하다,
중간의 베이스 캠프에서의 휴식 같은 방학
꿀맛 같은 방학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도,
최고봉에 갈 준비도 해야 하는
달지만 꼭 달지만은 않은 방학
좋지만은 않은 방학

드디어 방학이다.
고단하고 힘든 사회생활처럼
힘든 학교생활을 하다
명절 때 찾아온 고향처럼
즐겁고 반가운 방학
하지만 앞으로의 책임도
앞으로의 일도 남아있기에
달갑지만은 않은 방학
달고도 쓰디쓴 방학

싸움

심산

인제초등학교 5학년

싸움을 하면 내가 축구공이 된다
차이고 밀치고 던져진다
둘 다 축구공이 된다
싸움이 끝나면
내 몸은 강이 된다
눈물 땀에 강이 되고
땀 때문에 강이 된다
몸도 아프다
마음이 가장 아프다.

겨울이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겨울이 왔어요

나무들이 예쁜 흰옷을 입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나무야, 그 옷 누가 사줬니?”

나무가 말했어요

“겨울이”

그림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내 동생이 그림을 그린다
연처럼 보이는 걸
책상이라 하고,
이상한 물고기를
바나나라고 한다
나는 도무지 모르겠는데
내 동생은 자꾸 우긴다.

어른들은 몰라요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을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 생각을

어른들은 몰라요

우리의 꿈을

어른 맘대로 하는 세상

누구 맘대로 하지 말고

우리 서로 이해하고

우리 서로 존경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싫어도 싫다고 하면 안 돼요
미워도 밉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착한 어린이래요

도와주기 싫어도 도와줘야 한 대요
같이 가기 싫어도 같이 가야 한 대요
그래야 단짝친구래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착하지 않아도 되는
단짝에게만 친절하지 않아도 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나라에 가고 싶어요.

자연이 아파요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자연이 아파요
너무 너무 아파요

파릇파릇 나무도 점점
시들어 가고 있고요,

보들보들 흙도
꺼칠꺼칠하고요,

내 친구 물고기도
어디론가 떠나고 있어요

자연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모두의 가족을 버리지 말아 주세요.

우산

안지혜

원통초등학교 3학년

우산은 커다란 방패
빗물화살 날아오면
모두모두 막아주네
햇살창 날아오면
그늘방패 되어주고
바람괴물 달려들면
요리조리 막아주네
우산은 내 친구
용감한 내 친구.

창밖에 비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보니
비가 똑똑
하늘이 울어요
오늘은 기분이 안 좋은가?
나도 눈물이 나요
나에 생일인데
즐거워서 그러는 거겠죠?
하늘도 그럴 거예요.

무당벌레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속은 까맣고
겉은 빨강고
검정 땡땡이 무늬
옷을 입고
과룩과룩한
풀 속에 사는
그 이름은?
무당벌레래요!

나만의 공장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물건을 만들고
조립하는
나만의 공장
재미있는 장난감도
내 마음대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장난감 공장은 나만의 공장.

글쓰기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우리는 수요일마다
글쓰기수업을 해요
슬픈 것 즐거운 일
다 털어 놓아요
날 글쓰기가 좋아요.

사랑하는 가족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날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친구들과 언니 오빠 동생도
나의 사랑하는 이웃가족이에요
내 주변에는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

손예진

원통초등학교 3학년

게으름을 피우면
할 일을 미루면
소가 된대요

게으름을 안 피우면
할 일을 잘하면
칭찬을 받는대요

나는 소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칭찬을 받고 싶어요.

내가 한 말 취소야

박가은

원통초등학교 1학년

예린이 나랑 같이 놀자

싫어!

에잇 내가 한 말 취소야! 어휴 왜 이렇게 까칠하지?

엄마 나 책 읽어줘

안돼! 엄마 동생 보고 있잖아

치 치사해 어휴 왜 다들 내가 한 말 취소야를 말하게 할까?

가은아 우리 놀이터 가서 놀자

싫어 나 빠졌어. 에잇 내가 한 말 취소야!

두 친구의 우정

박가은

원통초등학교 1학년

꽃과 나는 친구다
내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꽃이 얼른 와서
슬픔을 빗자루로 쓱쓱쓱 쓸어준다
내가 어떤 외로움을 당했어도
꽃은 얼른 와서 내 동무가 되어준다
내가 어떤 상을 받았어도
꽃은 얼른 다가와 기쁨을 누리준다
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도
다가와서 날 안아주고 위로해준다
꽃은 나의 친구다.

제5장

Inje Culture

麟蹄
詩
書
展
心
齋
印
서
화
전

제16회 인제서회 임서전
2012년 4월 13일~15일
인제문화원 2층 전시실

출품자 명단



강순복	고춘길	권옥자	권혁선	김옥남	김윤희	김인국	김진도
김혜림	문근태	박민자	백명숙	백옥희	안금숙	안미영	오향임
우성옥	유승미	유정원	이득자	이명재	이지수	이지엽	장남근
장예진	전숙희	전영옥	정진숙	조덕중	조석준	조정옥	최옥매
최옥연	최원영	최은희	최정숙	최태홍	한길용	한순자	한주림
황변주	서성호	김 향	(이상 43명)				

蓋聞二儀有像顯覆載以含生四時無形
 潛寒暑以化物是以窺天鑑地痛愚皆識
 其端明陰潤陽賢推罕宗其數然而天地
 苞乎陰陽而易識者以其有像也陰陽覆
 乎天地而難窮者以其無形也

壬午年 素亭 書

고춘길

夙興溫清以榮新馨如松之蒼川派水且測澄取
 暎容二若思之癖安宜為初博美慎終宜之榮系
 而產務少世志學位宜仕操講從政存以甘棠立
 向是亦示殊貴財禮子等甲上和六睦友昭為隨外
 文備初入奉母儀法姑伯方程子以兒孫惟兄弟同
 秉連枝及友投分切磨義規仁慈隱忍造以弗
 辨為家塵近款涉逃彭桂新

壬辰仲夏 函堂 書

강순복

諱猛龍字神回南陽白水人也
 其氏挨介興源流所出故已備
 詳世錄不復具載盛鬱於帝皇
 之間始德星曜像於朱鳥之淵
 玄万整之中峴巖千

壬辰仲春伴松

권혁선

持節平西將軍涼州刺史瓊之十世
 孫八世祖軌晉惠帝永中使持節安
 西將軍護羌校尉涼州刺史西平公
 七世祖素軌之第三子晉明帝太寧
 中臨羌都尉平西將軍

壬辰跳月松苑

권옥자

中國蕃于肅盛于漢
 牙自以私
 民止物初臣
 齒隸元時始
 上憲肇乃而
 乃元蒙漸流
 流頽頽漸
 漸

壬辰 鄭 白 河 謹 啟

김진도

然則大教之興基乎西去騰漢迹而眩夢照
 東域而流慈者分形跡之時主未馳而成化
 常常現常之世民仰德而知道及乎晦影歸
 真邈儀越世金容掩色不鏡三千之光照庶象
 開苗空端四之相於是激之廣被拯含類於
 三途遺訓遐宣道守羣生壬辰 鄭月 書 曼

김인국

申大燦 敏子 命 敏申 田家 自
 澹 澹 子 南 至于 大 澹 一 法 子 陸 二
 志 至于 澹 亦 邊 澹 澹 陸 雲 雲 陸
 乙 田 法 于 教 煇 林 木 法 于 侵 賢 文 根 太

侵賢文根太

문근태

夫勲解書省校書郎武德中授右領
 左右府鎧曹參軍九率十一月授輕
 車都尉兼直祕書省貞觀三率月兼
 行雍州參軍事六率七月授著作佐
 郎七率六月授詹事主

壬辰春 雲亭

김혜림

心選少時學業顏氏為優其後職位
 温氏為盛事具唐史君幼而朗晤識
 量弘遠工於篆籀尤訓閣司經史籍
 多所刊定義寧元年十一月從太宗
 平京城授朝散正議大

壬辰仲春思剛吳香任



오향임

股善波羅蜜多心經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
 皆空度一切苦厄舍利子色不異空空不異色色即
 是空空即是色受想行識亦復如是舍利子是諸
 法空相不生不滅不垢不淨不增不減是故空中無色
 無受想行識無眼耳鼻舌身意無色聲香味
 觸法無眼界乃至無意識界無無明亦無無明盡乃
 至無老死亦無老死盡無苦集滅道壬辰仲春香溪



안미영

父生我身 母鞠我
 身腹以懷我乳 以
 哺我恩 高如天德
 厚似地出 必告之

麟蹄南初五年 柳正美

유승미

默議於心 時千福 有懷忍 禪師忽於
 中夜見有一水發源 龍興流注 千福
 清澄泛艷 中有方舟 又見寶塔 自空
 而下 久之乃滅 即今建塔處也 寺內
 淨人名法相 先於其地

壬辰仲春古潭

우성옥

燒平市斯照獨企子賤孔藁道
 孝恤高季路無拾遺犁種宿堅黃巾初起
 休囚歸賀八月英民不煩於鄉隨就壺落
 中除靛城長蠶月出務不閑四門臈正儉
 位常在股肱數為從事靛無細聞徵拜郎

壬辰仲春木勁

유정원

叅軍同娶御正中大夫
 將軍太宗為秦王精選僚屬拜記室
 書黃門傳云集序君自作後加踰岷
 侍讀與沛國劉臻辯論經義屈焉齊
 仕隋司經局校書東宮學士長寧王

壬辰仲春 奉元

이득자

守遂家武威高涼州武宣王
大沮涼時建威將

月鶴初校李智秀

구평이공공의 말씀이나 매유연이비샤응고담응미업더라
소공이천의응야날이적므러시니제공으로응여금신나의
치영을수이만환응쇼셔응고각벌니공과 월말화초유년의지수

為行披覽詩雅煥知其祖高帝龍興有張
良善用蕭蕭在帷幕內決勝負千里出外
於留文景間有張釋建忠弼謨帝遊上林
問禽狩所有苑令不對更問審夫事對於
是進審夫為令退釋出議為不

士辰兩水後七日
德溪李明在

이명재

이지수

彼前聞截仍續真開茲後學是以剋心淨
 去法遊西域乘危遠邁杖策孤心積雪晨飛途
 間失地驚砂夕起空外迷天萬里山川撥煙霞
 而進影百重寒暑躡霜雨而前蹤誠重勞輕
 求深及達周遊西宇十有七年宗庶道邦詢求
 正教饒林八水味道滄風庶三爪仲陽恩本行

장남근

法奮不煩備而不奢上合紫臺
 稽之中和下合聖制事得禮儀
 於是四方土仁間君風耀敬咏
 其德尊琦大人之意

元通中三年李智暉

이지엽

西駕六戎北震五狄東勤九夷荒遠既殞
 各貢所有張是輔漢世載其德爰既且於
 君蓋其纒縵續我鴻緒牧守相係不殞高
 問孝弟於家中審於朝治京氏參聽麗權
 略藝於從畋少為郡吏隱練職

壬辰春中和曾

정진숙

江頭綠暗紅稀燕交飛勿到當年行處依
 灑清
 泪歎人事當憐心達滿酌玉壺花露送春歸
 上西樓
 春暮一重山兩重山遠天高烟水寒相思
 楓葉丹菊
 花開菊蕊殘塞鳥高飛人未還一簾風月
 閒長相思
 別意錦悵重捲暮霞屏風曲閑紅牙恨人
 何事
 若離家枕上夢魂飛不去
 豈覺來紅日又西斜滿庭芳草

전영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조정옥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최옥매

天地玄黃宇宙洪荒日月盈虧宿列張空車馬
 佳秋收冬藏野田稼穡黍稷之調陽雲霧致雨霖結
 羽霜重生飛水玉出心陶初輝玄籟珠夜光第
 孫李赤篆重垂芳華海賦河清鯨潛羽翔龍跡火
 帝多官人皇始術文字乃外太崇柱位德國而寧
 陶唐布武伐兪周發取湯坐躬問道去柱才重
 育黎兮王似我美近近壹措承寅陶王鳴鳳至赫日
 袖台坊仙被學木換及萬方善片才敬回以己當若
 性艱苦坐雅致傷如蒼負黎男叔才己不己必以
 得能卷三回淡波從靡灼已去位女可霞公冬難重
 墨血將沫前讚羔羊意行雅矣刻之化至法連名
 立取神表正堂空傳拜空堂習和福因忘積福緣
 芳夢入歷北空契寸信是競黃父乃君曰衆王疏
 苗竭力悲寫畫前臨深履為風與道

崔恩희
 2018. 10. 10.

최은희

于 是 巾 君 輔 止 王 君 維 南 吳 君
 戶 潛 葉 君 品 三 勝 時 太 約 稽 擊
 同 志 人 社 著 日 益 衆 于 中 寅 允
 月 開 社 陽 稷 陽 訖 淵 連 洵 雅 集
 盛 美 也 已 止 際 見 于

壬辰仲書 賢江

최정숙

偽 涼 都 護 軍 建 雖 遊 黃
 守 還 朝 第 書 祠 閭 郎 南 林 胡 祖 節 宗
 璋 偽 涼 愷 才 本 治 建 西 海 樂 二 郡 曉
 涼 武 宣 辭 若 沮 時 中 將 軍 太 守 曾 德
 昌 金 城 武 四 郡 大 守 請 家 武 高 祖 信

壬辰仲陽 廣岩

최태홍

寔士寧晉楚更霜趙魏困橫假途滅掃踐土
 會盟何遵約法韓弊煩刑起翦頗牧用軍
 精威沙漠馳譽丹青九州禹跡百郡秦并
 恒岱禪王云亭鷹門氣塞雞田赤城昆池
 碣石鉅野洞庭曠遠縣邈巖岫杳冥治本
 於農務茲稼穡耐載南畝我藝棗稷稅熟
 貢壬辰仲夏平林

한순자

椒殘香浣溪沙閨里玉爐香紅蠟泪偏照
 畫堂秋眉翠薄夢雲殘夜長衾枕寒梧
 桐接三更雨不道離情正苦一葉一
 聲空階滴到明更漏子秋怨東風吹柳
 日初長雨餘芳草斜陽杏花零落燕
 泥香睡損紅妝香篆暗銷高鳳畫屏
 紫繞滿湘暮寒輕透薄羅裳壬辰仲春一環

한길용

殷英童女英童集呼顏郎是也更唱
和者二十餘首温大雅傳云初君在
隋雅俱仕東宮弟愍楚與彥博同直
內史省愍楚弟遊秦與彥將俱典祕
閣二家兄弟各為一時

壬辰仲春德園



황변주

般若波羅蜜多故心無罣礙無罣礙故無有恐怖遠離顛
倒夢想究竟涅槃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故得
阿耨多羅三藐三菩提故知般若波羅蜜多是大神
呪是大明呪是無上呪是無等等呪能除一切苦真
實不虛故說般若波羅蜜多呪即說呪曰揭諦揭諦
般若揭諦善提莎婆呵般若多心經

壬辰中秋月青蓮

한주림

임원현황

| 직책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
| 원장 | 남덕우 | 018-286-2738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24-8 5/5 |
| 부원장 | 이만철 | 010-2850-7005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A 102동402 |
| ” | 김연화 | 011-9028-2747 |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번길 5 |
| 이사 | 강순복 | 010-6382-4879 |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8 419-6 |
| ” | 김진하 | 011-378-9866 | 인제군 북면 원통4리1반 |
| ” | 김창연 | 011-9273-1528 | 인제군 북면 월학1리 |
| ” | 김현래 | 010-6388-8658 |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15 |
| ” | 도기학 | 017-371-8949 | 인제군 인제읍 상동1/5 33-1번지 |
| ” | 민종식 | 010-9077-2298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3반296 |
| ” | 박기선 | 010-5208-2949 |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
| ” | 박돈녀 | 010-7330-2720 | 인제군인제읍 인제로140번길48-12 |
| ” | 엄윤순 | 011-373-1238 |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
| ” | 이용호 | 010-5367-4354 |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내설악A 102-705 |
| ” | 이협 | 010-5062-7141 | 인제군 북면 원통3리 원통빌라B동401호 |
| ” | 정재환 | 011-308-4404 | 인제군 상남면 하남2리 |
| ” | 최광윤 | 010-2565-2752 |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77번길7-4 |
| ” | 최덕용 | 010-9114-7568 | 인제군 기린면 현5리 내린천APT 601호 |
| ” | 최은희 | 010-3179-4969 |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5반 |
| ” | 최태홍 | 011-701-4984 |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8 |
| ” | 한의동 | 011-9791-8605 |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2반 |
| ” | 홍방래 | 010-3453-4414 |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759-1 |
| 감사 | 정광수 | 011-316-0735 |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420-8 |
| ” | 양군철 | 010-5223-9297 | 인제군 남면 부평리 정자로 345-53 |

직원현황

| 직책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사무국장 | 백창현 | 북면 원통2리 3반 640번지 | 461-6678, 010-5371-6996 |
| 간사 | 정승아 | | 010-4116-7536 |
| 관장 | 백계현 | 상동 4리 7반 | 010-4736-2375 |
| 환경담당 | 백설애 | | 010-9005-0091 |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28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개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 28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립니다.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T : (033)461-6678 / F : (033)461-0220 / E-mail : inje6678@kccf.or.kr

인제문화 제 27집

발행인 : 남덕우

편집인 : 백창현

편집자 : 정무교

발행처 : 인제문화원

전화 : (033)461-6678

팩스 : (033)461-0220

디자인·인쇄 : 마루금기획 031-954-0711

인쇄 : 2012년 12월 28일

발행 : 2012년 12월 31일

이 책은 인제군청 보조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비매품>



인제문화원